



등대

제 4 회
문학상
수상 작품집

등대

제 4 회
문학상
수상 작품집



“해양문화를 통하여 쌓은
진취적 해양사상은 우리나라가
다시 한 번 더 도약하는데 필요한 밑거름...”

“해양문화의 지평이 넓어지고,
국민들이 바다와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등대

제 4 회
문학상
수상 작품집





Contents

발간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6
축사	울산항만공사 사장	8
심사평	소설 이인우	10
	시/시조 양왕용		
	수필 정목일		
대 상	소설 김기영	자정의 빛 16
최우수상	시/시조 조수일	염장이 아버지 38
	수필 김미향	천초목 41
우수상	시/시조 김태수	해안선에 대하여 46
	시/시조 진서윤	서해에서 48
	소설 김종찬	노후선에서 살아남기 49
	소설 윤대정	귀향 65
	수필 조문자	불섬 항 81
	수필 조수산	바다와 어부 85
가 작	시 조경섭	간절곳의 등대 90
	박지한	철령, 푸른 치맛자락 휘날리고 92
	전길중	낙지의 생애 또는 슬픔에 94
	소설 남명희	파리판 98
	김성현	등대, 그 치유(治癒)의 쓰리쿠션 115
	수필 전미경	등대지기 130
	유진선	엄마와 바다 134
	이명길	폐선 옆에서 137
	김영근	창포말 등대 140

?

?

2016년 12월 15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정수철



?

2016년 12월 15일

울산항만공사 사장 강종열



소설

응모작 77편 중 예선을 통과한 작품은 15편이다. 단편소설의 구성 방법에 충실하며 주제를 이끌어 가는 솜씨가 뛰어난 작품도 많았다. 또 세련된 문장으로 현장을 리얼하게 그린 작품도 있었다.

수준 높은 작품 중에 다음 3편은 개성이 뚜렷하여 소개 하고자 한다.

〈자정의 빛〉은 목선을 몰고 등대지기를 하는 큰 아버지를 찾아 팔미도로 가던 ‘나(여성)’는 우의를 입은 국군과 외국인 군인 여섯 명을 배에 태운다. 팔미도 등대는 인민군이 점령했으리라 생각하고 경계를 하며 배에서 내린다. 인민군이 없음을 확인하고 등대에 올라간다. 등대에 불을 켜기 위해 온 군인들은 불을 켜지 못해 난감해 한다. ‘나’가 죽은 큰 아버지의 입속에서 등대에 불을 켜는 부품을 찾아내자 국군은 작전을 개시한다. 판타지적 구성과 한 자어 등은 역사소설에서 볼 수 있는 특징으로 흥미 될 수 있으나 탄탄한 서사와 묘사로 문장을 세련되게 만들었다. 〈노후선에서 살아남기〉는 원앙화물선인 아카시아호에서 벌어진 이야기다. 40년 경력자인 고병태 선장과 영호, 그리고 대책임원 5명은 배를 가라앉히려려고 회의를 한다. 해수를 채운 배는 가라앉기 시작하여 모두 탈출을 하는데 선장은 배에서 나오지 않는다. 특수 용어의 사용과 구체적 지명은 현장감을 더하여 소설적 흥미는 있으나 기행문 같은 구성과 묘사 부족으로 문학성이 다소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 〈귀향〉은 마산시 구산면이라는 구체적 지명과 암 선고를 받은 어부 아버지, 여동생 그리고 나와 가족의 이야기이다. 고향에서 혼자 사는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액자로 구성되어 있다. 아버지가 죽자 ‘나’는 귀향하여 아버지의 삶인 바다를 택한다. 현장감은 있으나 주제가 다소 흐려지고 반전과 클라이막스가 없는 것이 흠이라고 할 수 있다.

수위를 겨뤘던 〈파리판〉, 〈남태평양에는 쿠로마구로가 산다〉, 〈등대, 그 치유의 쓰리쿠션〉 등도 순조로운 전개로 무난히 읽히는 작품임을 밝혀 둔다. 그 외 수상에는 들지 못했지만 계속 정진 한다면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하며 응모하신 모든 분들의 건필을 빈다.

소설 본심 심사위원 이인우

시 / 시조

등대나 바다를 모티브로 하여 시를 쓴다는 것은 체험과 상상력이 동시에 필요하다. 체험의 경우 물론 직접 체험도 있을 수 있지만, 간접체험 특히 아버지나 어머니 체험을 관찰자적 입장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

최우수작 〈염장이 아버지〉의 경우 시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버지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이는 ‘나’이다. 어조로 보아 남성적이기 때문에 아들이라 볼 수 있다. ‘염장이’라는 이중적 의미, 즉 장의사와 소금절이는 이로 우울한 상징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산만한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인의 시선이 특히 돋보인다. 뿐만 아니라 생활적인 시어를 감각화시키는 솜씨도 뛰어난 편이다.

우수작 〈해안선에 대하여〉 역시 아버지 체험을 차용하고 있으나, 앞의 작품에 비하여 추상적인 시어가 특색이다. 우수작(2)의 경우 ‘바다’ 자체를 형상화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 역시 충분히 구체화되고 있다.

가작들의 경우 ‘등대’, ‘파도’, ‘낙지’, ‘바다’ 등이 시적 제재가 되고 있으며 지난해 보다 대체적으로 수준이 향상되었다.

본심에 올라온 작품들 가운데 많은 작품이 탈락시키는 아쉬운 것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등대문학상’의 앞날이 밝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수준 역시 높다는 것도 심사위원으로서 보람을 느꼈다.

시 본심 심사위원 양왕웅

수필

제4회 등대문학상 응모작품들을 일별하여 입선권에 드는 작품들을 골라낸 다음, 입상 작품을 선정하는 순서로 심사를 진행했다.

시와 소설은 픽션(fiction)으로 상상을 통해 창작할 수 있지만, 수필은 논픽션(nonfiction) 이기에, 체험을 통한 인생적 발견과 깨달음을 얻어내야 한다. 말하자면 ‘바다’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이 바탕을 이뤄야 된다. 이런 점 때문에 바다에 대한 체험 여부나 체험의 깊이에 따라 수필도 달라진다. 대부분의 응모작품들이 직접적 체험을 통한 토로가 아닌, 간접적 체험이거나 사유를 통해 얻어낸 작품들이 많았다.

국토의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해양진출과 해양시대를 열기 위해서도, ‘바다’에 대한 애착과 함께 많은 관심을 지녀야 한다. ‘등대문학상’ 공모는 해양시대를 여는데 있어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본다.

최우수로 선정된 ‘천초목’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문장과 주제의 통일성 등이 돋보이는 작품이었다. 심사에 있어서 주제의 통일성, 소재의 특이성, 문장의 세련성, 구성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이번 등대문학상 심사를 통해 이 공모전이 국민들에게 ‘바다’에 대한 애착과 사랑을 통해 해양진출을 도모하는 시금석이 되리라고 확신한다.

수필 본심 심사위원 정 목 일

수상작품

대 상	소설	김기영	자정의 빛
최우수상	시/시조	조수일	염장이 아버지
	수필	김미향	천초목
우수상	시/시조	김태수	해안선에 대하여
	시/시조	진서윤	서해에서
	소설	김종찬	노후선에서 살아남기
	소설	윤대정	귀향
	수필	조문자	불섬 향
	수필	조수산	바다와 어부
가 작	시/시조	조경섭	간절곶의 등대
		박지한	철령, 푸른 치맛자락 휘날리고
		전길중	낙지의 생애 또는 슬픔에
	소설	남명희	파리판
		김성현	등대, 그 치유(治癒)의 쓰리쿠션
	수필	전미경	등대지기
		유진선	엄마와 바다
		이명길	폐선 옆에서
		김영근	창포말 등대





수상작





제4회 등대문학상

대 상



김 기 영

경기도 부천시

프로필

고려대학교 철학과 졸

2015년 부천시인문학상 소설부문 당선

2013년 KB창작동화제 장려상 수상

당선소감

바다도 무언가를 닮았다면 울산 바다는 심장을 닮았습니다. 언젠가 방어진에서 바라본 울산 바다는 힘차게 박동하는 심장처럼 펄떡거렸습니다. 조선소 도크에서 건조된 배들은 파도를 길들이며 대양으로 나아갔고, 수출을 기다리는 완성차들은 빼곡히 열을 이루어 거대한 운반선 앞에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쉬지 않는 심장처럼 끊임없이 달릴 것이고, 우리가 직접 가볼 수 없는 곳까지 추동할 것입니다. 심장이 혈액을 공급하듯 정유공장은 우리 땅 곳곳에 힘을 불어넣음으로써 대한민국을 돌립니다. 울산의 역동도 등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간절곶 등대는 민족의 암흑기였던 1920년에 처음 불을 밝혔습니다. 그 이후로 울산 바다의 항로를 비춤으로써 묵묵히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등대의 빛은 한정된 공간만 비추지만 그 너머의 거대한 변화도 이루어낼 수 있음을 간절곶 등대를 보며 깨닫습니다. 간절곶이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이라는 점은 그래서 의미하는 바가 큼니다.

어쩌면 불안하고 어수선한 지금이야말로 등대의 환한 빛이 우리를 비추어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폭풍우 앞에서도 깨끗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어두울수록 빛을 뿜는 등대의 자세와 정신이 필요한 때 같습니다.

해양문학 발전을 위해 뜻 깊은 대회를 열어주신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과 울산항만공사, 항로표지기술협회에 감사드립니다. 투박하게 빚어진 글을 너그럽게 봐주신 심사위원들께도 감사하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정의 빛

제4회 등대문학상 대상 / 소설

김기영



*

사내들은 말이 없었다. 날 의식해서인지 서로 눈짓만 주고받았다. 그들은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 사나운 기운이 나를 향해 뻗친 것이 아님에도 나는 미세하게 떨었다. 그들이 탄 발동선이 고장으로 멈추었을 때, 한 남자가 내 쪽으로 고함을 질러댔다. 영종도와 팔미도 중간지점쯤이었다.

“어이, 어이!”

그는 양팔로 수신호를 보냈다. 거추장스럽게 입은 우의의 소매 부분이 신호를 보내는 깃발처럼 바닷바람에 나부꼈다. 나는 그가 인민군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이속한 시간에 발동선을 몰고 바다에 나올 일이 없었다. 더군다나 장정 여럿이서, 국군은 낙동강 너머 경상도에서 고립무원의 수세에 몰려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국민은 산하에 흩어져 있지만, 군대는 천리 밖에 있고, 정부는 더 너머 부산에 있었다.

보름달 떠 있는 밤바다에 서늘바람이 스치자 반짝거리는 달빛 윤슬이 비늘처럼 돌아나 바다 한가운데에 희미하게 빛줄기를 뿜쳤다. 그것은 불 꺼진 등대 대신 시켜면 바다를 비추었다. 고장 난 발동선이 수면 위의 빛줄기를 잘라먹은 채 멈추어 있었다.

빼꺼덕 빼꺼덕 천천히 노 젓는 소리가 답답했던지 사내는 징발에 나선 군인처럼 당당하게 호통을 쳤다

“빨리 좀 오시오. 뱃사람이 뭐가 그렇게 기운이 없어!”

“아니 여인네잖아?”

그들은 내 뚝배로 넘어오면서 나를 힐끗 보더니 놀라는 눈치였다. 놀라기는 나도 마찬가지였다. 사내 여섯 중에 셋은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셋은 외국인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외국인 셋이 이북 편을 드는 러시아군이라고 간단하게 단정 짓고는 더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어차피 나는 그들을 태워주기만 하면 됐다. 공교롭게도 목표지점이 같았다. 팔미도였다.

외국인들은 내 배를 박물관 유물 보듯이 신기하게 쳐다봤다. 배가 워낙 낡아 목재는 썩어 짓물렀고, 뱃바닥에는 치우지 않고 방치한 청태가 이끼처럼 들러붙어 자칫 흘러당 자빠질 판이었다. 청태가 끼지 않은 부분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진 지 오래였다. 마음씨 좋은 덕구 아버지가 서툰 솜씨로나마 갈라진 틈새에 자잘한 나무토막을 박아 틈을 메워주었다. 그는 내 아버지한테 잘 보인들 얻어먹을 보리서 말 나올 게 없는 줄 알면서도 선비님이라며 공손히 허리를 숙이던 순박한 자였다. 덕구 아버지는 두 달 전 인민군에게 붙들려 간 후로 소식이 끊겼다. 완장 찬 자들의 눈매는 뱀처럼 강팍했다. 그들은 덕구 아버지에게 “인민을 위해 봉사하라”며 겁박했지만, 덕구 아버지야말로 그 인민 중 한 명임을 무시했다.

뼈꺼덕, 노 젓는 소리에 서양인들이 나를 힐끗 쳐다봤다. 바람이 불리하여 돛을 내리고 손잡이가 세로로 반쯤 빠개진 노를 잡고 있는 나를 보자 그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희희덕대며 농지거리를 주고받았다.

사내들은 곧 내게 관심을 거두고는 속닥속닥 귀엣말을 주고받았다. 한 번씩 나를 경계하듯 힐끗 쳐다볼 뿐 딱히 위협하거나 해치려는 기색은 없었다.

기회는 거의 다 찾은 것 같다…… 수심 측정도 끝났고, 해군이 들어올 항로 파악도 끝이 났다…… 등댓불만 밝히면 임무완수다……췌, 목소리 낮춰라! 저 여자가 들을지도 모른다……아직 저 여자의 정체도 모른다…….

인천 앞바다를 순시하는 수병인 줄 알았는데, 그들의 임무는 내 예상과는 달리 더 복잡한 것이었다. 들으려고 들은 것은 아니지만 나는 바다에서는 귀가 더 밝다. 칠랑이며 뱃전에 부딪히는 작은 파도 소리 사이사이에 그들의 목소리가 드문드문

들렸다. 나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했다. 나는 프락치도 아니거니와 그들의 전쟁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저항할 기운도 없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저 팔미도 등대를 지키던 내 아버지를 찾으러 갈 뿐이다.

*

한바탕 물바람이 제법 세계 불어 내려놓은 돛을 거칠게 펄럭거리더니 이내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다. 때 아닌 마갈바람이었다. 북서쪽에서 밀어주는 바람이 뱃전을 때리자 사내들은 내게 물어볼 것도 없이 별떡 일어나 돛을 올렸다. 돛은 금세 풍만하게 부풀어져 바람을 한 입 가득 머금었다. 상괭이 새끼와 부딪쳐도 바스라질 것 같은 이 초라한 목선이 어울리지도 않는 쾌속항진을 했다.

바람은 풍랑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만 적당히 불어주었고, 바다는 그만큼 양순했다. 언제나 폭풍이 오기 전에는 그랬다. 폭풍이 휘몰아치기 전에는 항상 고요했다. 우리 일가가 태풍 속의 돛배처럼 풍비박산 나기 직전에도 넓은 마당 꽃밭에 서는 봄꽃이 피었고, 나비들이 웃으며 꽃들 사이를 날아다녔다.

여인의 풍성한 가슴처럼 부푼 돛을 보더니 사내들은 또 뭐라고 농지거리를 주고받았다. 하지만 난 보았다. 그 애써 연출한 듯한 흥이 실은 곧 닥칠 사선(死線)에 대한 두려움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이라는 걸.

“그나저나 여자 혼자서 이 시간에 왜 배를 몰고 나온 거요?”

그들 중 대장으로 보이는 자가 물었다.

“아버지를 찾으러 갑니다.”

“팔미도로 간다 하지 않았소?”

“예.”

“그럼 당신 아버지가 팔미도에 있단 말ियो?”

말이 안 통하는 외국인들을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서로를 뵈히 쳐다봤다. 대장이 내게 다시 물었다.

“팔미도에는 사람이 안 사는 걸로 아는데, 등대지기 외엔.”

“내 아버지가 그곳 등대지기입니다.”

“팔미도는 인민군이 점령했다고 들었는데?”

순간 내 눈에 바닷물처럼 짙은 것이 일렁거렸다. 바람도 내게 서두르라는 듯 마 칼바람이 더 거칠게 돛을 때려댔다.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은 내가 치러야 할 전투였다. 하지만 난 그의 입에서 인민군이라는 말이 튀어나올 때 그의 전투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들은 북쪽에서 내려온 자들이 아니었다. 남쪽에서 사선을 넘어온 자들이었다. 비도 오지 않는 날씨에 우의를 입은 그들이 등허리에 숨겨둔 살기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

“대답해 보시오. 팔미도는 인민군이 점령했다고 들었소. 그런데 당신이 거길 왜 간단 말ियो?”

그는 돌변하여 마치 나를 취조하는 것 같았다. 그는 내가 민간인으로 위장한 프락치거나 국군과 연합군의 잠입을 감시하는 염탐꾼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는 것 같았다.

그는 한참 나를 노려보면서 어떤 고민에 빠지는 것 같았다. 팔미도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정말 인민군이 저기서 경계근무를 선다면 총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믿거나 믿지 않는 것이었고, 믿지 않는다면 교살하여 물에 던져버려야 했다.

“순풍이 부는군. 덕분에 곧 팔미도에 도착하겠어. 말해보시오, 당신 누구요? 이 시간에 여자 혼자 이런 배를 몰고 인민군이 점령했다는 팔미도로 간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겠소?”

사내는 손목에 채워진 시계를 초조하게 한 번 들여다본 후 뭔가를 애타게 찾는 듯 남쪽 먼 데를 한참 쳐다봤다. 그러더니 매섭게 나를 노려봤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라. 팔미도까지 남은 시간과 내가 살아있을 수 있는 시간 모두.

나는 인민군 프락치가 아니지만, 아니라는 사실과 그것을 증명할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별개였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단지 아버지이자 큰아버지를 찾아 팔미도로 향한다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밖에 없었다. 인민군이 팔미도를 점령했다는 소문은 나도 들었다. 그래서 가는 것이다. 그들도 사람일 텐데 목선 타고 온 여자를 어찌할 거라 여기진 않았다. 그것이 비록 나만의 소망일지라도.

“아버지이자 큰아버지라니? 무슨 족보가 그렇소?”

대장은 따지고 물었다.

“내 생부는 팔미도를 지키다가 가족들과 함께 몰살됐고, 큰아버지가 나를 양녀로 들여 키우다 팔미도 등대지기로 들어간 것입니다.”

“참, 뭐가 그렇게 복잡해. 꾸며낸 얘기 아니오?”

“왜정 끝에 전쟁입니다. 삼천리 방방곡곡 간난신고 안 겪은 집안이 없거늘, 하나 살고자 멀쩡히 살아 있는 아버와 식구들을 죽었다 말하겠습니까?”

“그건 그렇소만. 이것저것 다 떠나서 그 사연이 궁금하군. 어차피 팔미도가 우리 무덤이 될지도 모를 일, 어디 저승 가는 길 심심하지 않게 이야기나 풀어봐 보시오.”

나는 그의 무심함이, 남의 비극적인 가정사를 단지 풀어놔야 할 이야기쯤으로 툭 던지는 무심한 말투가 거슬렸다. 그러나 그는 이미 죽음에게 먼저 손을 내민 사람 같았다. 죽고 사는 것은 먹고 자는 것만큼이나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다.

나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서양인 병사가 뱃전에 기대 뒤척거리자 우의 속에 숨겨둔 소총이 눈에 들어왔다. 총신은 달빛을 받아 반짝거리면서 아름답게 빛났다. 그것은 죽음의 물건임에도 아름답게 빛날 수 있다는 게 역설적이었다. 내 증조부도 그렇게 바다가 반짝반짝 빛나는 날 죽었다 한다.

증조부는 천주 사학(邪學)을 믿는다는 죄목으로 남도 머나먼 섬으로 유배를 갔다. 성리학 외의 것은 몽땅 사문난적 취급을 받던 때였다. 천주를 믿으며 십자가 아래 무릎 꿇는 천주쟁이들은 살기를 바랄 수 없었다. 천주를 따르던 평민과 중인은 서소문 밖에서 처형됐고, 절두산에서 목이 잘렸다. 오편 벼슬에 있던 증조부는 처가의 도움으로 극형만은 면할 수 있었다. 증조부의 장인은 후학선비들을 이끌고 대전 섬돌 앞에 석고대죄를 올리며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형벌은 대부에 이르지 않는다(刑不上大夫)’하였사오니, 반상의 구분이 형틀 위에서 사라질까 두렵사옵니다! 사대부를 평민과 함께 엮어 저잣거리에서 베시는 것은 이 나라의 근간을 파훼하는 것이옵나이다!”라며 절절하게 울었다 한다. 그때만 해도 그 정도로 끝날 수 있었다. 증조부는 위리안치(圍籬安置)를 선고 받아 이름도 생소한 작은 섬으로 보내졌고, 초가의 울타리는 가시로 둘러졌다. 그 둘레를 지키고 서 있는 나졸들은 사학(邪學)하는 한양 양반 탓에 마누라 궁둥짝 구경해본 지가 달포는 됐으려나 하면서 넋지시 증조부를 모욕했다.

증조부가 섬에 갇혀 있을 때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 벼슬하던 친지들은 모두 삭탈이 됐고, 선대 때 하사받은 전답은 모조리 회수됐다. 집안 풀이 말이 아니게 되자 동냥 다니는 거지들도 우리 집 대문 앞에서는 코를 행 풀고는 돌아가곤 했다.

한양 집안 사정이야 천리 밖 죄인은 짐작만 할 뿐 소상히 알 턱이 없었다. 증조부는 어느 화창하고 포근한 날, 평상에 앉아 남해를 바라봤다. 날치가 떼를 이루어 수면 위로 날아가고 있었다. 그것들이 군무를 거대한 군무를 벌여 하늘을 향해 솟구쳤다. 날치는 바다가 끌어당기는 힘을 어찌하지 못하여 이내 곤두박질치면서도 쉽 없이 온몸으로 바다를 때려 공중으로 떴다. 날치는 수면의 구속을 풀어내고 저 높은 데를 향해 날고 싶었다. 증조부는 제 한계를 알면서도 부질없이 솟아오르는 날치 무리를 보며 현실의 속박을 지긋지긋해 했다. 그날 증조부는 초가의 더러운 마당에 무릎이 꿇린 채 사약을 받았다. 간밤에 고인 빗물 웅덩이에 증조부의 축 늘어진 머리가 처박히자 날치 떼도 비행을 접고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증조부가 배신자의 부풀려진 밀고로 희생된 후 일가는 모두 흩어졌다. 형제들

과 갈라진 조부는 증조부를 인천 선산에 모시고는 그대로 인천에 터를 잡았다. 나라는 물 들어찬 조각배처럼 심하게 기우뚱거렸고, 그 배에 탄 백성들은 망망대해를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백성 잃은 나라는 잠시 슬퍼하면 그만이지만, 나라 잃은 백성은 남의 나라 종이 된다. 공맹과 주자만 섬길 줄 알던 조부는 일본인들의 구인광고를 보고는 팔미도로 들어갔다. 그는 부상을 입고 섬을 나올 때까지 등대 건설 인부로 부림을 당했다. 섬에서 그의 허리는 성균관 대성전 위패가 아니라 눈앞에 서 있는 일본인들에게 굽혀져야 했다. 일본인들은 조선인의 굽은 허리에 금방 익숙해졌지만, 조부는 끝내 굴욕에 적응할 수 없었다. 돌아온 조부는 밤낮 공구리 치고 돌 나르던 시커먼 손을 반쯤 못 펴게 됐다. 그럼에도 몸도 추스르지 않고 포구로 나가야 했다. 공맹이 식솔을 먹여주진 못했고, 주자학이 공간을 채워주진 못했다. 조부는 여러 해 포구에서 멀치 그물을 털며 버티다 경술년 겨울을 넘기지 못하였다. 그해 조선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아무리 매서운 추위라도 바다를 얼리진 못했다. 조선은 얼지 않는 바다 너머에서 이양선 타고 온 자들에게 넘어갔다.

일본인들에게 선산을 빼앗기던 날, 아버지는 졸도를 했다. 작은 아버지는 낮이라도 들고 독립운동 하겠다며 울부짖으며 사라졌다. 큰아버지는 순사를 앞세워 선산에 말뚝 박으러 온 일인들을 엉거주춤 막아서다가 매질을 당했다. 그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토지신고를 하지 않는 자의 땅은 그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상 치르는 자가 그런 걸 알 턱이 없었다. 선대의 묘는 일인이 고용한 조선 백성들 손에 파헤쳐졌다.

아버지는 닷새간 곡기를 끊었다가 실성을 하셨는지 벌떡 일어나서는 짐을 싸라고 하셨다. 어머니와 나와 동생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가장의 뜻에 따랐다.

우리가 향한 곳은 팔미도였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은 사내가 어떤 눈빛을 하는지를 보여줬다. 아버지는 힘없이 부서지는 백파처럼 흰자위를 뜨고는 병든 갈매기처럼 맥없이 바다를 멍하게 바라봤다. 신임 등대지기 가족을 태운 연락선은 이제 남의 것이 된 바다를 가르며 팔미도로 나아갔다.

“인후지지(咽喉之地)인 것을.”

연락선 선장이 아는 체를 하며 문자를 제법 썼다. 인천은 경성으로 직행하는 길목이라 목구멍과 같은 땅이라는 뜻이었다. 한반도를 반으로 가위질한다면 그 시 작점이 인천일 수밖에 없다. 우리 땅에 신식 등대가 생긴다면 인천 앞바다에 가장 먼저 마련될 일이었다. 조선인들은 비 오는 날에는 해변에서 꿩과리를 쳐 배를 인도했고, 날 좋을 때는 봉화를 밝혀 뱃사람의 눈을 밝혔다. 왜인들은 그런 구석을 미개하다며 비웃었다.

“이시바시 아야히코 선생이 이 땅에 남긴 첫 업적ियो. 그분이 1903년에 그 뿔이나, 그 뿔이더라, 아, 콘크리트라는 걸 부어 팔미도에 서양식 등대를 지었다지 않소이까.”

선장은 ‘광무(光武) 7년’ 대신 ‘1903’년이라는 서력을 들먹거렸다. 그는 이름도 긴 일본인이 새로 모실 상전인 듯, 그의 이름을 외우고 있다는 것마저 자랑스럽다는 듯, 그러한 것들이 새로운 시대에 빠르게 적응하는 날렵함이자 자신의 장기라고 되는 듯 자꾸 우리 쪽을 힐끔 보며 수작을 걸었다. 아버지는 뱃멀미 때문인지 선장 때문인지 역겨워 뱃전 너머로 머리를 내밀고 토악질을 하셨다.

“잘 계시오. 연락선은 다음 달, 아니 아니, 요쿠게쯔(よくげつ)쯤에나 올 거외다.”

선장은 ‘다음 달’이라는 우리말을 그새 잊어버린 모양이었다. ‘요쿠게쯔’. 그제 일본식 한자어인 익월(翌月)이라는 건 문맥상 알아챌 수 있었다.

우리를 짐짝처럼 내려놓은 선장은 우리와 교대하는 다른 등대지기 가족을 태우고 떠났다. 그들은 선장의 표현대로 요쿠게쯔나 되어서야 물자와 인력을 싣고 올 것이다.

“사람을 치러거든 수족부터 묶고, 나라를 앗으려거든 그 바다부터 오손할 일이다.”

아버지는 당신이 일해야 할 팔미도 등대를 바라보며 괴롭게 뇌까렸다. 아버지는 등대를 일인들에 의해 오염되고 훼손된 우리 바다의 상징으로 이해했고, 그런 데서 자신이 일하는 것을 일종의 위리안치로 여기는 듯했다. 죄인을 벌할 나라가 이제 없으니 스스로에게 유배형을 내리는 것, 아버지는 그 형을 집행하고 있었다.

일곱 살, 아홉 살 먹은 남동생들은 난생처음 서양식 등대를 보고는 신이 나는 눈치였다. 아이들은 작은 섬을 한 바퀴 뽀박질하며 구경을 다녔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생활이라는 것이 한낮의 등대처럼 무척이나 심심하고 무료할 것이라는 걸 직감했다. 동생들은 일본인이 심어놓은 벚꽃나무 아래에서 땅따먹기를 했다. 그전 앞으로 해야 할 수천수만 번의 땅따먹기의 시작이었다. 그들의 운명은 물에 있는 게 아니라 등대에 있었고, 아버지가 형 집행에서 풀려날 때까지 무기한의 징역을 함께 감당해야 했다.

*

“그럼 팔미도에 당신 아버지 말고 다른 가족들도 있단 말ियो?”

나는 대답을 회피했다.

바람이 찾아들어 돛배의 속도가 떨어지자 대장은 초조해하는 눈치였다. 그는 연신 손목에 찬 시계를 쳐다봤다.

“몇 시입니까?”

대원 한 명이 대장에게 시간을 물었다. ‘21시 23분’이라고 답하는 대장도, 대원들도 뱃전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초조해했다.

“이 속도로 월미도까지 가려면 얼마나 더 걸립니까?”

대장이 내게 물었다.

“저도 연락선을 얻어 타지 않고 이렇게 돛배로 가보기는 처음이라…….”

대장은 내 대답에 더 불안함을 느낀 듯했다. 그는 자기 대원 둘과 서양인 병사들을 모으고는 뭐라고 속닥거렸다. 그들은 돌아가면서 노를 젓기로 했다.

“그래도 여기는 연안이라 그런지 바다가 잠잠하군. 파도라도 높았으면 일을 완전히 망칠 뻔했어.”

대장이 중얼거렸다. 나는 뭐라고 반박하고 싶었지만 꼭 참았다. 세상에 평온한 바다는 없다. 그 바다와 싸워 평정해야 살 수 있는 자에게 바다는 더더욱 노기를

핀다. 항구를 벗어난다는 건 무자비하고 변덕스러운 공간에 자신을 내던지는 것과 같다. 바다와의 싸움에서 무승부란 없다. 그래서 출항은 그 자체로 전투와도 같은 것이라고 연락선 선장이 떠들어댔었다. ‘요쿠게쯔’가 되어서 우리를 물으로 날라줄 때 일이었다.

“일전에 일본사람들한테 들으니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전쟁에 나갈 땐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두 번 기도하라.’ 그래서 내가 짧은 일본말로 물었지요. 그럼 해군은 몇 번 기도해야 되느냐고. 전쟁에도 나가고, 바다에도 나가는 해군 말입니다. 그들은 껄껄 웃더군요.”

아버지는 내내 선장에 대한 역겨움을 감추지 않았다. 아버지의 증오는 연락선을 탈 때마다 누적되어 점점 더 부풀어 올랐다. 선장도 그걸 눈치 채 듯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앞에서 더 잘난 체를 해댔다. 그는 적어도 자기 배 안에서는 ‘텐노(てんのう)’만큼이나 절대적인 존재라는 걸 뽐내고 싶어 했다. 그런 그에게 아버지는 눈엣가시였다. 선장은 아버지가 양반 출신이란 걸 알고는 양반들 욕을 하기 일쑤였다. 그는 말실수 끝에 자기 아버가 어느 양반 지주네 묘지기였다는 걸 말해버리고는 술이라도 취한 듯 얼굴이 시뻘깁게 달아올랐다. 그게 그렇게 분한 일인지는 그때는 몰랐다. 선장 자신이 말실수를 한 것이, 그것도 한때 양반사족인 나의 아버지 앞에서 한 것이 그렇게 원한 가질 만한 일인 줄은 몰랐다. 아버지는 세상을 등진 초라한 등대지기일 뿐이었으나, 선장의 눈에는 밝고 넘어서야 할 옛 상전처럼 보였던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그는 대체 왜 우리 가족을 죽음으로 내몰았단 말인가.

물에 도착한 우리 일가는 큰아버지 댁에 머무르며 쉬었다. 큰어머니와 어머니는 등대에서 새로 한 달을 날 김치와 밑반찬을 준비하셨고, 동생들은 물에 나온 게 너무나 좋아 발을 동동 구르며 뛰어다녔다. 어린 것들은 신이 났지만, 어른들은 서로 말 섞기를 꺼려하셨다. 큰아버지와 아버지는 서로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둘 다 죄인이었다. 아무도 그들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여겼다. 증조부, 그러니까 큰아버지와 아버지의 조부께서 외딴 섬에서 사약을 받으실 때는 워낙 어렸으니 할 수 있는 게 없다 치더라도, 그 후에 빚어

진 가정의 불행은 자신들이 막아야 했다고 자책했다. 평생 서책만 잡으시던 할아버지가 등대 인부로 떠나실 때도, 굶은 손으로 멸치 그물을 털다가 병으로 돌아가실 때도, 일인들이 선산을 앗아갈 때도 그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나라가 통째로 넘어갈 때도 그들은 사족(士族)으로서 한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었다. 작은아버지가 분기탱천하며 독립운동 하겠다고 집을 뛰쳐나갈 때도 무기력하기만 했다. 큰아버지와 아버지는 서로 나눌 말이 없었다.

“그래, 이제 다시 들어가면 다음 달이 되어서야 나온다고?”

“예.”

둘의 대화는 이런 식이었다. 형제간에 원수 진 일도 없어 말을 아예 안 섞을 수도 없으니, 뻔히 아는 사실을 확인하는 정도에서만 한두 마디 나누고 치우는 식이었다.

“다음 달은 아버지 기일이다.”

“압니다. 옛새가 아닙니까.”

*

그들은 이제 내 얘기는 안중에도 없었다. 나에 대한 의심을 거둔 게 아니라, 나를 의심했었다는 사실 자체를 까맣게 잊은 것 같았다. 그만큼 모두 팔미도에 다가갈수록 극도로 긴장했다. 나는 뒷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돼서 다행이었다.

“대장님!”

“왜 그래?”

“보입니다!”

그들은 다급하게 말을 주고받았다. 서양인 병사들도, 우리나라 군인들도 거추장스러운 우의를 벗었다. 나는 그때서야 서양인들이 미군인 걸 알았다. 하지만 우리나라 군인들이 입고 있는 것은 국군 군복도 미군 군복도 아니었다. 그들은 아주 낮은 군복을 걸친 채 계급장도 없었다.

팔미도가 희미하게 보이자 그들은 총신을 꼭 움켜잡았다. 교대로 노를 젓던 병사도 몸을 낮추어 아주 조심스레 노질을 했다. 팔미도 등대는 불이 꺼져 있었다. 인민군이 팔미도를 점령하였다면 등대 때문이었을 것인데 왜 등댓불을 켜두지 않는지 이상했다. 대장은 마른침을 삼키며 말했다.

“혹시 들통 난 거 아닐까? 등롱에 불빛 하나 없고, 뭔가 불길해.”

긴장하기는 미군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자기들끼리 뭐라고 말을 주고받았다.

“여기까지 온 거, 까짓 거 부딪쳐 보는 거다. 전쟁 중에 군인이 살 생각을 해서야 되겠는가.”

그들이 꼭 움켜쥔 칼빈소총의 총구가 팔미도 쪽으로 향했다. 미군 중 한 명이 전체에게 작전지시를 내렸고, 영어를 조금 하는 대장이 그걸 대원들에게 전달했다.

“아군 외 인원은 발견 즉시 사살. 00시 정각에 등댓불을 켜다.”

나는 대장에게 혹시 우리 큰아버지가, 아니 아버지가 살아 계실지 모른다고, 그러니 민간인은 쏘지 말라고 매달렸다. 그는 만약 민간인이 있으면 가급적 쏘지는 않겠으나 전투가 벌어지면 장담은 못한다고 했다. 그리고 나 역시 아직 혐의를 다 벗은 게 아니니 작전이 종료될 때까지 무리 뒤에서 따라오라고 했다. 도주하면 적으로 간주, 사살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야차의 기운을 뿜고 있었다. 술한 사지를 뚫어본 자의 냉혹함 같은 것이 밤바다처럼 차갑게 나를 얼렸다.

*

그들은 돛배를 물가 바위 뒤에 재빨리 감추고는 해안가부터 포복으로 이동했다. 나도 줄지에 엉금엉금 기어야 했다. 모래톱을 게처럼 기어가자 모래가 입에 들어와 버석거리며 씹혔다. 내 앞에 가던 병사는 갯가 바위의 뾰족한 모서리에 굽혀 얼굴에서 피가 나는 것 같았다.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이 불길한 징조 같아 나는 시

선을 돌렸다. 그 핏방울이 보기 꺼림칙하여 눈을 들어 위를 바라봤다. 저 어두움, 저 고요한 섬의 어딘가에서 인민군이 우리 쪽을 조준하고 있는지 모른다 생각하니 오줌이 질끔 새어나왔다. 그때 부스럭하는 소리가 들렸다. 가장 앞에 있던 미군 병사가 수신호로 정지하라고 지시하자 모두 그대로 죽은 듯 엎어졌다. 부스럭하는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더 거칠어졌다. 우리를 발견한 적이 에워싸며 몰려오는 것 같았다. 미군들은 영어로 조그맣게 욕을 해대면서 손가락을 방아쇠에 얹어 놓았다. 나는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어쩌서 여기에 있는지, 여기 온 목적이 무엇인지도 생각나지 않았다. 노도에 휩싸여 심해의 아가리 속에 던져진 사람은 그 순간 많은 걸 생각할 수 없다. 내가 그랬다. 인민군의 총구에서 언제 총탄이 발사될지 몰랐다. 나는 아직 몸은 살아 있었지만, 두려움에 정신은 죽어버린 것 같았다.

우리는 그대로 죽은 듯이 엎어졌다. 밤의 어두움을 연막탄처럼 쓰며 밤바다를 배경으로 몸을 감췄다. 아무도 숨도 쉬지 않는 듯 고요했다. 너무나 천천히 숨을 쉬어 공기 중의 소금기 입자 하나하나가 콧구멍에서 따끔거릴 정도였다. 어느새 밤바람도 잠들었는지 파도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나를 감시하던 병사의 눈썹으로 굵은 땀방울이 진하게 스며들었다. 그는 눈이 따가워 인상을 찌푸리면서도 전방을 계속 노려봤다.

얼마나 그대로 있었는지 모르겠다. 조심스레 몇 번이고 시계를 보던 대장은 알았겠지만, 나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다. 그대로 시간도 공간도 멈추어버린 채 우리가 그 이상한 틀 속에 갇혀버린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다. 꿈쩍 않고 엎드려 있는 군인들은 그대로 바위처럼 굳어져 밀려오는 바닷물을 끊임없이 받아내고 있었다.

“이런 쟈장맞을!”

갑자기 대장의 입에서 욕이 밀물처럼 밀려 나왔다. 우리를 포위하던 것은 바닷새 무리였던 것이다. 그것들이 풀숲에서 영역다툼이라도 벌인 모양이었다.

“대장님.”

우리는 다시 천천히 이동하기 시작했다. 대원 한 명이 대장에게 소곤거렸다.

“왜?”

“보니까 바닷새가 아예 군락지로 삼은 거 같은데요. 사람이 머물면 새들이 저러지 못합니다.”

그 말은 곧 팔미도에 인민군이 없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확실해?”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점령해놓고 떠나버릴 거라면 무엇 때문에 점령을 했던 말인가. 대원의 말도 일리가 있었지만, 대장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긴장어린 시간이 끝난 후 대원의 말이 옳았음이 증명됐다. 팔미도에는 인민군이 한 명도 없었다. 그들은 오래 머물지도 않았던지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다만 왜식으로 아담하게 지어놓은 등대 사무실 앞에 그들의 군화 자국이 찍혀 있었다. 비가 왔는지 진창이 굳으면서 군화자국도 함께 딱딱하게 남아 있었다. 진흙 자국은 등대 안으로 연결돼 있었다.

“뭘 꾸물거리! 어서 등룡으로 이동해!”

대장이 고함을 쳤다. 그것은 이제 이 섬이 안전하다는 걸 확실하다는 의미였다.

나는 그때서야 정신이 펴뜩 들었다.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목적을 떠올린 것이다.

“큰아버지!”

나도 큰아버지를 부르며 등대 안으로 달려갔다.

*

“큰아버지!”

나는 등대의 나선형 계단을 올라가며 소리쳐 불렀다. 군인들은 이제 나는 신경도 쓰지 않고 자신들의 임무를 완수하려고 등룡으로 올라갔다. 팔미도 등대의 나선형 계단은 훼손되지 않은 채 그대로였다. 난간을 둘러놓은 다섯 개의 줄이며, 가

장 뒷선인 붉은색 선도 그대로였다. 어릴 때 나는 그 줄들이 우리 다섯 식구를 상징한다고 생각하곤 했다. 등대는 그대로지만, 우리 가족은 바다 아래에 있다. 등대는 잃어버린 등대지기를 찾는 듯 밤마다 바다를 비추었겠지만, 인민군이 몰려온 뒤로는 불 밝히기를 멈추었다. 그 불을 밝히던 큰아버지는 보이지 않았다.

“큰아버지!”

소리쳐 불렀지만 대꾸는 없었다. 나선형 계단을 타고 올라간 소리가 등대 천장에 부딪혀 빙빙 돌아 다시 내게 “큰아버지”, “큰아버지”하며 메아리로 울렸다.

나는 등대 사무실과 작은 창고, 무적(霧笛)이 있는 데까지 가봤지만 큰아버지는 보이지 않았다. 혹시 물으로 돌아가신 걸까? 인민군들이 물으로 보내드린 걸까? 하지만 무엇을 타고?

무엇을 타고……. 큰아버지는 무엇을 타고 물으로 가셨나……. 내 머릿속에 그 일이 떠올랐다. 군인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됐던 그 불행이 떠올라버렸다. 큰아버지가 물으로 가셨는지, 가셨다면 무엇을 타고 가셨는지는 모른다. 내 가족은 그날 어선을 타고 물으로 향했다.

큰아버지 댁에서 머물던 우리 가족이 다시 연락선을 타고 팔미도로 떠나야 하던 날, 나는 심한 열병이 걸려 그대로 물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나를 빼고 부모님과 동생들은 연락선 선장의 모욕을 견디며 팔미도로 향했을 것이다. 아버지는 배에서 내리며 다음 달 옛새가 선친 기일이니 늦어도 닷새까지는 꼭 와달라고 거듭 부탁하였다.

선장은 비루한 웃음을 흘리며 “요쿠게즈.”라는 모호한 약속만 남겼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다. 선장은 옛새에서 딱 하루 지나 올 거라는 걸.

부탁한 날이 되어도 연락선은 오지 않았다. 아버지는 선산을 빼앗긴 놈이 이제는 기일도 참석 못 한다고 속으로 우셨다. 하지만 그날 다른 배가 팔미도를 방문했다. 가끔 팔미도에 들러 생선을 식수와 바꿔가던 낚이는 어부였다. 물이 떨어진 그는 아버지에게 빗물 받아놓은 것을 좀 얻었고, 대신 잡은 생선을 한 광주리나 풀어 놓았다.

“저기, 이것 보시오.”

아버지는 저만치 보이는 작은 어선을 한 번 내려다보고는 어부에게 사정했다.
“생선은 됐고, 우리 일가족을 물으로 좀 태워다 주시겠소? 내일이 선친 기일이
오.”

그러자 어부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지금 날씨가 맑지만 바다날씨라는 게 언제 순식간에 돌변할지 모르는 법이요.
그냥 연락선을 기다리는 게 어떻소? 나도 오늘은 웬지 꺼림칙하여 예서 하루 묵을
까 하고 들어온 것이요.”

그렇게 몇 번의 설왕설래가 있었고, 웬만해선 높아지지 않는 아버지의 언성이
높아졌다. 어부는 그간 신세진 것도 있고 해서 끝내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내 가족은 나만 빼고서, 내가 있는 큰아버지 댁에 오기 위해 어선에 올라탔다.

천 개의 얼굴을 가진 바다는 언제 어떻게 표정을 바꿀지 몰랐다. 어부가 막연
하게 불안해했던 일이 벌어졌다. 그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 도달할 때까지 일부러
기다렸다는 듯 하늘은 순식간에 먹장구름을 풀어놓았다. 구름은 바람과 함께 왔
고, 바람은 파도와 춤을 췄다. 그 사나운 춤사위 속에서 어선은 한순간 사라졌다.

할아버지 기일에 큰아버지는 비보를 들었다. 나는 나아가던 열병이 더 도져 그
대로 익어버릴 것처럼 열이 펄펄 끓었다. 차라리 그대로 열에 익어버리고 싶었다.
바다처럼 차가운 것이 아니라면 뭐든지 괜찮았다.

우리 가족의 비극은 신문에까지 났다. 관청의 일본인들은 유가족을 예우한답
시고 큰아버지에게 등대지기 일을 권유했다. 큰아버지는 무슨 영문인지 그 권유를
받아들였다. 큰아버지는 아버지와 달리 큰댁 식구와 나를 물에 남겨두고 혼자 떠
났다. 나는 그것이 큰아버지가 스스로에게 내리는 위리안치의 형벌임을 알 수 있
었다. 큰아버지는 이제 살 수도, 죽을 수도 없었다. 치욕과 분기 탓에 죽자니 가족
이 있었고, 이대로 혼자 살아남자니 너무나 부끄러웠다.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자
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방식은 유형(流刑)이었다.

그 큰아버지가 지금 팔미도에 계시지 않는다. 나를 딸자식처럼 거둬주고 길러
주신 그분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인민군이 팔미도를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큰어머니는 그대로 주저앉아 실신을 하였고, 진작 출가한 사촌언니들은 시택에 매

인 채 부엌에서 울기만 했다. 큰아버지의 장남인 사촌동생은 외항선 선원이 되어 큰돈을 벌어오겠다고 집을 떠난 지 몇 달이나 됐다. 팔미도에 누군가 가 봐야 한다면 나밖에 없었다. 인민군도 누군가의 가족인데 설마 나 같은 여자를 해칠까 싶었다. 그러나 덕구 아버지가 대충 손을 본 낡은 목선에 몸을 실을 때, 뱃사람들이 내 뱃던 대화는 영 꺼림칙했다. 그들은 인민군이 팔미도를 점령하고부터 등대에 불이 안 들어와 여간 위험한 게 아니라며, 해 지기 전에 못 돌아오면 물고기 밥이 되겠다고 투덜거리며 침을 각 뱉었다.

*

등롱에도 없으면 큰아버지는 정말 팔미도에 계시지 않는 것이다. 그럼 큰아버지는 인민군의 배려로 안전하게 물으로 돌아갔거나, 아니면 인민군에게…….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등롱으로 연결된 나선형 계단을 빙글빙글 오르는데 현기증이 났다.

군인들이 다투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린 것은 등롱 가까이 다가갔을 때였다.

“이제 와서 불이 안 켜진다고 하면 어찌라는 거야!”

어둠 속에서 대장이 고함쳤다. 그는 아기처럼 바닥을 기며 뭔가를 찾고 있었다. 미군들과 나머지 대원들도 똑같이 어둠 속에서 손바닥으로 바닥을 쓸고 있었다.

“손전등 아직 못 고쳤어?”

대장이 대원들에게 또 소리를 버럭 질렀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보름달이 뜬 밤이지만 천 개의 표정을 가진 바다는 심술궂게 먹구름을 뿜어내 사위를 시커멓게 칠해놓았다.

“어두워서 시간도 못 보잖아!”

대장은 초조함에 미쳐버리기도 하듯 악을 썼다. 그는 시간을 꼭 확인해야 했다. 나는 문지방 너머에서 그 분위기에 질린 채 서 있었다. 그들의 초조하고 살벌

한 분위기에 질리고, 여기에도 큰아버지는 계시지 않는다는 불안감에 질렸다. 군인들은 어둠 속에 서 있는 나를 헛것처럼 힐끗 보고는 계속 바닥을 뒤졌다. 나는 쫓이는 게 있어 땀샘 계단을 내려갔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성냥을 찾아 그들에게 갖다 주었다.

성냥개비는 많지 않았다. 대장은 얼마 남지 않은 실탄처럼 그것을 아주 소중히 사용했다. 그는 시간부터 확인했다.

“23시 55분. 바보같이 모래사장에서 너무 지체했어.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 작전이 어떤 작전인데! 고작 전선 쪼가리 하나 없어서 나라를 못 구한단 말인가!”

그는 절망감에 몸서리치듯 말했다.

그가 두 번째 성냥을 키자 희미한 불빛이 등롱 안을 비추었다. 빛은 너울거리며, 저 구석에서 머리를 푹 숙인 채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있는 미군들을 비추었다. 그들에게서 아까 내게 농지거리를 던지던 유쾌함과 여유를 찾아볼 수 없었다.

“찾았습니다!”

대원 한 명이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어디! 자네 어디에 있나!”

성냥불이 꺼지자 그들은 우스꽝스러운 희극배우들처럼 어둠 속에서 쿵쿵 박아 대며 손짓으로 서로를 인식했다.

“확실힌? 이제 성냥개비 달랑 세 개 남았어. 그리고 3분 남았고.”

대장은 대원을 믿고 성냥 하나를 켰다. 하지만 대원이 손에 쥐고 있던 것은 그들이 찾던 물건이 아니었다. 이제 2분 남았고, 성냥개비는 두 개 남았다.

“이제 2분 후면 9월 15일이다.”

대장의 가라앉은 음성은 복잡했다. 체념과, 절대 체념할 수 없는 사명 사이에서 목소리는 소용돌이쳤다.

나는 이들을 돕고 싶었다. 동병상련일까, 나는 그저 저렇게 뭔가를 열망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 그들은 나와 합류하기 전부터 다른 임무를 수행하

느라 술하게 죽음과 맞섰을 것이다. 사선에서 단련된 그들의 눈은 두려움 같은 것은 볼 수도, 보지도 않았다. 그 눈은 마치 빛만을 인식하는 장님의 눈처럼 단 하나만을 인지하는 그런 것이었다. 그것을 저들은 임무라고 불렀다.

나는 어떤 부품이 필요한지 물었다. 그들은 반사경의 전선이 끊어져 있는데, 새끼손가락 길이만큼의 전선이 사라져 연결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때 나는 뒀가를 직감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큰아버지는 돌아가신 것이다.

“혹시 바닥을 뒀지다가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나요?”

울떡거리는 목소리를 꼭 누르며 내가 물었다.

“어두워서 보이진 않지만, 저 구석에 시신 한 구가 있소. 보나마나 인민군이겠지만.”

나는 비치적거리며 그가 가리킨 쪽으로 다가갔다. 손으로 시신의 얼굴을 더듬으니 익숙한 이목구비가 만져졌다. 하지만 울음은 저들을 돕고 난 후에 터트려도 된다. 대장은 이제 1분 남았고, 작전은 실패한 것 같으며 벽에 머리를 찢고 있었다.

나는 큰아버지가 몰락한 사족의 후예로서, 지켜내지 못한 한 가문의 장자로서, 더 나아가 빼앗긴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유약한 선비로서 괴로워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나의 아버지처럼 이곳을 유배지로 삼았다. 그리고 이곳에서 홀로 적을 맞았다.

큰아버지는 팔미도 등대가 인민군 손에 넘어간다는 게 전략적으로 어떤 치명타가 될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이번만큼은 자신이 지켜내야 할 것을 지키고 싶었고, 위기를 보면 목숨을 버린다는 견위수명(見危授命)을 실천하고 싶어 했다. 그것이 허수아비처럼 살아가는 자신에 대한 마지막이자 진정한 보상이었고, 동생들에 대한 도리였다. 무엇보다 그는 부끄러운 게 지긋지긋했다. 나는 큰아버지의 뇌리에 마지막으로 떠돌던 생각의 잔상을 시신에서 읽었다. 시신은 입을 꼭 다물고 있었다. 큰아버지는 콧병을 앓아 코로 숨을 쉬지 못하셔서 늘 입을 반쯤 헤벌려야 했다. 그 경박해 보이는 표정도 그는 수치스러웠을 것이다. 큰아버지의 꼭 다문 입은 비밀을 의미했다. 나는 손가락으로 입술을 벌려 입 안을 헤집었다. 시신과 함께 차가워진 금속이 손가락 끝에 잡혔다.

“10초 남았다!”

대장은 마지막 남은 성냥개비로 대원을 비춰주며 다급하게 다그쳤다. 대원은 마침내 전선을 연결했고, 미군 중 한 명이 등명기의 전원을 켰다.

“00시!”

대장의 목소리를 등명기가 알아들었는지 복종하듯 굵은 섬광을 전방을 향해 쏘았다. 빛줄기는 말 그대로 빛의 속도로 어둠을 베고 찌르며 사나운 창처럼 앞으로 뻗어나갔다. 어둠을 몰아내는 한 줄기 백색광이 고립무원의 팔미도 해역을 장악했다.

미군은 환호하며 회전식 등명기를 수동으로 돌렸다. 거칠 것 없이 뻗어나간 빛은 소리 없이 저만치 날아갔다. 그것의 광달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빛이 도달한 그 끝에 희망이란 게 있는지,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토록 이 등댓불을 켜려고 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다만 등명기가 회전하는 톱니바퀴 소리를 들으며 그 옛날 아버지가 저기 서서 하시던 일을 떠올렸다.

“당신 덕분에요. 정말 큰일 하셨소.”

환한 등명기 덕에 등롱 안은 밝아졌다. 대장의 표정은 등댓불보다 더 밝았다. 등롱이 밝아지자 큰아버지의 어둡던 얼굴도 환해졌다. 그는 다시 살아난 것 같았다. 그는 굴욕과 오욕과 비겁함을 반복하던 삶에 기습적으로 반격했고, 그만의 방식으로 승리했다.

“그런데 어떻게 인민군 입 속에 부품이 있는 걸 아셨소?”

“저분은 인민군이 아닙니다. 제 큰아버지이자 아버지입니다. 이 등대의 등대지기이시기도 하고요.”

“아, 그럼 저분이!”

대장도 이제 깨달은 것 같았다. 나의 큰아버지가 비록 팔미도를 지킬 수는 없어도, 불빛만큼은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을. 인민군은 불을 켜지 못해 팔미도를 버리고 떠났다는 것을.

저만치 인천 앞바다에서, 전쟁을 뒤집을 새로운 전투가 시작되고 있었다. 수백

적의 전함들이 함포를 뿜으며 노도처럼 인천항을 덮어버리고 있었다. 붉은 꽃비처럼 조명탄이 하늘에서 흘러내렸다. 귀를 찢는 폭음이 잠든 용기를 흔들어 깨웠다. 허공에 작렬하는 화약이 밤하늘에 거대한 흔적을 남겼다. 반격의 깃발처럼, 그것은 육박하는 함정들의 머리 위에서 일렁거렸다.





제4회 등대문학상

최우수상



조 수 일

광주광역시

프로필

전남 나주 출생

전남대 문헌정보학과 졸업

2002년 제3회 기독교문예 신춘문예

시부문 가작

2010년 제10회 동서문학

시부문 은상

2015년 제1회 송수권문학상 장려(신인상)

2016년 제4회 항공문학상

시부문 최우수상

당선소감

뒤돌아보니 구름지고 굴곡진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25년간 제 삶의 울타리이셨던 아버님이 홀연히 떠난 해이기도 했고 씩씩하게 살라고 객지에 떨궈 놓은 아들이 입퇴원을 반복하던 힘든 해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황량하고 쓸쓸한 빈터이었을 제 들녘에 등대문학상은 아름답고 따스한 빛줄기임에는 분명합니다.

글에 기대어 사는 이 땅의 들풀 같은 문인들에게 비옥한 터를 허락해 주신 등대문학상 관계자님들께도 감사합니다.

어눌한 제 시에 날개를 달아주신 심사위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시는 제게 기도였습니다. 누가 엿들을까 봐 웅얼웅얼 울음만 눈물만....

기억을 들춰내 혼자 울면서 썼던 적도 있고 학생들이 다 돌아간 오후, 빈 도서관에 앉아 늑처럼 잠겨있던 시간들이 어쩌면 제게 치유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홀로 늑고 일어나는 엄마, 늘 버팀목이 되어주는 남편, 이쁜 솔, 윤, 웅 내 참새들...

더디고 느린 저와 함께 호흡해준 광주시의 종성샘, 은영샘, 형미샘, 하늘우물의 문정샘, 전남대 문창의 정다운 이름들, 그리고 제 안과 밖의 그리운 광화로운 지평 같은 이름들....

제 살같은 따스한 이름들과 쇠하지 않는 등대 불빛처럼 예쁘게 살겠습니다. 끝으로, 절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염장이 아버지

제4회 등대문학상 최우수상 / 시·시조

조 수 일



갯가의 지친 오후가 바람에 쓰러진 후 아버지는 이름 있는 모든 지느러미를 소
금에 절여 냈다

아가미는 아가미대로

창란은 창란대로

부위별로 도려낸 자리에

왕소금을 한 움큼씩 되박아

고통스러움을 향기로 추출하고 있다

상처 자리에 환한 영혼을 켜는 염장이

오늘은 풀치 떼가 가득하다

은빛 꼬리지느러미의 소란스런 비린내를

건넌방에서도 감지할 수 있다

날개를 잃어 캄캄하던 내 안이 분주하다

푸른 곱피자락이 너울거리는 홀이불을 배에 감고 문가로 기어간다

뺏뺏한 비닐 앞치마를 두른 채

작업을 서두르는 아버지 어깨에 잔잔한 파동이 인다

지느러미의 촉수 하나 다치지 않으려는

손놀림에 안도한 풀치 떼가

나 몰래 지난 세월을 뺏어낸다

아버지의 지문 안으로 녹아든 소금물
삶의 경계를 허물며 스러지고

풀, 풀, 풀잎처럼 말라 가벼워진 육신으로
하늘을 날게 될 풀치 때
어둠만 드나들던 내 겨드랑이에
어느새 푸른 지느러미가 돋는다

기장항 입구,
한 많은 목숨처럼 바람에게 세월을 주고
소금으로 웃음을 절여내는 아버지
그물망처럼 촘촘히 시간을 엮고 있다



제4회 등대문학상

최우수상



김 미 향

대구광역시

프로필

2013년 대구일보 전국수필대전 동상
2013년 제1회 등대문학상 가작
2014년 제12회 동서문학상 은상
2014년 대구일보 전국수필대전 입선
2015년 제1회 포항바다문학제 우수
2016년 호국보훈문예작품공모전 최우수
2016년 제4회 등대문학상 최우수

대구수필문학회 수필문예회
대구수필과비평작가회의 회원

당선소감

들숨과 날숨을 몇 번이나 되풀이 했는지 모릅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니 그제야 바래고 바래 더 우려낼 게 없는 희멀건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탱시켜준 어머니. 지난 세월을 써내려가자면 책 몇 권으로도 부족한 어머니. 나날이 세월을 먹어가는 어머니와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늘 응원해주는 형제자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함께 공부하며 글을 통해 교감을 이루어내는 글벗들의 격려도 잊지 않겠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주신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만하지 않고 차분히 다시 연필을 잡겠습니다.

천초목

제4회 등대문학상 최우수상 / 수필

김 미 향



저물녘 노점의 풍경은 애상에 젖게 한다. 두 볼이 오므라진 노인의 얼굴보다는 팔고 있는 천초목에 더 시선이 간다. 떨어를 외쳐도 사람들은 발길을 돌리고 노인은 되뚱하니 앉아 시간만 보낸다. 도시의 소음 대신 파도 소리만이 간간이 다가왔다 사라진다. 어머니가 떠오른다. 어머니의 냄새가, 바다의 냄새가 질펀하게 배어 있는 천초목이 오늘따라 그리워진다.

파도가 거세게 이는 날이면 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바다로 나갔다. 달이 없는 한밤에도 바닷가를 서성거리는 사람은 어머니뿐이었다. 날 선 파도가 옆구리를 후려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천초 하나라도 더 즐기 위해 사나운 물결을 헤치며 억척을 떠는 모습은 천생 바다 여자였다. 천초는 바닷속 모래나 바위에 붙어살아 해녀가 캐지만, 물속 세찬 해류에 뿌리째 뽑히면 물으로 떠밀려 나온다. 이때를 놓칠세라 제철인 오뉴월만 되면 마을 사람들은 매 같은 눈으로 바다를 노려보곤 한다.

시골집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땡볕에 얼마나 있었는지 잇도리가 축축하다. 자리를 깔고 앉아 마른 천초에 들러붙은 티끌을 떼어내느라 두어 번 불러도 대답이 없다. 한 번 더 부르자 그제야 고개를 든다. “연락도 없이 웬일이요? 배 고프제. 얼른 만들어 줄께.” 하시며 더 바빠 움직인다. 어머니는 자식들이 언제나 배고픈 줄 안다. 먹고 돌아서는데도 금방 또 다른 것을 내어 놓는다. 없던 시절에 제대로 먹이지 못했던 그 마음 때문인지 먹으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둘둘 감은 흰 천에 핏물이 배어난 어머니의 발이 눈에 들어온다. 분명 바닷가에서 생긴 상처이리라. 신발이라도 신고 다니면 좋으련만 찢물에 절은 신은 오래가지 못한다며 맨발로 나선다. 지난날, 천초를 줍다가 유리에 발바닥을 베인 소녀가 절룩거리며 나타난다.

바닷가에 널브러져 있는 해초들이 어린 눈엔 다 천초로 보였다. 죄다 그러모아 놓고 보니 해조류보다 검불이 더 많았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앉아 쓸 만한 것을 골라냈다. 곁에서 여물지 않은 손으로 천초를 조작거렸다. 조몰락조몰락하니 어머니는 저리 가서 놀라는 턱짓을 보냈다.

모래사장에 신발을 벗어둔 채 누비고 다녔다. 작은 눈망울은 또다시 천초를 찾느라 반짝거렸다. 순간 그 자리에 멈춰 서고 말았다. 뭔가가 내 발바닥을 찌르는 것 같았다. 붉은 피가 보였다. 다리를 절뚝거리며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에 놀란 어머니는 얼른 바닷물에 발을 씻기고 머릿수건으로 상처를 감싼 뒤 꼭 눌러 주었다. 그 날 나는 오리걸음을 걸으며 어머니 옆을 떠나지 않았다.

어느 틈에 벌써 어머니가 천초묵을 만들고 있다. 천초는 뜨거운 불에서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 바다를 머금었던 제 몸을 스르르 내어준다. 실컷 먹었으니 이제는 줍지도 만들지도 말라는 내 말을 귀담아듣지 않는다. “놀면 뭐하노, 너희들이 좀 잘 먹어야 말이지.” 하시며 묵묵히 불 앞을 지킨다.

천초묵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지 바닷가에서 태어나고 자란 나는 잘 알고 있다. 피약별에 넣어 바래기를 여러 날, 비를 맞히고 땀별에 말리고 또 비를 맞히고 불별에 말리기를 거듭해야 검붉은 천초가 허영게 변한다. 이런 과정을 거친 천초를 물과 함께 삶으면 풀어질 대로 풀어져 마침내 끈끈한 액체가 된다. 이것을 체에 내려 굳힌 게 바로 투명한 천초묵이다.

푹 고아진 그것을 어머니가 체에 거른다. 단단해지라고 선풍기까지 돌린다. 한 번 우려낸 것에 처음보다 적은 양의 물을 붓고 다시 끓인다. 없던 힘도 생기는 것일까. 주걱으로 휘휘 져는 팔뚝의 근육이 살아 꿈틀거린다. 고아지면 체에 내리고 또 고고 그렇게 세 번을 우려내니 더는 어찌할 수 없을 만큼 멸절기만 하다. 어머니가 천초를 우려내듯 자식도 어머니를 한없이 우려먹으며 자랐을 것이다. 이제

더 우려낼 것도 없는 희멀건 어머니를 나는 하염없이 바라본다.

묵이 제법 탄력을 띤다. 어머니는 소금으로 밀간한 고소한 콩물에 얇게 채 썬 묵을 말아 내게 건넨다. 시원한 한 그릇에 담긴 동해, 어린 시절 허기를 달래주던 그 맛이 되살아난다. 한때 어머니는 이렇게 만든 묵을 오일장에 내놓기도 했다. 아무리 먹음직스럽게 만들어 놓아도 잘 팔리지 않았다. 그래도 어머니는 만들었다. 하루 치의 묵이 얼마나 팔리고 남았는지는 시장에서 돌아오는 어머니의 낯빛으로 알 수 있었다. 결국 팔지 못한 것은 자식들에게 돌아왔다.

그 옛날 천초묵은 가난한 해병 사람들에게 든든한 한 끼가 되어 주었다. 천초로 묵을 해먹었고 그 힘으로 생활을 꾸려나갔다. 어쩌면 천초묵이 그들의 삶을 더 강인하게 만든 지도 모른다. 여리고 보드라운 그 묵에 설움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껴어 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모를 것이다.

어머니가 해지기 전에 길을 나서라며 묵 몇 덩이를 싸준다. 이젠 이 음식을 허기로 먹지 않으리라. 그리움으로 먹고 추억으로 먹으리라. 이유 없이 지칠 때, 그럴 때 천초묵을 꺼내 놓고 고향의 어머니를 떠올릴 것이다.

가지고 온 묵 덩이를 펼쳐놓는다. 매끄러운 표면은 바닷물처럼 찰랑거리고, 손을 갖다 대자 날개를 접었던 바닷새가 힘차게 날아오른다. 귀 기울이니 파도에 구르는 자갈 소리가 들리고, 한입 베어 무니 바닷물이 흘러나온다. 웅골진 바다를 통째로 품은 천초묵은 또 다른 동해였다.

노인은 여전히 찬거리를 사러 나온 여인들에게 눈길 주기 바쁘다. 어스름이 허무한 표정만큼이나 깊게 내려앉는다. 선뜻 한 모를 싣다. 저녁에 먹을 것도 아니다. 그것에서 나는 어머니를 불러오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귀가 잘 안 들린다면요 즈음 들어 부쩍 동문서답을 하는 어머니, 당신이 안 계시면 누구에게서 천초묵을 얻어먹을까. 갑자기 가슴속에서 거센 풍량이 휘몰아친다.

식탁 위에 올려놓고 형광등을 끈다. 어둠 속에서 바다가 숙성되는 시간이다. 베갯머리에 바다가 누워 있고 바닷물이 몸에 와 감긴다. 내일 아침엔 응축된 표면을 뚫고 동해의 붉은 해가 솟아오를지도 모를 일이다.

* 천초묵 : 우뚝가사리묵을 동해안 지방에서는 부르는 말.



해안선에 대하여

제4회 등대문학상 우수상 / 시·시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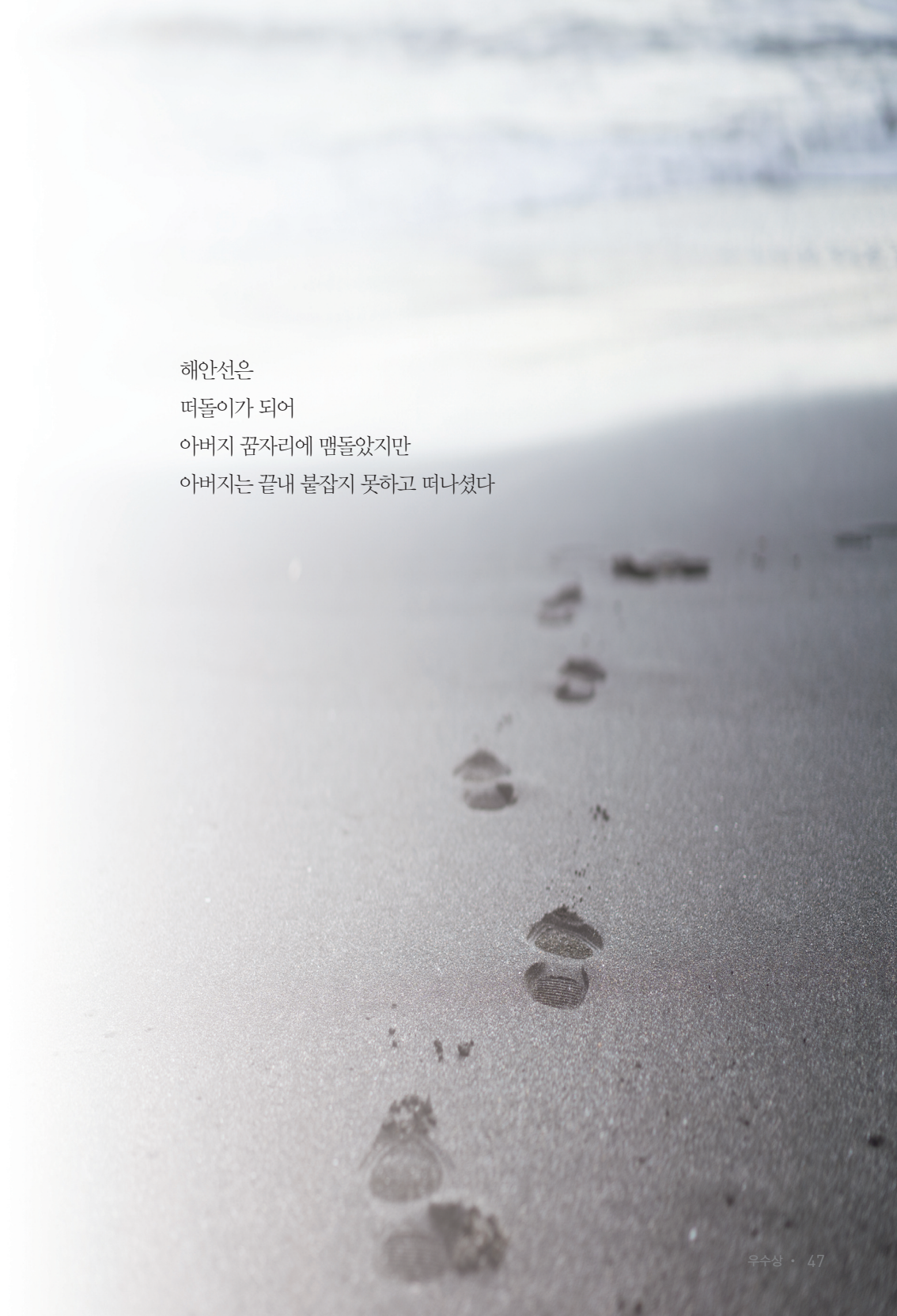
김 태 수(부산광역시)



해안선은
아버지가 마음먹은 대로
묶을 수 있고
풀 수 있고
당길 수 있는
줄이었다

해안선이 아니었다면
목선은 난바다로 떠내려갔을 것이고
주북어장은 파도에 형클어졌을 것이고
물고기는 끝없이 표류했을 것이고
미역은 널어 말릴 수 없었을 것이다

아버지는 그렇게
해안선이 든실한 줄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섬마을이 허물어지자
산의 발톱에도
바다의 이빨에도
끄떡없던 해안선은 그만 끊어져버렸고
아버지는 생업(生業)을 접고 말았다



해안선은
떠돌이가 되어
아버지 꿈자리에 맴돌았지만
아버지는 끝내 붙잡지 못하고 떠나셨다

서해에서

제4회 등대문학상 우수상 / 시·시조
진 서 윤(창원시)



비어있는 것들에게도 당도할 기슭이 있구나
한랭전선이 통과한 서쪽 바다
북서풍의 물살에 빈 형체들이 밀려온 방파제를 본다
텅 빈 깡통과 플라스틱 용기 안에
찰박거리는 물소리가 가득 들어있다
망망대해를 건너온 저 빈 여정들엔
모두 이국의 문자가 적혀있다
가벼운 방향으로 밀려온
혹은, 밀려간 어느 순정이
당신의 동쪽이었을까

시간은 둥둥 떠서 흘러오는 것일까
깊은 멍치의 물길에 밀려와
얕은 파도의 끝자락으로 쌓이는 해안
소리만 요란한 부유물이다
바다가 혼잣말을 쌓고 있다
멀미 앓고 사방으로 흩어져 있다

물 위에 무덤을 파는 이국의 문자들
익사체에 시작점 692바코드가 일렁인다
끊임없이 울렁울렁하며
서해의 모세혈관을 통제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다



노후선에서 살아남기

제4회 등대문학상 우수상 / 소설

김 종 찬(부산광역시)



아카시아호는 동지나해에 들어섰다. 파도가 두루마리처럼 와르르 굴러와 뱃머리를 번쩍 들어 행가래치고 달아나면 아카시아호는 홀쩍 허공으로 치솟았다가 철버덕 코방아를 찢으며 파국 아래로 처박혔다. 빈 배라 밸러스트 수를 채워도 선체는 배꼽이 드러나도록 덩그러니 높았다. 끝없이 밀려드는 파도의 등성이를 넘어설 때마다 곳곳에 녹이 슬어 검버섯이 거뭇거뭇한 아카시아호는 만신의 뼈마디가 뼈거덕거렸다.

“갑판장님, 저저 좀 보이소. 저렇게 큰 파이프가 저절로 쑥 들어갔다가 쑥 빠져나왔다가 하내에. 저래도 괜찮습니까?”

갑판원 영호였다. 영호는 이번에 한국에서 새로 승선했다. 갑판에서 깡깡작업을 하는 갑판장을 거들다가 길게 뻗은 해수 주관의 신축계수(伸縮繼受)가 들쭉날쭉 하는 것을 보고 하는 말이었다. 배를 처음 타는 영호는 총톤수 6만8천 톤의 거대한 아카시아호가 파도를 타고 넘을 때마다 널뛰기판처럼 몸통이 휘청거린다는 사실을 알고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가을 석류처럼 배구레가 짙 벌어지지나 않을까 겁이 났던 것이다.

“와? 배 동가리 날까 싶어서 겁나나? 배가 너무 길어서 안 그렇나. 대형선들은 어느 배나 다 늙으면 허리가 휘청거리거든.”

갑판장은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하던 일만 계속했다. 선원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다만 정도가 문제였다.

아카시아호는 한국에 기항하지 않는 부정기 원양화물선이었다. 이번에 중간검사를 받기 위해 모처럼 한국에 입항했는데 예상 외로 하선자가 많았다. 선장, 기관장을 비롯하여 아카시아호의 성능을 잘 아는 선원들은 연가가 아직 멀었는데도 자의로 하선했다. 회사에서는 되도록 한국에서 선원교대를 많이 시켜야 그만큼 교대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최소한의 키 멤버만 남겨놓고 대폭 물갈이를 했다.

이번에 새로 승선한 고병태 선장은 신아홉 살로 승선경력이 40년이나 되는 고참 선원이었다. 갑판원부터 시작해서 대형선 선장까지 올라온 입지적인 인물이었다. 해기면허 학원을 다니며 세 번이나 도전한 끝에 이번에 평생의 꿈이었던 1급 항해사 면허를 손에 쥐었다. 면허가 낮다 보니 지금까지는 대일선이나 동남아선 선장을 했다. 큰 배 경력이라고 해 봐야 핸디 사이즈 정도였다. 아카시아호와 같은 6만8천 톤급 대형선 경험은 전혀 없었다. 그렇지만 사람이 워낙 성실해서 회사의 신임을 얻었다. 그는 효성해운에서 잔뼈가 굵었다. 무려 15년 동안이나 장기근속을 했다. 회사에서 부르는 그의 별명은 큰 머슴이었다. 오래 전에 사장이 붙여준 영광스러운 훈장이었다. 효성해운에 오래 근무한 선원들은 큰 머슴이라고 하면 얼굴은 몰라도 별명은 다 알 정도였다. 하지만 그가 선장이 된 이후로 그를 따르는 선원은 별로 없었다. 큰 머슴이라는 별명에 대해서도 ‘지나 내나 가방끈이 짧으니 잔머리는 못 굴리고 손발이 아침해서 얻은 감투’라고 빈정댔다.

윤필구 해무이사가 아카시아호에 나가라고 했을 때 고병태 선장은 첫마디에 넘죽 “예, 나가겠습니다”할 수가 없었다.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대형선 경험이 없어서……”하고 겸양을 떨었다. 그러자 윤 이사는 이렇게 말을 잘랐다.

“엘엔지 선 같은 특수선이라면 몰라도 벌크선은 큰 배나 작은 배나 다 그제 그 거지요. 누구는 어디 처음부터 잘 알아서 대형선 탑니까? 배는 마누라나 마찬가지로 아납니까. 타고 보면 다 알게 되는 거지. 그 동안 1급 면허 따느라고 고생도 많이 했으니 대형선도 한번 타 봐야지요. 팔팔한 초사가 잘 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아카시아호가 해쳐 나가야 할 항로는 멀고도 험했다. 빈 배로 순다 해협을 통과하여 인도양을 지나서 남아프리카 더반까지 간다. 더반에서 석탄을 싣고

희망봉을 돌아서 프랑스 르아브르 항에 풀어줄 예정이었다. 고병태 선장 어깨 위에 지워진 무거운 짐이었다. 르아브르에서 석탄을 풀어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브라질 투바라오 항에서 철광석을 싣고 에스파냐 히혼 항을 왕복하는 피스톤 항로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효성해운 영업부의 계획일 뿐 닥쳐 봐야 알 일이었다.

이번에 중간검사를 받기 전까지 아카시아호는 일본 아사히 해운에서 운항했다. 호주 뉴캐슬이나 글래스톤 등지에서 석탄을 싣고 일본 도바다(畑田)의 신닛테츠 제철소에 하역했다. 아사히 해운의 용선계약이 끝나자 효성해운에서 직접 배를 운항을 하면서 항로가 머나먼 북대서양으로 바뀐 것이다.

예전에 해적소굴로 악명 높았던 순다 해협을 통과했다. 인도양에 들어서자 바람 방향이 수시로 바뀌고 파도도 더욱 거칠어졌다. 옆바람을 받아 현측에 파도가 후르치면 외판이 밀려 주갑판이 불룩하게 솟아올랐다. 밸러스트 탱크 내부의 늪골이 너무 삭아 힘이 없는 탓이었다. 앞바람을 받으며 파도의 등성을 타고 넘을 때마다 주갑판 해수 주관의 신축계수는 아코디언 주름상자같이 크게 오르내렸다. 벌어졌다 했다. 파도가 높을수록 선체의 휘청거림 현상도 더 심해진다는 증거였다.

선원들의 머릿속에 어두운 구름장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영호가 미친놈 시늉을 한 것은 그때부터였다. 낮에는 멀쩡하던 놈이 밤만 되면 또라이짓을 했다. 선원들이 카드놀이를 하는 휴게실에 나타나 히죽히죽 웃으며 아무나 붙잡고 느물거렸다. 입가에 비눗방울 같은 게거품을 물고 뭐라고 알아들을 수 없는 혼잣소리로 중얼중얼 시부렁거렸다. 눈알을 산만하게 굴리다가 덤석 남의 담배를 집어 달아나기도 했다. 한밤중에 하얀 내의바람으로 선수갑판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바람에 브리지 당직자들이 유령이 나타났다고 법석을 떨기도 했다.

선원들은 녀석이 일부러 미친 척 하는지 진짜 살짝 맛이 갔는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매일 영호를 데리고 주간 작업을 하는 갑판장이 이렇게 슬쩍 속을 떠 보았다.

“영호야, 요새 우리 배에 밤만 되면 팬티만 걸치고 갑판을 돌아다니는 미친놈이 한 놈 있다고 소문이 났던데, 배에서 미친놈은 어떻게 하는 줄 아나?”

영호는 대답을 안 하고 갑판장의 얼굴만 뻔히 바라보았다.

“바다에 뛰어들어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수갑을 채워서 기둥에 붙들어 매 놓는단다. 미친놈이 제 발로 물에 빠져 죽었다 해도 함께 근무했던 선원들이 나중에 귀국하면 해경에서 오라, 가라 해서 골치가 아프거든.”

그 뒤로 영호는 밤중에 갑판에는 나가지 않았다.

저녁 식사 때였다. 영호가 밥그릇을 들고 태연하게 선장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었다.

“야, 인마. 여긴 사장님이 와도 안 앉는 자리야. 당장 부원식당으로 가!”

초사가 당장 한 대 쥐어박을 듯이 호통을 쳤다. 주방에서 조리수가 달려와 영호를 끌어냈다. 영호는 끌려 나가면서도 뒤돌아보며 초사한테 악다구니를 했다.

“아이 새끼야! 니가 뭘테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나? 니가 이 식당 주인인가?”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었다. 갑판장이 영호 방에 찾아가서 살짝 달래보았다.

“영호야, 니 요새 미친 지랄 잘도 하네. 비행기 샷 안 물고 집에 갈라꼬 미친 척하는 거 다 알고 있다. 와 집에 갈라 카노? 새벽부터 화장실 소제하고 밥 당번 하는 일이 고되나? 안 그라모 배 가라앉을까 싶어서 겁이 나나? 선장한테 잘 말해서 집에 보내 주꺼마. 바른대로 말 해 보라!”

‘눈치 챘구나!’ 싶었는지 영호가 정색을 하고 말했다.

“갑판장님, 이 배에 오래 있다가는 진짜로 미치겠습니다. 파도를 타고 넘을 때 마다 배가 휘청거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밤에도 잠이 안와예. 배가 반동가리 나서 가라앉는 꿈도 꾸고예. 더반에서 꼭 집에 가게 해 주이소!”

마다가스카르 섬을 지났다. 뱃머리를 더반으로 향하자 파도가 더욱 기승을 부렸다. 세찬 모잠비크 해류가 아카시아호의 앙상한 옆구리를 사정없이 후려쳤다. 갑판장의 눈치를 살피며 며칠 얌전하던 영호가 집에 보내준다는 말이 없자 또 발작을 했다. 한밤중에 살금살금 거주실 통로를 기어 다니며 곤히 잠든 선원들의 침

실 앞에서 찌익! 찌찌 찌익! 쥐새끼 소리를 냈다. 잠이 깬 선원들은 당장 녀석을 한 대 패주고 싶었다. 하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 영호 자형 때문이었다. 부산에서 동양마린이라는 간판을 걸고 선식업을 하는 영호 자형은 효성해운 임직원들과도 잘 아는 사이였다. 호텔 나이트클럽도 경영하며 조폭들과도 친분이 있다고 소문이 난 사람이었다.

아침 식사 시간이었다. 간밤에 잠을 설친 선원들의 입이 만발이나 튀어나왔다.

“저런 쥐새끼 같은 놈은 배에 있어 봐야 분위기만 흐리고 하나도 도움이 안 돼. 하루빨리 하선 시켜야 돼.” 영호가 바라던 대로였다.

초사와 갑판장이 고병태 선장을 찾아갔다. 초사가 말했다.

“선장님, 저런 아이는 더 데리고 있어 봐야 사고만칩니다. 신경과민으로 정신 이상 증세가 있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보고하고 빨리 하선시키는 게 낫겠습니다.”

고병태 선장은 두 사람이 하자는 대로 했다.

아카시아호는 총톤수 6만8천 톤급으로 원래 광유선(鑛油船)이었다. 일본 아사히 해운에서 운항하던 선령 7년 된 배를 3년 전에 효성해운에서 매입했다. 아사히 해운에서 3년 동안 배를 용선(傭船)해 주는 조건으로, 신조 시에는 원유도 수송했으나 지금은 장비가 낡아 원유 수송은 못하고 석탄만 실어 날랐다.

이제 아사히 해운의 용선 계약이 끝났다. 효성해운에서 배를 인수할 때 선박의 국적이 바뀌면서 선급도 바뀌었다. 배를 인수한 후 지금까지 효성해운에서는 배를 움직이는데 꼭 필요한 기관정비에만 투자를 했지 선체정비에는 돈 한 톨 쓰지 않았다. 밸리스트 탱크 격벽이 부식되어 매 항차 하역작업을 마치고 해수를 실으면 구멍이 나서 화물창으로 물이 새는 곳이 수십 군데나 되었다. 그러면 공선 항해 중에 선원들이 땀질을 했다. 얼마나 땀질을 많이 했는지 본바탕보다 덧댄 철판 조각이 더 많을 정도였다. 마치 누덕누덕 기운 스님의 분소의(糞掃衣) 같았다. 제일 부식이 심한 곳은 밸리스트 탱크 내부 구조물이었다. 늑골, 종통재, 빔 등이 삭을 대로 삭아서 밟으면 내려앉을 정도였다. 수리를 하자면 부분적으로는 안 되고 전체

를 교환해야만 했다. 효성해운에서 배를 인수한 후 3년 동안 방치한 탓이었다. 이번 중간검사 때도 손을 못 대고 말았다. 암 환자를 수술하려고 개복을 했다가 전이가 너무 심해 도로 덮고 만 꼴이었다.

전임 선장이 있을 때였다. 선장이 중간검사 준비를 하면서 밸러스트 탱크 내부 부식 상태를 걱정하자 공무감독은 이렇게 얼버무렸다.

“캡틴, 거기에 손을 댔다 하면 배 값보다 수리비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움직일 수 있는 배를 폐선 시킬 수도 없고, 이런 배 캡틴은 인명 사고 없이 선체만 수장시키는 사람이 가장 유능한 캡틴입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공로표창장과 함께 금일봉을 줄지도 모릅니다. 허허허.”

더반 항에 입항했다. 석탄 11만5천 톤을 실었다. 연료유도 보충하고 부식도 싣고 물도 실었다. 영호는 정신이상자 취급을 받으며 강제하선 당했다. 대리점의 손에 이끌려 갯웨이를 내려가면서도 진짜 미친놈처럼 싱글벙글했다. 배를 타기 전에 자형이 했던 말을 생각하니 저절로 웃음이 나왔던 것이다.

—배에 가서도 집에서처럼 말썽부리다가 쫓겨 내리게 되면 송환비용은 전부 나가 물어야 된다. 그러니 집에 오고 싶으면 미친 척해라. 배에서 미친놈은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연기를 잘 해야 된다. 마른오징어 껍질에 가루비누를 조금 싸가지고 꼭꼭 씹으면 입에서 북적북적 게거품이 난다. 눈알을 까뒤집고 아무한테나 덤벼들어도 된다. 그렇게 미친 짓을 해서 귀국만 해라. 그러면 내가 잘 아는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주마. 며칠만 간혀 있으면 된다.

영호는 직업선원이 되기 위해 배를 탄 게 아니었다. 외국 구경이 하고 싶어서 자형을 졸라서 배를 탔던 것이다.

더반 항을 출항하자마자 바다는 점점 더 거칠어졌다. 아프리카 남단은 인도양에서 내려오는 모잠비크 해류와 남대서양에서 올라오는 벵겔라 해류가 맞부딪친다. 그래서 일 년 내내 파도 잘 날이 없다.

아카시아호는 신조 시 자동화 시스템으로 만들어 야간에는 기관실에 당직을

서지 않는 MO(Man zero) 선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주야간 구별 없이 기관사와 오일러 두 명이 당직근무를 서고 있다. 크고 작은 해수 파이프가 부식이 심해 언제 물벼락이 쏟아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돌아가는 발전기에 해수가 쏟아지더라도 하면 배는 당장 동력을 잃고 ‘죽은 배’가 되고 만다. 지금도 구멍이 나서 흰 자전거 튜브와 마린로프를 감아 응급처치를 해 놓은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아카시아호는 이처럼 선내 곳곳에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아프리카 남단에서도 아굴라스 곶이 제일 파도가 거칠다. 허연 이빨을 드러내고 포효하는 물결은 사냥감을 뒤쫓는 굶주린 사자 떼였고 아카시아호는 한 마리 가련한 물소였다. 희망봉을 돌아서 침로를 북서쪽으로 변경할 때까지 선원들은 불안해서 한시도 맘을 놓을 수 없었다. 머리맡에 라이프재킷을 챙겨 놓고 낯밤을 새웠다. 말수가 줄어들고 피로와 불면으로 눈에 핏발이 섰다. 넘어도, 넘어도 끝없이 덩벼드는 지긋지긋한 파도에 시달리며 가까스로 희망봉을 통과했다.

고병태 선장은 배는 오래 탔지만 이 항로는 처음이었다. 선원들이 불안해서 밤잠을 제대로 못 이룬다는 사실은 잘 알지만 선장이라고 해서 뽀족한 대책이 없었다. 출항 환송연에서 윤필구 해무이사가 했던 말이 불쑥 떠올랐다.

-지금까지는 별 문제없이 운항했습니다만 배가 좀 낡았습니다. 날씨가 나빠 황천항해를 하면 선원들의 불평이 많을 겁니다. 선원들을 잘 다독겨주세요.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야 무슨 뜻인지 감이 잡혔다.

고병태 선장이 동남아 원목선을 탈 때는 배가 하도 낡아 선체 외판에 구멍이 나도 눈도 까딱하지 않았다. 물새는 곳에 나무 ‘뿌라그’를 박고 ‘와꾸’를 짜서 ‘돌가루’를 비벼 넣고 담을 쌓으면 그만이었다. 그런 통배를 타고 다니면서도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다. 인명은 재천(人命在天)이요 선명은 재해(船命在海)라고 생각했다. 철한 한 장 믿고 사는 뱃놈이 어디 헌 배, 새 배 골라가며 탈 수 있나. 아무 배나 가라면 가야지. 배고프던 그 시절에는 배 타기가 그만큼 힘들었다.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선장이 말단 선원한테도 함부로 말했다간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르는 세상이 되었다.

고병태 선장은 항해 중에 배가 휘청거리는 새깅, 호깅 현상(Sagging effect)을 이 배에 와서 처음 목격했다. 원목선에서는 갑판 상에 적재한 원목에만 신경을 썼지 선체의 휘청거림 같은 것은 걱정도 하지 않았다. 아카시아호는 선장 260m, 선평 40m, 화물창 깊이가 20m나 된다. 이렇게 큰 배가 파도를 타고 넘을 때마다 심하게 휘청거린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별로 좋은 기분은 아니었다. 하지만 10억짜리 생명보험에 들고 나온 것은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형선에 나간다니까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아내였다. 아카시아호는 대형선 수당이 붙어 월급이 예전보다 훨씬 많았다. 그 말을 듣자마자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

“잘 됐네요. 내일 모레가 환갑이니 생명보험이나 하나 들어 놓고 나가세요. 보험은 돈 벌고 있을 때 들어놓아야지 나이 많아 돈 못 벌면 부담이 돼서 들지도 못해요.”

-여자들이란 나이 들수록 남편보다 돈을 더 믿는구나!

섬뜩한 생각도 들었지만 타박할 수는 없었다. 다 자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었다. 고병태 선장은 자식들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뒷바라지를 해주고 싶었다.

기니 만, 아프리카 엉덩이가 툭 튀어나온 곡물 해협을 바라보며 변침을 했다. 적도가 가까워질수록 기온은 점점 높아졌지만 파도는 차츰 잔잔해졌다. 바다가 잔잔해도 선수갑판에서 삐거덕거리는 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아무래도 아굴라스 곶을 지날 때 크게 골병이 든 모양이었다. 그 소리는 아카시아호가 더 이상 달릴 수 없다고 끔끔 앓는 신음 같았다. 적도를 통과하고 곡물해안에 접어들었다. 부근에는 큰 항구들이 연이어 있다. 프리타운, 코나크리, 비사우, 반줄, 다카르.

-여기서 그만 쇠진한 말처럼 앞다리를 꿇고 펍 엎어지면 당장 구조선이 나올 텐데!

등댓불이 섬멸하는 연안 항해를 하면서 아카시아호 선원들은 너나없이 이런 간절한 염원을 했다. 그런데 염력이 통한 것일까? 선수갑판에서 삐거덕거리는 소리는 하루가 다르게 커졌다. “삐익, 삐익, 삐거덕…….” 분명히 삐와 삐가 맞부딪치는 소리였다. 점점 소리가 커져서 눈살이 찌푸려지도록 귀에 거슬렸다. 메마른 금

속성 마찰음은 선체의 요동에 따라 규칙적으로 들렸다. 어딘가 접합부분에 금이 가서 균열이 확대되는 게 분명했다.

갑판장 최정길은 하루에도 몇 번씩 선수갑판에 나가 순찰을 돌면서 이제나저제나 하고 기다렸다. 신음은 컸지만 선원들의 염원처럼 선체가 쉽게 찢어지지는 않았다.

북회귀선을 지나자 해면에는 백파가 훑날리기 시작했다. 바람도 쌀쌀해졌다.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선원들은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초조해졌다. 밤에도 침대에 눕지 못하고 작업복 차림으로 소파에서 새우잠을 잤다. 언제라도 비상사태가 닥치면 탈출할 준비를 하고 라이프재킷은 물론이고 귀중품까지 미리 머리맡에 챙겨놓았다.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져서 파도의 충격에 쿵! 하는 작은 진동만 느껴도 잠이 깨어 발딱 일어났다.

겨울철의 비스케이 만 날씨는 험난하기 짝이 없다. 비스케이 만에서 조난을 당한다면 바로 옆에 구조선이 있다고 해도 살아날 가망은 없다. 천사가 엮어준다면 또 모를까. 라이프재킷을 입고 바다에 탈출했다고 해도 바닷물이 차가워서 10분도 견디지 못하고 심장마비를 일으키고 말 것이다. 죽음의 그림자는 분명히 다가오고 있었다. 설마 하고 운에 맡기고 있다가 기회를 놓치면 결과는 뻔하다. 유령이 되어 서로 싸우기밖에 더하겠는가? 선원들끼리 모여 앉았다 하면 걱정이 태산이었다.

“이 상태로 비스케이 만을 통과한다면 그것은 기적이다. 눈앞에 죽음의 계곡이 놓여 있는 줄 알면서 운명에 맡기고 지나간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다. 요행히 이번 항차를 마친다고 해도 다음 항차는 또 어떻게 견딘단 말인가?”

조타수 강차수였다. 그는 월남참전용사였다.

“죽는 사람만 억울하지요. 마누라야 유족보상금 받아서 땡땡거리고 잘 살겠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갑판원 하춘조가 풀죽은 소리로 말했다.

바다에서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 선원들은 선장의 표정부터 먼저 살핀다. 고병태 선장이 아무런 말이 없자 위기감을 느낀 선원들은 선장을 원망했다.

“배에 액운이 닳치려면 쥐가 먼저 도망을 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쥐보다 못한 신세다. 영호란 놈이 오죽 겁이 났으면 쥐새끼 흉내를 냈을까? 젊고 유능한 선장은 아무도 이런 똥배 탈 사람이 없으니까 말 잘 듣는 큰 머슴을 골라서 고려장 시키라고 멀리 보냈는데…… 저렇게 꼴 먹은 병어리처럼 말이 없으니 살 길은 우리가 찾아야지.”

효성해운 선원노조 아카시아호 분회장인 조기수 김병운이 노골적으로 털어놓았다. 일부러 선장 귀에 들어가라고 하는 소리였다.

초사 박수경은 선원들의 동요와 어수선했던 분위기를 선장한테 보고했다. 선장의 지시로 당직자를 제외한 전 선원이 선원식당에 모였다. 먼저 고병태 선장이 입을 열었다.

“여러분들의 불안한 마음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배가 좀 낡았다고 해도 정상적인 항해를 하고 있는 지금 상태로는 회사에 뭐라고 요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건의 사항이나 요구사항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이 모임은 토론의 자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어요.”

잠시 동안 서로 눈치를 살피며 먼저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다. 조기수 김병운이 일어났다. 명색이 노조 분회장인 그는 가만히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없었다.

“옛날부터 똥배가 침몰하면 선주는 화장실에 가서 만세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 배도 진작 용광로에 들어갔어야 할 배입니다. 이런 노후선을 험악한 원양항로에 보낼 때는 회사에서 은근히 바라는 무엇이 있었겠지요. 그러니 우리도 한 마음으로 툭툭 뭉쳐서 조난당하기 전에 살 길을 찾아야지요. 몇 년 전에 모 회사 배 한 척이 타이완 해협에서 기관실에 파공이 생겨 침수되었습니다. 그때 선원들은 부상자도 한 명 없이 다 구조되고 배만 침몰했습니다. 가까운 가오슝 항까지 충분히 배를 몰고 갈 수 있었는데도 조난신호를 보내고 탈출했던 거지요.”

분회장의 말이 끝났다. 아카시아호가 조난을 당하기 전에 ‘고려장’시키자는 소리였다. 모두 선장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고병태 선장이 약간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다.

“무슨 말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선장이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선장은

선주 대리인이고 배가 침몰하면 모든 책임은 선장한테 있습니다. 지금은 만장일치로 비밀을 지키기로 맹세한다고 해도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입니다. 들통이 나면 회사에서는 선박보험 보상도 못 받고 선장은 해난심판정에 서야 됩니다. 그러니 정 불안해서 이 배를 못 타겠다는 사람은 하선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그리고 내가 노후선 승선 경험이 많아서 하는 소리인데, 사람도 잔병치레 많이 하는 사람이 오래 살듯이 배도 노후선이라고 해서 금방 가라앉지는 않습니다.”

토론회는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나고 선장에 대한 원성만 더 높았다. 조난을 두려워하는 선원들에게 자기 목숨 자기가 알아서 살길을 찾으라니 원망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나이 많은 선장이야 살 만큼 살았으니 억울할 것도 없지만 젊은 우리들이야 억울해서 어떻게 죽어. 아직 장가도 못 갔는데.”

스물여섯 살 기관원 박춘태였다.

“죽고 사는 것도 맛을 봐야 아냐? 한번 죽으면 끝장인데.”

조타수 강차수가 거들었다. 그는 월남전에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했다.

갑판장 최정길은 혼자 속으로 생각했다.

-입으로만 천번만번 떠들어 봐야 그 소리가 그 소리다. 아카시아호를 고려장시킬 비밀결사대가 있어야 한다!

그날 밤 갑판장 최정길과 노조 분회장 김병운이 앞장서서 위기탈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엔 조사 박수경을 추대했고 위원으로 1기사 오진무와 조타수 강차수가 영입되었다. 다섯 명은 사실상 아카시아호의 키 멤버들이었고 모두 위기탈출 작전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다. 올해 서른세 살인 조사 박수경은 연부 역강한 젊은이였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해결하는 수완도 좋고 친화력도 좋았다. 아카시아호 선원들은 누구나 박수경 초사를 신임하고 잘 따랐다. 1등 기관사 오진무는 박수경과 대학 동기생으로 절친한 사이였다.

위기탈출 대책위원 다섯 명이 비밀리에 모여 앉았다. 초사가 위기탈출 작전에

대해서 브리핑했다. 생존기술 매뉴얼인 『Survival at sea』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방법이였다.

“희망봉을 통과한 뒤로 선수갑판 어딘가에 균열이 생겨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소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철판은 한번 금이 가기 시작하면 계속 번집니다. 그래서 선수와 선미 밸러스트 탱크에 해수를 삼분지이쯤 채우자는 겁니다. 밖에서는 파도가 후려치고 탱크 내부에서는 해수가 격렬하게 요동치면 균열 개소는 곧 찢어지고 말겠죠. 널판 양 끝에다가 무거운 빨랫줄을 얹어 놓은 셈이니 파도를 넘어설 때마다 선체를 부러뜨리는 절단력은 더욱 커지고요. 안팎에서 두들겨대면 무슨 수가 나고 말겠죠. 비스케이 만에 올라가기 전에 결판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새벽 1기사 당직 시간에 채웁시다. 불확실한 도박이지만 균열 개소는 찢어지고 말 것입니다. 달리 어쩔 수도 없고요. 선장은 눈치를 채도 모르는 척할 겁니다. 이런 일에 관여할 수 없으니까요. 만약 비스케이 만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배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채운 해수는 배출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 다음 일은 그때 가서 다시 의논합니다.”

이튿날 새벽 당직에 선수 선미 밸러스트 탱크에 해수를 채웠다. 탱크 안에서 요동치는 물소리는 돌격대의 함성보다 요란했지만 선체는 그리 쉽게 찢어지지 않았다. 이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찢어질 것이다’라고 믿고 기도할 뿐이었다. 하루, 이틀, 시간은 초조하게 흘렀다.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해상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그날 새벽 해상상태는 보퍼트 풍력계급 5. 흔들바람이 불고 있었다. 파도가 흰 거품을 물고 밀려와 선수에 부딪치면 물보라가 하늘 높이 치솟았다. 그럴 때마다 아카시아호는 딸꾹질하듯 멈칫 하고는 덜컹덜컹 몸서리를 쳤다. 머지않아 뭔가 일어날 조짐이 분명했다. 날이 새면 곧 갑판장이 순찰을 돌 터였다.

뒤따라오던 3천 톤급 냉동화물선 한 척이 새하얀 물갈기를 세우며 기운차게 달려갔다.

-배는 역시 저렇게 싱싱하고 젊은 배를 타야 해. 그래야 고생도 덜하고 재미도

있지.

초사 박수경이 냉동화물선을 바라보며 잠시 이런 상념에 젖어 있을 때였다.

“깡!”하는 충격음과 함께 선체가 갑자기 선수로 고꾸라졌다.

“초사님, 선수가, 선수갑판이 뒤로 넘어졌습니다!”

당직 조타수 강차수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박수경은 두근거리는 가슴의 동계를 느끼며 선수를 바라보았다. 선수갑판이 뒤로 비스듬히 드러눕고 있었다. 선수 밸러스트 탱크와 갑판창고가 찢부라지면서 선수루가 떠밀린 것이다. 선체는 선수 방향으로 폭 기울었다. 날은 이미 흰히 밝은 상태였다. 비상경보를 울리기도 전에 깜짝 놀란 선원들이 눈을 비비고 달려 나왔다. 선수 쪽으로 배가 기울자 기관실에도 비상이 걸렸다. 맨 먼저 주기 유회유 섬프 탱크 저위 경보가 울렸다. 탱크 내의 유회유가 앞쪽으로 다 쏟렸기 때문이었다. 잇따라 비상경보가 이것저것 연달아 울어댔다. 올 것이 왔구나! 1기사 오진무는 사태를 짐작했다. 브리지 직통 전화기를 집어 들었다.

“브리지, 무슨 일이에요? 기관실에 난리 났어요.”

초사 박수경은 입술이 바짝바짝 타도록 기다리던 일이었지만 막상 눈앞에 현실이 되어 닥치고 보니 다리가 후들거리고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무엇보다 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 힘들었다. 1기사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자 빨리 주기를 정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수가 폭 기울어진 상태에서 계속 전속으로 항진하면 배는 곧 용궁으로 갈 것만 같았다. 송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1기사, 엔진 스톱!”

“초사, 무슨 일이야!”

고병태 선장이 허겁지겁 브리지에 들어서며 소리쳤다. 뒤편 통신장도 달려왔다.

“예, 파도를 맞고 선수갑판이 찢부라졌습니다.”

눈앞에 흰히 보이니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 현재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박수경은 마음이 조금했다. 침몰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예측

할 수 없었다. 우선 조난통신부터 보내고 퇴선 준비를 서둘러야 했다. 퇴선 기회를 놓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 잠시 머릿속을 정리한 박수경은 선장한테 퇴선을 건의했다.

“선장님, 현재 본선 위치 북위 35도 05분, 서경 10도 03분. 보시다시피 선수창고가 짜부라지면서 선수가 급격하게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예비부력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수 탱크 격벽이 더 찢어지면 배는 순식간에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빨리 퇴선 할 것을 건의합니다!”

“충원 퇴선 준비!”

고병태 선장은 즉시 퇴선준비 명령을 내렸다. 곧바로 초단파 통신기 송수화기를 들고 구조요청을 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

오래 기다릴 사이도 없이 응답이 왔다. 메이데이를 수신하고 아카시아호를 호출하는 선박이 한두 척이 아니었다. 지브롤터 해협 부근이라 선박의 왕래가 그만큼 많았다.

선원들은 퇴선위치에 집합했다. 인원보고를 하고 선수가 더 잠기기 전에 구명보트부터 내렸다. 손발이 척척 잘 맞았다. 좌우현 구명보트를 별 문제없이 다 내렸다. 해면에 착수한 상태에서 페인트로 현측에 매달았다. 줄사다리를 설치하고 비상통신기, 담요, 식수, 비상식량, 항해일지 등 지참물을 구명보트에 실었다. 파도가 일렁거렸지만 위험할 정도는 아니었다. 구명보트를 바다에 띄워 놓자 한시를 놓은 선원들은 욕심이 생겼다. 버리기 아까운 소지품은 다 들고 나왔다. 조난자 휴대품이라기엔 짐이 너무 많았다. 브리지에서 인원 보고를 받으며 지켜보고 있던 고병태 선장은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

—조난을 당해 탈출한 선원들의 짐이 저렇게 많은 말인가? 남이 보면 멸절한 배를 내팽개치고 도망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고병태 선장이 아래로 내려다보며 선원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개인 휴대품은 십 킬로 이내로 줄여라!”

구조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 척, 두 척, 세 척. 구조선들은 선수가 잠겨

가는 아카시아호 가까이 접근하지 않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관망을 했다. 조난 선박이 침몰하면서 일으키는 소용돌이에 휘말릴까 봐 그랬다. 근처에 도착한 구조선들은 서로 교신을 해서 스케줄이 바뀐 배와 대형선들은 다 떠나고 3천 톤급 화물선 두 척만 남았다. 한 척은 지브롤터로, 다른 한 척은 세우타로 가는 선박이었다.

고병태 선장은 그때까지 잉 브리지에서 잠겨가는 선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선장이 퇴선하기만 기다리고 있던 선원들은 마음이 다급해졌다.

“지가 무슨 아파또 함장이냐 된다고…… 마지막까지 갖가지 쇼를 하고 있네!”

노조 분회장 김병운이 불평을 했다. 그는 해군 부사관 출신이었다.

선원들은 더 참을 수가 없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줄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구명보트에 탑승했다. 하지만 선장이 아직도 퇴선하지 않았는데 출발할 수는 없었다. 기관을 시동해 당장 출발할 수 있도록 클러치를 중립에 놓고 기다렸다.

“선장님, 어서 퇴선 하십시오. 위험합니다!”

갑판에 혼자 남아 있던 박수경이 고함을 질렀다. 그 소리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고병태 선장은 선수만 바라보고 있었다.

아카시아호는 선수가 물에 잠기는 것만큼 선미는 점점 들리고 있었다. 고병태 선장은 배가 침몰하려면 아직 멀었다고 속단했다. 막상 배를 버리고 퇴선하려고 하니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배가 장시간 가라앉지 않으면 어찌나? 이 날씨에 대형선이 침몰했다면 누가 곧이들겠나? 나중에 귀국해서 선장이 최후까지 배를 지켰다는 무용담도 듣고 싶었다. 배는 침몰했으나 인명 피해 없이 탈출했다고 자신이 공로표창장을 받는 모습도 떠올랐다. 또 한편으로는 10억 짜리 생명보험도 생각났다. 앞으로 죽을 때까지 배를 탄다고 해도 10억이라는 거금은 모을 수 없는 돈이다. 유족보상도 받고 장제비도 나온다. 두 번 다시 이런 기회는 없을 것이다. 자식들을 위해서는 지금 죽는다고 해도 여한은 없다. 선장이 배와 함께 최후를 맞는 것은 부끄러운 죽음도 아니다.

고병태 선장이 그런 갈등에 빠져 잠시 머뭇거리고 있을 때 발밑에서는 최후의 순간이 일각일각 초를 다투며 다가오고 있었다.

아카시아호는 원래 광유선이라 기관실 바로 앞에 펌프 룸이 있고 그 위에는 브리지를 포함한 거주구역이다. 펌프 룸 앞은 8번 화물창이다. 선미가 공중으로 들리는 만큼 선미 탱크에 실린 해수와 기관실의 하중은 취약한 펌프 룸에 집중되었다. 선미가 조금씩 더 들리면서 그 하중을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 이윽고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하는 순간이 다가왔다. 펌프 룸이 일시에 텅 벌어지며 선체는 세 동강이 나고 말았다. 브리지를 포함한 거주구역과 기관실, 후부갑판이 한 덩어리가 되어 뒤로 벌렁 넘어졌다.

“아니, 저럴 수가?”

선장이 퇴선하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던 초사는 갑자기 선미로 폭 잠기는 선체의 요동에 하마터면 쓰러질 뻔했다. 핸드레일을 붙잡지 않았으면 추락했을 것이다. 줄사다리를 타고 미끄러지듯 구명보트에 탑승했다. 구명보트는 몸통만 남은 아카시아호에서 전속으로 이탈했다.

뒤로 넘어진 후부갑판은 그대로 스르르 물속에 드러누웠다. 무섭게 소용돌이치는 물거품 속에 파묻힌 고영태 선장의 모습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죽음의 자살인지 과실사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생존 선원들을 태운 두 척의 구명보트가 대기하고 있던 구조선에 도착했을 때 여덟 개의 화물창만 남은 아카시아호의 몸통도 서서히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참으로 처참한 아카시아호 최후의 모습이었다.



귀향

제4회 등대문학상 우수상 / 소설
윤 대 정(창원시)



“아들아, 사진은 다 우째뿌고 영정이 저게 뭐꼬?”

좀 늦게 도착한 고모님께서 한 말씀하셨다. 하지만 뭐라고 드릴 말이 없었다. 또 뭐라 말씀하셔도 이제 와 달리 어찌할 방법도 없었다.

흑백으로 된 아버지의 영정 사진은 웃고 계셨다. 검게 탄 얼굴에 이마는 고랭지 밭고랑처럼 깊은 골이 굽이치며 파여 있었다. 거친 눈썹 밑으로 금 간 얼음처럼 서려 있는 잔주름은 흰색과 검은색이 반반씩 섞인 상고머리와 함께 언뜻 보아서는 나이를 쉽게 짐작하기 힘들게 했다. 살짝 벌어진 입술 사이로 니코틴에 찌든 갈색과 검은빛이 뒤섞인 어긋난 치아가 보이고, 입은 옷은 목덜미에 때가 반질반질하여 희멀겑게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아마도 저 사진을 찍을 무렵 아버지의 나이는 신과 예순의 중간쯤이었을 것이다. 사진은 푸른 하늘에 강물처럼 골 지어 흐르는 흰 구름을 배경으로, 배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을 스냅으로 찍은 것이었다. 마땅한 사진이 없어 가지고 있던 사진 중에서 주었던니 장례식장에서 관련 업체에 의뢰하여 배경은 없애고 컬러를 흑백으로 얼굴 모습만을 만들어 놓았다.

*

아버지가 바다를 다시 찾으신 건 거의 보름 만이었다. 아버지는 어부였다. 그

렇다고 큰 배를 가지고 난바다로 나가 그물을 쳐 고기를 잡는 것은 아니었다. 조그만 뗏목을 타고 직접 노를 저어 통발로 고기를 잡았다. 통발을 물에 인접하게 던져 놓고 하루가 지난 다음에 건져 올렸다. 통발 안에는 도다리, 농어, 광어, 우럭, 장어, 볼락, 돔, 망상어, 물메기 등등의 계절마다 제각각의 물고기들이 들어와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무렵엔 중국 어선들의 고데구리로 말미암아 고기가 통발에 잘 들지 않았다. 고기가 들어도, 또 잘 안 들어도 아버지는 개의치 않고 매일 바다에 나갔다. 큰비가 오거나 태풍이 올라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바다로 나가는 아버지를 아무도 막지 못하였다. 바다는 아버지의 일터며 놀이터였다. 아니 아버지의 전부였다. 얼굴은 언제나 검게 타 있었고 머리카락은 진득한 갯내를 머금고 소금기에 푸석거리며 메말라 있었다. 손은 나뭇등걸처럼 거칠었고 얼룩과 더께가 고기비늘처럼 뒤덮여 있었다.

퇴원 후 매일 틈나는 대로 전화를 드렸지만, 연휴를 맞아 특별히 간다는 연락도 없이 혼자 고향에 갔었다. 아버지는 변함없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셨고 집은 비어 있었다. 집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다. 가구는 그대로인데 군데군데 이빨 빠진 것처럼 허전함은 마치 갑자기 터진 전쟁통에 급히 몸만 빠져나간 주인 없는 빈집에 피난민 머물다 간 모양새였다. 해가 뉘엿거리며 잔잔한 바다가 붉게 물들어서야 노를 저으며 바다에서 오셨다. 해를 등지고 있어 표정을 읽을 수 없었지만, 지친 노동의 훈장으로 굵은 허리를 지렛대 삼아 일정한 속도로 흐트러짐 없는 자세는 마치 전기를 쬔 로봇같이 보였다. 석양의 바다는 작살을 맞아 쏟아낸 고래의 핏물처럼 어롱거렸고 자신의 키보다 곱절은 되어 보이는 긴 노를 잡고 물살을 밀치며 허위허위 들어오는 모습은 태곳적 조상들을 연상시켰다.

“괴기 마이 잡으셨능교?”

“어, 왔나.”

“근데, 집이 와 이랬심니까?”

“와 어때서? 니 회 물래? 회 치주까?”

아버지는 옛날이나 변함이 없었다. 잡은 물고기 중 이름 없는 잡어나 상품 가

치가 없는 물고기로 찌개를 끓이고 시커멓게 녹슨 칼로 회를 떴다.

“인자 술은 그만 드시이시소”

“마 댔다. 그냥 팽상시 맵기로 살다가 죽는 기 최고로 행복한 기다.”

아버지는 때가 만지르르한 손잡이가 달린 파란색 플라스틱 컵에 소주를 가득 채웠다. 아마도 저 컵은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있었으니 반백 년은 족히 되었을 것 같다. 아버지는 병원에서 암으로 진단받았다. 처음에는 소화가 제대로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다며 내색 없이 소화제만 먹었다. 그러기를 일 년을 훌쩍 넘겨 토하고 식은땀을 흘리며 통증을 느끼고서야 병원을 찾았다. 병원에서는 보호자를 찾았지만, 당신께 직접 이야기하라고, 어떤 죽음병이라도 상관없다고 고집 피우다 동네 아저씨의 연락을 받고 내가 직접 병원을 찾았다. 그때 아버지의 낙담한 얼굴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결국은 이렇게 늙어 자식들에게 근심만을 안겨 주는구나 하는 회한의 눈빛이었다. 찾아간 나를 눈도 마주치지 않고 창문만 멀거니 바라보았다. 결국, 내가 사는 구미 인근 대구의 한 대학병원으로 입원시켰다. 암세포는 창기즈 칸의 말발굽 내딛듯 급속한 속도로 이미 당신의 몸 구석구석을 자신의 영토로 확장해 놓은 상태였다. 병원 측에서도 현재로써는 손쓸 재간이 없다고 솔직히 털어놓았고, 아버지는 퇴원을 고집하였다.

“아아야 내가 살모 또 올매나 살 것 노. 내 뺑은 내가 잘 안다. 그래도 죽을 때는 뺑 편하게 죽어야 안 되겄나. 여그 병원에서는 실कु마. 집으로 갈란다.”

그렇게 나의 고향이고 아버지의 삶의 터전인 구산면 바닷가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과거의 흔적들을 저녁마다 바닷가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불태웠다. 무거운 가구를 제외한 책, 사진, 편지, 노트, 지나간 캘린더, 수첩 등등을.

“구지 그러케 까지 엄썰 필요가 있십니까. 난중에 지나 헤미가 추억으로 간직할 끼 엄썰아 예. 또 아덜도 주구 할부지 우찌 사랐는지도 알아야 되구 예.

“기냥 와따가 살다 가모 그뿐인 기라. 모 냉길 끼 있겄노. 어짜피 맨몸으로 온 긴데, 맨몸으로 가는 기지. 한 개도 필요 엄따. 증말 중요한 거슨 여그 가슴에 있는 기다. 가슴 속에 있지 안은 거슨 중요한 기 아인기다. 그라고 이자뿌고 가슴에 안

남아 있는 것도 중요한 기 아인기고, 증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죽어도, 흘기 되도, 뼈를 빠사가 가리가 되도 엄써지지 않는다.”

*

난 아버지의 임종을 옆에서 지켜드리지 못했다. 아니, 어느 누구도 아버지의 마지막을 보지 못했다. 아버지는 당신 혼자서 쓸쓸히 한 많은 세상을 조용하게 떠났던 것이다. 당신은 죽음의 공포를 어떻게 다스렸는지, 육신의 아픔과 고통은 또 어떻게 감내하였는지 생각할수록 알지 못할 존경심과 경외감이 느껴진다. 당신이 살아온 세상이 이런 것이라는 짐작은 했지만, 막상 맞이하고 보니 당신의 삶이 보잘것없는 치졸한 삶이 아니었고 위대한 항해를 마친 기나긴 여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의 부음 소식에 동네 주민들이 문상을 왔다. 이제는 농촌과 마찬가지로 여촌도 젊은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대체로 농민들보다 바닷가의 사람들은 죽음은 좀 더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농민들은 질병이나 노환에 의한 죽음 말고는 찾기 힘들지만, 바닷가는 험한 파도와 맞서야 하고, 일 년에 몇 번이고 태풍을 이겨내야만 한다. 하지만, 태풍이 오면 선박이나 가옥 등 물질적 피해만을 주고 떠나지 않고 항상 몇 년에 한 번씩은 인명의 피해를 준다. 아울러 잇을 만하면 들려오는 선박의 좌초로 한꺼번에 많은 목숨을 잃기도 한다. 그러한 연유가 이들이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교훈을 준 것이라 생각되었다.

사실 아버지의 죽음은 문상을 온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었다. 퇴원하고 다시 바닷가로 내려간 아버지가 걱정은 되지만,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옆에서 수발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었고, 설령 그렇게 하려 했어도 아버지의 거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다. 고향 마을은 칠천도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바다 위 산자락에 이십여 호의 가구들이 수류탄 파편 튀기듯 얼기설기 퍼져 있었다. 고향 집은 마을에서 외따로 떨어져 있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삼십 미터쯤 거리에 위치하여 아버지와 너나들이를 하며 지내는 동년배의 노부부가 살고 있었다. 아버지를 집으로 모신 이후 이웃을 찾아가 만약의 일을 부탁하였다.

아버지의 일상은 죽음을 앞둔 하루 전까지 전혀 변화나 흐트러짐이 없었다고 한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비슷한 시간에 배에 올랐으며, 통발로 잡은 물고기를 넘기고 하루에 한 번 상점에 들러 사 홉들이 소주 한 병을 샀다. 이웃에서 아버지의 주검을 발견한 것은 아버지가 이승에서의 삶을 마무리 지은 지 만 하루를 넘기지 않았다.

“길어야 육 개월이고 짧으면 이삼 개월입니다.”

퇴원을 감행하는 아버지를 보고 병원에서 나에게 해준 말이었다. 주말에는 내가 내려가고, 여동생 헤미는 집이 안산에 있어 이 주에 한 번씩 고향을 들렀다. 평일은 전화 통화만 할 뿐이었다. 그날은 온종일 납품한 물건에 클레임이 걸려 바쁘게 돌아다녔고 경황이 없어 저녁 무렵에야 전화할 수 있었는데 받지 않았다. 헤미에게 혹시 낮에 아버지와 통화했는지 물어보았다. 자신도 전화를 넣었지만 받지 않아 전화기를 집에 두고 뱃일을 나갔나 싶어 저녁참에 다시 넣어볼 양이라고 하였다. 이웃에 전화하여 물어보았으나 그들은 큰집인 마산에 제사가 있어 어제 나와 지금 들어가는 길이라며, 가는 대로 확인해서 연락 주겠다고 하였다. 그들의 전화를 기다리는 시간은 한겨울에 얼음을 녹이며 봄을 기다리는 것처럼 길게 느껴졌다. 당장에라도 차를 몰고 달려가고 싶은 마음에 몸을 들썩거리야 했다.

아버지는 그렇게 홀로 가시었다. 고향 집에 도착했을 때는 아버지는 이미 나무토막처럼 굳어버린 차디찬 주검으로 있었다. 가구류와 덮고 자는 이불 두 채, 끼니를 해결하는 식기류를 제외하고는 내용물이 비워진 소주병만이 넘어져 굴러다니고 완전하게 말라버려 입김으로 후 불면 부서질 듯 바스락거리는 알지 못하는 풀잎밖에 없었다.

“아저씨 이 풀은 뭐니까?”

“그거, 아마도 양귀비인상 싶다.”

아버지는 영토를 확장해가며 깊어가는 암세포와 최후의 전투를 양귀비로 선택

하였던 것이다. 오래전부터 집집이 양귀비를 한두 뿌리씩 키우며 배앓이나 키우던 소가 병이 났을 때 진통제로 사용했었다. 지금도 병원을 가기 힘든 벽지나 지긋한 연세의 노인들은 애용하고 있다. 아버지는 텃밭 한편에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비닐하우스를 몇 평 만들어 남몰래 양귀비를 키워왔다.

“느그 아버지 범 엄씨도 살 양반이지만 참 엄청 독한 기라”

“암만 아파도 아프다 소리 함도 엄제, 또 아쉬바도 아십다꼬 이야기를 하나. 그 러타가 녀들이 쫘 도와 달라 카모 마치 제 일 인양 해 준다 아이가.”

“인자 조은 세상 가싶는 기라. 마 그리 생각허라. 그레야 맘이 편한 기다. 알긋 나?”

아버지의 시신은 인근 마산의 장례식장으로 모셨다.

*

“할아버지 우리랑 사진 같이 찍어요.”

“나는 대따. 느그들끼리 찍어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 년쯤 전에 아내와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방학을 맞아 휴가와 피서를 겸하여 고향을 갔었다. 아버지는 아이들이 함께 사진 찍자 하여도 허허 웃으며 손사래 쳤다. 아버지는 피치 못해 찍는 단체 사진이나 신분증의 사진 말고는 사진 찍는 것을 거부하였다. 사진은 모 할라꼬, 그냥 보모 대지. 그때 이미 아버지는 당신의 몸의 이상을 느끼고 있었다. 정확한 병명이야 당연히 몰랐지만, 평생 한 번 아팠던 적이 없었기에, 그리고 전체적인 몸의 느낌이 예사롭지만은 않아 직감으로 알았었다. 뱃일하다가 손에 상처라도 입으면, 기냥 이리 바닷물에 담그고 저절로 난는다. 바닷물이 다 소독해주고 치료도 해 주는 기라 했었다.

아침 일찍 해가 뜨기도 전에 아버지와 함께 배에 올랐다. 고향을 찾을 적마다 오르는 배지만 유독 새로운 감회와 느낌이 들었다. 짙은 해무가 피어오르는 바다

는 변함이 없었다. 조금을 막 지난 두 물때라 물살은 고르고 잔잔했다. 내가 노를 저었고 아버지는 통발을 건져 올리고 있었다.

“거, 니 동상 헤미 있잔혀. 우찌 사노? 니가 내보다 잘 알 것 아닝게벼?”

헤미는 나하고 다섯 살 터울의 여동생이었다. 헤미는 몸매가 호리병처럼 잘록 하거나 얼굴이 남다르게 예쁘거나 하지도 않았다. 그저 평범했다. 좀 자그마한 체구는 보호 본능을 일으키게 하였고, 까무잡잡한 피부, 아버지를 닮아 유난히 짙은 눈썹, 그리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초롱거리는 검은 눈동자와 눈웃음은 몇 남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웃으면 깊게 파이는 볼우물과 붙임성이 좋아 사람들과 쉽게 사귀었고 애교가 많았다. 누구에게나 유년의 삶이 순탄치 않겠지만, 헤미의 유년 시절은 참으로 많은 굴곡이 있었다. 아버지는 헤미의 모습을 보며 어쩔 수 없는 자괴감을 가지고 있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바닷가 특유의 다소 거친 면이 있어도, 길가에 피는 민들레나 코스모스처럼 별다른 특징이나 모습은 없었다. 헤미가 중학교를 들어가고 사춘기에 접어들자 어머니도 있지 않은 남자들의 집에서 무던히 반항하고 튀었다. 아버지는 그때마다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당시 자신의 탓으로만 돌리었다. 하지만, 당시 고등학교에 다니던 나에게는 다른 이들의 입에 오르내림을 얻은 치기로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하루가 멀다고 푸닥거리를 해댔다. 헤미가 여자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에 통학이 불편하다고 자취를 시켜달라고 졸라 대었다. 그때 나는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실습생으로 취업하였다가 군대에 있었다. 마산으로 통학하기에는 고향인 구산면은 당시 교통편이 너무나 좋지 않았다. 하루 여섯 차례 다니는 버스를 타고 신마산에 내려 다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아타야 했다. 아버지는 교통편이나 등하교 시간을 생각하면 자취든, 하숙이든 시켜줘야 할 것 같았지만, 여식을 그렇게 하자니 맘이 놓이지 않아 혼란스러워했다.

헤미의 고집스러운 매달림에 못 이겼는지 아니면 한번 믿어보자는 심산인지, 결국 헤미는 구산면을 떠나 학교 인근에 자취하였다. 자취한 이후 헤미는 돈이 아쉬울 때 말고는 고향을 잘 가지 않았다. 아버지는 헤미의 학교생활에 대하여 전무했다. 잘 다니고 있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와 믿음만 있을 뿐이었다. 이 학년 겨울

방학을 한 달여 앞두고 헤미가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집으로 찾아왔다. 아버지는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고기만 잡아 가끔 들리면 돈이나 쥐여 주었을 뿐, 어디에 사는지, 누구와 친한지 당최 몰랐었고 또 알 수가 없었다. 가슴 졸이며 하릴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으려니 방학을 며칠 앞두고 헤미가 고향을 찾았다. 그 때까지 커 오도록 아버지는 매는커녕 언성 한번 높이지 않았었던 양반이었는데, 그 물처럼 거칠게 갈라진 손으로 헤미의 손을 잡아끌고 집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다 그치기보다는 어르고 달랬다.

다음날 헤미를 앞세워 학교에 찾아간 아버지는 머리를 조아리며 선처와 자비를 빌었고 십여 일 뒤 방학을 맞았다. 헤미의 이 학년 겨울방학은 사육사에 길든 짐승처럼 아무런 사고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도다리가 한창 맛이 들고 잡힐 즈음 헤미는 학교로, 나는 군대에서 제대하였다. 아카시아 꽃향기가 바람에 날릴 때 나는 직장을 잡아 고향을 떠나 구미로 옮기었다. 헤미는 채 여름이 오기 전에 더는 학교에 가지 않았다. 주변의 어스름비슷한 이들과 함께 학교보다는 학교에 적만 두고 있는 공업고등학교나 실업고등학교의 남학생들과 어울려 동거와 혼숙을 하였다. 방학이 되어도 헤미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전어가 올라올 철이 되어도 소식이 없던 헤미는 빈 소리 껌테기에 들어가 은신하고 있는 주꾸미가 잡히는 가을이 깊어져서야 고향을 만신창의 몸으로 찾았다. 주변의 눈이 무서워 인근 마산은 생각도 않고 야반도주하다시피 진주까지 가서 낙태 수술을 받았다.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것인지 개과천선을 하려는 것인지 헤미는 어린양이 되어 순종적이고 다소곳이 텃밭의 채소를 가꾸며 김장도 하며 아버지의 수발을 들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와도 헤미는 변함없는 모범수 생활을 하였다. 그러다 뒷산에 많지도 않은 두어 그루의 밤나무에서 짙은 밤꽃 향을 풍기며 과부의 애간장을 녹이는 유월에 헤미는 집을 떠났다. 이제는 취직해서 착하게 잘 살다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겠다고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옷가지를 챙겨 집을 떠났다. 그리곤 마산에서 조그만 건설 회사에 경리 보조로 취직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의 평화였다. 헤미는 다니는 건설 회사의 사장과 살림을 차려 살다 사장 부인에게 치도곤을 당하고 회사에서 쫓겨났다. 이후의 직장 생활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방에 들어가 옷

음을 팔며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았다. 그러다가 현재의 매제를 만나 결혼하여 아들 하나와 딸 둘을 낳아 살고 있었다.

“잘 살고 있심 더. 안산에서 예.”

“가가 생활이 좀 팍팍 한가 보더라. 인자 내가 살모 올매나 더 살 것 노. 내 죽 거들랑 얼마 되지도 안은 재산 니가 어련히 알아서 잘 허것냐만, 가를 니가 함 챙기봐라.”

아버지는 헤미에게 적잖은 돈을 준 부분은 이야기 않은 채 달포 전에 고향을 왔었다고만 하였다. 하지만 나는 헤미의 전화를 받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구체적인 금액은 이야기 없었으며 나 또한 묻지 않았다. 고향에서 돈을 좀 받았다고 말했었다. 그러면서 헤미는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돌아올 자신의 몫을 미리 받았으면 했다. 나는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넣는 것이나 왼쪽 주머니에 손을 넣는 것이나 매한가지로 상관없지만, 그건 아버지가 허락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였다.

*

아버지의 유골은 한 줌 가루가 되어 항아리에 담겨 나왔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뒤통이에 나란히 묻어드릴 생각을 하였으나 아버지는 한사코 손사래를 쳤었다. 당신이 평생을 함께한 바다에 뿌려 달라고 하였다. 혹여 당신의 뜻이 거슬러질까 다 짐까지 받았었다. 차마 요즘은 유골을 그렇게 뿌리는 것이 법에 저촉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서로 간에 순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애증의 삶을 살았다. 아버지의 고향은 거제도였다.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아버지의 아버지, 조부께서는 논농사와 고기잡이를 같이 하는 반농 반 어부였다. 각박한 일제 강점기의 흔치 않은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았던 선주였다. 집안의 살림살이는 풍족하지 않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생활이었다. 장승포에서 포경선으로 고래잡이가 높은 부를 가

저다주는 것에 자극받아 조부는 무리하게 이곳저곳에서 돈을 융통하여 포경선을 구입하여 처음으로 고래잡이를 나섰다가 태풍을 만나 조부도, 선원도, 배도 모두 영원히 바다 밑에 잠들게 되었다. 갑작스러운 집의 우환으로 생활은 궁핍해지고 조모는 식음을 전폐하며 낫을 놓는 생활에 병을 얻어 시난고난 하다 조부 곁으로 가셨다. 아버지의 형제들은 뿔뿔이 흩어져 주변의 일가친척 집에 더부살이하였다. 아버지 역시 지금의 초등학교인 소학교 삼학년을 다니다 아버지의 당숙이 사는 사천의 한 바닷가로 가셨다. 고향에서 조부와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가보거나 고기 잡는 모습을 보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잠깐의 놀이였고 사치에 지나지 않았다. 바다에서 직접 높은 파도와 생사를 건 사투를 벌여보지 않고서 바다에 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말의 유희에 지나지 않는다. 바다는 사람들에게 꿈을 실현해주고 무궁한 부를 안겨주지만 반대로 괴물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한순간에 앗아가기도 한다. 바다는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순응하고 함께하는 공존의 길을 터득하여야만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것이다. 당숙과 함께 뱃일을 하면 작열하는 태양에 온몸의 수분은 고스란히 땀으로 증발하였다. 손바닥은 짙으로 만든 밧줄처럼 보풀이 너덜거리며 살점들이 일어났다. 한겨울의 바람은 얼굴과 손을 수천 개의 바늘로 찌르는 아픔을 주었다. 그물은 잠깐의 줄음을 갈날처럼 날카롭게 피부를 베었다. 저녁이면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해초 줄기처럼 널브러져 잠들게 하였다. 희뿌연 안갯속을 손을 더듬어 배에 오를 준비를 하였고, 떠오르는 태양은 항상 바다 한가운데 선상에서 맞았다. 어린 아버지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형벌이었으나 그 시절은 누구라고 할 것 없는 시대였으니 말없이 묵묵히 너울지며 일렁이는 바다에 몸을 맡겼다.

하지만 어부의 길도 오래가지 않았다. 이내 소용돌이치는 해방과 전쟁을 맞닥뜨려 전선으로 향하게 되었다. 전쟁이 끝나고 고향인 거제에 돌아가니 큰 형님은 전쟁통에 전사했고 작은 형님은 소식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다행히 두 살 많은 누님은 출가하여 남해에서 살고 있었다. 아버지는 당숙 집으로 갔으나 당숙은 전쟁이 발발하던 해에 돌아가시고 당숙모만 있었다. 하룻밤을 당숙 집에서 유숙한 후 아버지는 대구로 가시었다. 대구에서의 생활은 순탄치 못하였지만 젊은 몸뚱이 하

나 건사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 특별히 배운 기술은 없었지만, 아버지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함이 있었다. 어촌의 하루는 수평선으로 이글거리는 태양이 올라오기 일찍 전부터 준비하여야만 배를 타고 고기를 잡을 수 있었기에, 천성으로 굳어진 습관은 남들보다 일찍 새벽 공기를 갈랐다. 또한, 해송처럼 튼튼한 육신은 어떤 힘든 일도 견디게 해 주었다. 처음엔, 건설 현장에서 일용 노무자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생활로 시작하였으나 이내 작업반장을 하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지만, 평생을 노가다 판에서 굴러먹으면 사람대접도 못 받을 뿐 결혼하기도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조금의 종잣돈을 마련하자마자 운전을 배우고 트럭을 구입하여 농산물을 산지에서 사서 내다 팔았다. 그렇게 젊은 나이에 자리를 잡아 결혼하였다. 예로부터 대구의 여자들이 미인이듯 아버지가 선택한 여인 역시 활짝 핀 복사꽃이었다고 한다. 결혼도 했고 사업도 번창 일로였으나 호사다마인지 아니면 젊은 나이에 성공함에 질투인지 뜻하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다. 복사꽃 송이가 하루아침에 떨어져 버렸다. 결혼 후 육 개월쯤 지났을 무렵 신혼의 달콤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배 속에 아이와 함께 뽕소니차에 치여 하루아침에 자식 없는 홀아비가 되었다.

낙담과 좌절 속에 술로 시간을 보낸 지 일여 년 만에 자리를 털고 일어나 대구의 모든 생활을 정리하였다. 그리곤, 고향인 거제 앞바다의 칠천도가 마주 보이는 마산 인근의 구산면에 자리 잡았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여야 하였으나 아버지는 아무런 두려움도 못 느끼었다고 한다. 대구에서 정리한 돈으로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논 두 마지기를 사고, 땀만 한 척 장만하니 남는 것은 몸뚱이 밖에 없더라고 웃으면서 회상을 하곤 하였었다. 생활은 대구보다 다소 궁핍했지만, 마음만은 항상 편안하였다고 한다. 그렇게 생활해 나가던 중 동네 아주머니의 중매로 다시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 그렇게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다.

어머니는 바다와는 거리가 먼 진주 인근 산골 빈농의 딸이었다. 어머니는 전쟁이 일어나던 해에 집안끼리의 오랜 약속으로 혼례를 올렸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여 보름도 채 되지 않아 전쟁터로 지아비는 갔고, 불귀의 객이 되어 돌아왔다. 새파란 나이에 시집와 젊은 나이에 청상과부로 사는 모습이 보지 못할 것이라며

친정으로 돌려보내 져 살다 아버지와 인연이 닿았다. 서로가 한 번씩의 결혼도 있었고 다들 어려운 시절 이어 두 분은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부부로서 연을 맺었다.

처음부터 어머니는 바닷가가 안 맞았다고 한다. 하늘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농군의 딸은 순박하기만 할 뿐 시시각각 변화무상한 바다에 쉬 적응하지 못하였다. 물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논 두 마지기와 텃밭이 전부였고 또 그 일은 갯가의 일을 하면서 틈틈이 하면 그만일 정도여서 숙명과도 같은 바다와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여야 했다. 물의 일은 일을 하다 힘들면 아무 곳에서나 궁둥일 붙이고 쉬면 그만인데, 바다는 그런 사소한 여유조차 사치스런 장식에 불과했다. 노를 저으며 고기를 잡는 아버지 곁에서 잠깐의 방심은 물에서야 뒤로 돌아 두 발짝만 가면 그뿐이지만, 바다에서는 배를 돌기기가 노를 저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일이다. 아울러 어머니는 선천적으로 몸이 약했다. 아버지의 억센 팔로 확 잡아채기라도 하면 금방이라도 허리가 동강 날 듯 가냘프게만 보였다. 특히나 기관지가 좋지 않아 탁새나 주꾸미, 물메기, 도다리 잡는 철에는 일정한 방향 없이 불어대는 바람에 맥을 추지 못했다. 갯바위에 늘어붙어 있는 미역을 따는 일조차도 어머니는 몸에 겨워 하였다. 아버지는 시간이 가면 적응하리라 봤지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억지로 입혀놓은 듯하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삶은 내색한 번 없었다. 당신 팔자에 두 번 장가간 것만 해도 넘치는 복이라며 감지덕지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내가 태어나고 두 살 터울로 남동생 중기가 태어났다. 다시 중기와 세 살 터울로 여동생 헤미가 태어났다. 부부간의 애틋한 사랑은 없더라도 자식을 셋씩이나 보았으면 어느 정도 정을 붙일 만도 하건만 과묵하여 통 말이 없는 아버지와 살가움과는 거리가 먼 어머니는 장날 난전에서 엇비껴 마주쳐 서로 길을 드티어주는 사람들처럼 데면데면하였다. 헤미를 낳고 후더침으로 고생하고 난 이후부터 어머니는 먼산바라기가 잦았다.

동네 이웃집 아저씨의 연락을 받고 아버지를 대구의 병원으로 모신 후 일주일 이 지났을 때였다. 아버지가 입은 병원의 환자복은 흰색과 바다색이 차례로 무늬 지어 있었고, 00 대학병원이란 글자가 새겨진 모습이 양식장에 줄지어 떠 있는 부 표처럼 보였다. 그 종던 풍채는 오간 데 없이 머리는 접시에 얹어둔 양파가 남아 있는 물에 뿌리내린 듯 성기게 엉키어 있었고 햇볕에 그은 얼굴은 검버섯이 담쟁 이 넝쿨처럼 휘감고 있었다. 툭 불거져 나온 광대뼈는 어린아이가 찌그리고 앉아 튀어나온 무릎 같았고 두 치수나 큰옷을 입은 것처럼 환자복과 아버지의 몸은 고향 집 앞바다에 솟아있는 칠천도만큼 멀어 보였다.

“아아야 뭐라 카드노? 병원에서, 오데 암이라 카드나?”

“아이라 예. 인자 연세가 있어서 몸에 힘이 빠지 가꼬 그렇타네 예”

“니 말 안 해도 내 다 안다. 또 암이모 어떡꼬 아이모 또 어떤 노. 내는 인자 살 만큼 살았능 기라. 내 니한테 정신 멀쩡할 때 마즈막으로 할 말이 있다. 뭐 유언이라 케도 되고, 니가 꼭 내 말대로 해주모 조꼈다.”

아버지는 가슴속에 담아둔 이야기를 하였다.

“느그 어무이 안 있나. 참 차카고 고왔는디, 몬난 내 만나가꼬 고상만 하다 먼 저 안 간나. 만약에 저승이 있다카모 내 만나서 잘해 줄 끼구만. 말도 잘하고.”

아버지는 어머니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목이 뻐는지 말을 잘 잊지 못하고 발은 기침을 하였다.

“내가 뱃놈만 아니었어도 중기 가가 그리되지는 안았을 낀데. 그랬으모 느그 어무이도 일찍 안 갔을 끼 아이가.

나와 두 살 터울의 중기는 내가 초등학교 이학년 때, 중기 나이 일곱 살이었다. 나는 학교 가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헤미를 업고 한해 농사지어 겨우 식구들 입에 풀칠이나 하는 눈에 모심기하고 있었다. 중기 혼자 뗏마를 타고 놀다가 파도에 휩 쓸렸다. 중기의 시신은 삼일 뒤 진해 해군기지에서 떠오른 것을 발견하였다. 그 후로 어머니는 바다가 싫다고 떠나자 하였다. 약한 몸에 충격은 쉽사리 가라앉지 못 했고 자리보전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 년을 보내고 차도가 있는 듯싶었으나 매

서운 겨울바람이 몰아치던 해에 폐렴으로 중기 결으로 떠나셨다. 어머니의 죽음은 중기와 비교할 수 없는 슬픔과 비통함을 주었다. 하지만 더 큰 고통은 집안의 일들과 헤미의 양육이었다. 잃어버린 노동력은 내가 대신할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의 고달픔은 배가되었다. 아버지는 소주를 마시면서 노동의 힘을 얻었고, 못다 한 어머니에 대한 연민을 달랬으며, 괴로움을 잊고 잠들 수 있었다.

“헤미 이야기는 내가 따로 안 하꾸마. 전에 니한테 이야기 해뜨시 니가 잘 함 챙기바라”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당신의 재산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일찍이 고향을 떠나면서 그리 넉넉한 생활이 아니었기에 별 신경도 못 썼고 어렵פות이만 알고 있을 뿐이었고, 헤미 또한 마찬가지였다. 아버지는 나와 헤미의 독립 이후 삼십여 년을 혼자 어부로 살아오면서 번 돈으로 집 뒤편의 산 너머 바닷가 방향에, 아버지가 통발을 던져 넣었던 바다에 면한 곳에 적지 않은 산을 사 놓았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밋자리가 없어 남의 산에 사정사정하여 겨우 몇 평 남짓한 돌무더기 옆 산기슭에 묘를 쓴 게 마음에 걸려 당신이 떠나는 날 자식들이 그런 고생을 또다시 할까 싶은 생각도 없지는 않았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막연한 생각이었고, 당시부터 아버지는 화장하여 바다에 당신의 몸을 뿌려지길 원하였다. 쓸모없는 산이지만 사 놓으면 누가 파가거나 훔쳐 갈 것이 아니라며, 특별히 무엇을 하고자 한 계획도 없었고, 또 마땅히 할 것도 없었다. 처음 그 산을 살 때는 산을 넘어가는 좁다란 자드락길밖에 없었으나 최근에 창원시로 통합되면서 인근에 로봇랜드가 조성되어 일주 도로가 생겼다. 경관이 좋아 별장이나 펜션, 혹은 돈 많은 은퇴자의 빌라로 개발하고자 땅을 팔 것을 부동산을 통하여 은밀하게 온다고 하였다. 당신이 평생 어부로서 살면서 남긴 것이라며 가능하면 팔지 말고 후대에 물려 달라고 당부하였다.

*

“아버지, 오늘은 피기 잡으러 안 감니까?”

“와 니도 갈끼가?”

“야”

“니는 인자 내년부텀 핵교 가야 하는데, 니 공부 잘해야 된 데이”

“학교 안 가고 그냥 아버지랑 피기 잡으면 안됩니까?”

“니는 피기 잡는기 존나?”

“야. 지는 세상에서 아버지랑 피기 잡는 기 제일 좋아 예. 지는 나중 커서 아부지처럼 어부가 될 끼라 예”

“그런 말 하지 말그라. 니는 우리 집 장남인게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대서 저기 서울 가서 사라야 되는기라.”

아버지와 나누었던 유년의 기억들이 일렁이는 파도에 흰 거품을 내뿜으며 물결치듯 떠오른다. 불과 며칠 전 같이만 느껴지는데, 시간은 하릴없이 사십 년을 훌쩍 넘겼다. 바다는 변함없이 그때 그 바다다. 물결은 잔잔하고 날씨는 맑아 손을 뻗으면 칠천도가 닿을 듯했다. 아버지와 함께 통발을 던져 넣은 그 자리는 그대로였다. 아버지가 사 놓은 산은 지리적으로 남단에 위치하기도 하지만, 거제도를 마주 보고 있는 남향의 따뜻한 곳이라 해송은 없고 돌보는 사람 없이 땅이 보이지 않게 잡목만이 우거져 있었다. 돌벼랑은 낙석 방지용 바다색 철망이 쳐있고 인간의 문명이 그 앞으로 수중 암초와 갯바위 위로 도로를 내었다. 고기잡이 어부들의 이정표였던 하늘을 향해 발기한 남성의 그것처럼 느림히 솟아 있던 촛대 바위는 보이지 않는다. 이곳은 수중 여가 잘 발달하고 진동만과 합포만으로 이어지는 길목이어서 고기가 잘 잡혀 모두가 탐내는 자리였다. 통발을 넣었던 곳에 아버지의 유골을 뿌렸다. 유골은 연기처럼 퍼지더니 물에 닿자마자 녹으며 줄 끊어진 연처럼 회오리치며 가라앉았다. 접안렌즈로 들여다본 정충처럼 꼬물거리며 수박씨만 한 치어들이 제 몸의 절반의 눈을 달고 달려들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아버지의 유골에 새까맣게 달라붙었다.

*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고 구미로 온 나는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사표를 내었다. 내가 하는 일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생산 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었다. 후임을 구하도록 한 달여의 시간을 두고 나는 고향으로 내려갈 준비를 하였다. 아내와 아이들은 대학을 진학할 때까지 구미에서 현재보다 작은 아파트를 얻어 지내기로 하고, 사는 집은 팔았다. 그리고 주변의 저축 등 모든 것을 끌어모으고 고향의 아버지가 유산 중에서 논을 포함하여 일정 부분은 정리하여 헤미에게 주었다. 아버지가 가졌던 전부를 지킬 수 없었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동원하였다.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나도 고향의 바다에서 노를 젓고 통발을 던져 넣으며 남아있는 여생을 마칠 계획이다.



불섬 항

제4회 등대문학상 우수상 / 수필

조 문 재(경기도 가평군)



항구는 저마다 이야기를 품고 있다. 남의 이야기를 엿보고 싶은 왕성한 호기심의 장소이다. 신안 앞바다에 보석처럼 박혀 있는 불섬항은 목포항에서 쾌속선을 타고 한 시간 남짓 들어간다. 바다에 에워싸인 채 육지와 연결되는 다리도 없다. 높은 건물이 없어 겉으로 보기에는 무명의 섬 같으나 전통에 갇힐 만한 유물 유적이 곳곳에 남아 있어 연일 관광객을 불러들인다. 지나간 시절의 우아함을 간직하고 있는 나이 든 귀부인 같다.

쫄깃한 육질과 담백한 맛에 중국의 벼슬도 버렸다는 농어가 그물 위로 올라오는 철이면 고깃배들이 만선의 깃발을 꽂고 불섬항에 정박한다. 뉘 누리와 맞선 용감한 뱃사람들이 먼 바다에서 돌아온 것이다. 밤의 항구는 일하기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밝고 주름살이 보이지 않을 만큼 침침하여 노스텔지어를 달래는 데 충분하다. 부두 끝 국밥집과 발이 긴 영덕 게가 수북이 쌓인 선술집은 불야성을 이룬다. 러닝셔츠만 입은 아저씨들이 빙 둘러앉아 흥겨운 잔치를 벌인다. 짹짹한 바닷바람이 파리퐁이 붙은 알전구를 흔들고 담배 연기를 몰아 창밖으로 퍼져나갈 때쯤 술판은 자못 숙연해진다. 시절 지난 노래를 몽땅 끄집어내 항구가 떠나가라 부른다. 세상살이 쓰고 달콤한 기운이 스민 부둣가 노랫소리는 통곡처럼 자지러진다. 슬픔이 슬픔을 노래하여도 슬프지 않은 노래이다.

아버지는 병커시유(油) 냄새가 땀 백 톤급 화물선 선주이자 선장이었다. 눈빛은 가을 하늘보다 맑았으며 표정은 사람을 제압하는 기운이 깃들어 있었다. 화려

한 성공의 단맛과 허전한 실패의 쓴맛을 모두 가진 뱃사람으로서 언제 어디에 있던 소금 내음을 확확 풍겼다. 자존심은 가문이나 상속이 아니었다. 시야가 캄캄한 칠흑 속에서도 어느 쪽이 죽는 바다이고 살 수 있는 바다인지 풍향 변화를 육감으로 판단하는 노련한 지혜와 햇별에 그을린 근육이 자산이었다. 선장이 되기 위해 열다섯 살에 일본으로 건너가 이십년이 넘도록 고난과 눈물의 성(城)을 쌓았다. 배 이름에는 선주의 꿈이 담겨 있는 법이다. 서남해 끝자락에 살아도 우리 배는 '서울호'였다. 일본 사람 밑에서 갓은 서러움을 겪다가 지은 이름이라 했다. 날마다 마스트를 미끈덕미끈덕 닦는 봉식이 삼촌과 엔진을 어금니 아끼듯 다루는 기관장 아저씨까지 선원은 셋이었다.

배가 좋고 나쁘고 는 얼마큼 튼튼하게 조선되었느냐에 달려있다. 뼈대가 통나무인 데다 물을 잘 먹지 않는 삼나무로 만들어진 서울호는 구조가 견고하여 밀이 튼튼했다. 지붕만 한 파도가 선체를 조각내 버릴 듯 번쩍번쩍 치켜들어도 제자리에서 비틀거리다 뿔박질하듯 앞으로 나아갔다. 롤링작용도 상어같이 하늘로 치솟아 타 넘겼다. 쾌속선이 생기기 전 유일한 화물 운송수단이었다. 특산물을 싣고 목포로 나가 현금을 가져오는 날이면 마을 사람들은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서울호를 맞으러 항구로 모여들었다. 우리 배는 섬마을에 희망의 등불이었다.

흰 칠을 한 여객선이 하루에 한 번 뱃머리를 쳐들고 들어왔다 나가면 후에 발생한 위급 환자는 아버지 뛴이었다. 단 한 사람을 위하여 한밤중도 마다치 않고 배에 시동을 걸었다.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을 품는 일이 숙명이라 여겼다. 하루에도 몇 번씩 변덕을 부린 바다는 끝 간 데 없이 넓어 열린 것 같으나 닫힌 곳이기도 했다. 만월의 밤바다에서 야기(夜氣) 띤 등댓불을 밤새도록 바라보고 소름 끼치는 정적을 침묵으로 극복하다 보면 육신이 고통에 절었다. 해안을 부딪치며 울어대는 파도 소리는 웅숭음치는 아버지의 울음소리였다.

항구는 피안의 세계로 옮겨가는 출발선이었다. 아이들은 아랫도리에 거뭇거뭇 붓꽃이 돋아나면 섬을 떠나 스스로 제 발걸음의 주인이 되었다. 그들이 신천지에 발을 디디기 전에 마을에 절실한 것은 '우체국'이었다. 아버지는 모든 기량을 우체국 건립에 걸고 54, 5km 해안 길로 건축자재를 실어 날랐다. 바다는 알 건 다 알아

버린 중년 여자처럼 수줍음도 없이 속살을 드러냈다. 거칠고 날카롭게 솟아올랐다가 사그라졌다. 부드러울 땐 비단결 같다가도 악이 받치면 배를 가라앉히고 말겠다는 듯이 흰 이빨을 뿌드득 갈며 죽기 아니면 살기로 덤볐다.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는 대자연의 변수가 곳곳에서 파리를 틀었다. 예기치 못한 갖가지 돌발 사태는 가슴을 짓눌려 망망대해 한복판에서 이성을 마비시켰다.

금방이라도 마스트를 꺾어버릴 듯한 갈바람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풍우가 시야를 가로막곤 했다. 하루에 열댓 번씩 엔진을 닦아도 이상이 생겨 표류한 적이 있다. 서울호는 바람에 휘날리는 잎사귀같이 춤을 추었다. 기관장 아저씨는 기어가다 폴짝 뛰고 비틀거리며 움직였다. 아버지는 몸을 가죽 끈으로 의자에 꽂 묶어둔 상태였다. 땀과 피와 헉헉거리는 숨이 뒤범벅되었다. 폭우 소리에 귀가 먹먹해 지고 의식조차 멍해졌다. 땀방울인지 포말인지 찌디짤 물기를 헛바닥으로 감아 넣었다. 꼬박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살인적인 태풍에 밀려 목포와 동떨어진 지점에 다다랐다. 지나가는 배의 도움을 받았다. 쿵쿵 배 꿈무늬에서 바닷물이 울컥 차내졌다. 저 광대하고 고집스럽기만 한 바다는 투쟁의 터전이었다.

부두 너머로 수줍은 듯이 고만고만한 슬레이트집들이 바다를 향해 엮드린 양지 바지에 ‘우체국’이 대궐처럼 들어섰다. 해 질 무렵 불그스름히 물들이는 해를 받아 나무 기둥이 오흘하니 솟아올랐다. 산다는 것은 푸른빛으로 철갑을 두른 바닷가 우체국에서 객지에 있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고 송금하는 것이었다. 객지에 있는 자식들은 고향으로 소포를 보내고 전보를 띄웠다. 아담과 이브가 오래전에 쫓겨났다가 되돌아온 에덴동산이었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여자가 배를 타면 재수 없다는 구태를 답습하고 있었다. 미신과 속설로 바다를 천시하고 뱃사람을 업신여겼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바다가 잔잔한 날이면 어린 나를 배에 태웠다. 선진 해양국에서는 여자항해사는 물론 통신사나 기관사까지 말아 당당하게 승무하고 있다고 목에 힘주어 말했다. 저 수평선 너머 어딘가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고 필리핀이 있다고 설명해주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우리 사이 머나먼 거리를 이어주는 것이 바다라 했다. 땅은 넓은 것 같으나 좁고 바다는 끝없이 넓다고 말했다. 두 오빠와 내가 도시에서 학교를

다 마치기까지 풍성한 곳간이라 했다.

아테네는 살라미스 해전에서 승리한 후 찬란한 헬레니즘 문화를 꽃피웠다. 백이십 명의 청교도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메이플라워호란 목선을 타고 시속 이마일로 항해답지 않은 항해를 시작했다. 바다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청교도주의의 어둠이 깨어질 수 있었을까. 바다를 제패한 민족은 융성하고 바다를 잃은 민족은 쇠약해졌다. 스페인이나 영국이나 네덜란드 흥망 성쇠가 모두 그러했다. 육당(六堂) 최남선 선생도 ‘젊은이여, 바다로 나가는 길만이 우리나라가 살길임을 명심하라’ 당부하지 않았던가. 국토도 좁고 자원마저 빈약한 우리는 수많은 충돌 상황에서도 굽힘이 없고 막힘이 없는 바다로 나아가야 한다. 토론과 합의가 없어도 앞으로만 나아가는 바다로 나아가야 한다.

불섬항에 가면 아버지의 품으로 회귀하는 혼곤한 꿈에 젖는다. 고단하고 서글픈 나를 포근히 품어주는 아늑한 물의 동굴이 되어 반짝인다. 서울 변두리에 살면서 어느 날 검게 그을어 버린 내 생(生)의 단편을 들고 문득 찾아가면 무표정하나 냉정하지 않은 아버지의 내면 같다. 바다 빛이 고운 타인지도 모른다. 해당화가 피같이 피어나는 기후 타인지도 모른다.

한때 항해사가 꿈이었던 열일곱 살의 나를 위해 나는 화물선 한 척 사고 싶다. 불섬항을 출항하여 목포항을 거쳐 강원도 주문진항까지 길고 황량한 뱃고동을 울리며 항해해 가고 싶다.

바다와 어부

제4회 등대문학상 우수상 / 수필

조 수 산(경북 경산시)



바다가 그르렁거린다. 헤드라이트를 비추며 포구로 들어오는 어선의 낡은 뱃고동 소리다. 풍랑에 시달리다 집으로 돌아오는 배들이 알리는 무사기환의 고함일까. 풍어를 기원하며 대나무 가지를 꽃은 뱃머리에 안도의 한숨이 사뿐 얹어져 있다. 바다에서 건진 전리품을 하나둘씩 풀어놓으면 바닷가 작은 포구는 물고기비늘 같은 생기로 출렁인다.

본격적인 멸치털이가 시작되려는 모양이다. 흥명호 선원들의 손길이 바쁘다. 배가 항구에 정박하자마자 받침그물을 내려 배와 부두 사이에 펼쳐 놓는다. 바닷물에 반쯤 잠긴 밑 그물이 자리를 잡으면 이번에는 갑판 위에 산처럼 쌓인 그물을 끌어내린다. 구멍이 촘촘한 그물에는 어른 손가락 굵기만 한 멸치가 뽁뽁이 머리를 박고 있다.

이른 봄의 바다는 온통 은빛으로 반짝거린다. 먼 바다에서 겨울을 보냈다가 연안으로 돌아오는 멸치 떼가 수면 바로 아래에서 유영하기 때문이다. 바다 속에는 어부들이 던져놓은 그물이 긴 수건처럼 펼쳐져 있다. 수백 개의 섬 사이를 빠르게 흘러가는 조류를 타고 다니던 멸치는 그대로 그물에 쫓힌다. 그물을 잡아당기면 울창한 바다 숲이 줄줄이 끌려온다. 수천수만 개의 이파리가 꼬리를 파르르 떨며 주렁주렁 매달려있는 것이다.

흥명호 선장인 이모부는 봄철 한 때 바짝 멸치 어장을 찾아 헤맸다. 벨을 울려 멸치 떼를 발견했다는 신호를 보내면 어부들은 길이가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그물

을 조류 속에 차곡차곡 흘려보낸다. 부표가 달린 그물의 밑에는 묵직한 봉돌이 달려 있어 그물이 수직으로 설 수 있게 잡아준다. 그물이 바다에 잠긴 모습은 억척스런 어부의 삶과 다를 바가 없다. 조류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바다의 힘줄이 하얗게 불거지도록 안간힘을 쓴다.

이모부는 처음부터 배를 탄 것이 아니었다. 조선소에서 배를 설계했다. 무슨 일인지 배 만드는 일을 그만 둔 후에는 직접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 하지만 힘든 일이 많았다. 지금이야 첨단화된 레이더장치로 어장을 찾아내지만 처음에는 직접 해도를 보며 배를 탔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목숨을 잃어버릴 뻔 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겉보기에 편평해보여도 남쪽의 바다에는 여러 무더기의 섬이 가라앉아있다. 산맥도 있고 골짜기도 있다. 안개 속에서 울퉁불퉁한 암초에 배가 걸터앉으면 배는 꼼짝없이 막막한 바다에 갇힌다. 배의 기계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정처 없이 해류에 떠밀려간 경우도 있었다. 바람이 불면 지아비 걱정애 바다만 바라보는 것이 어부의 아내가 아니던가. 그때마다 이모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뱃사람을 만난 것은 운명이었제…….”

이모의 몸속에 멀치처럼 어쩔 수 없는 회귀본능 같은 것이 숨어있었던 모양이다. 우리 집 식구를 따라 도시로 나왔던 이모는 혼기가 짝 차자 고향의 바닷가로 돌아가 버렸다. 희멀건 도시 사내대신 구릿빛 피부의 어부를 남편으로 맞이한 것이다. 어촌에서의 삶은 만만치 않았다. 무엇보다 목숨을 담보로 배를 모는 이모부의 안전이 제일 큰 걱정이었다.

바다로 떠다니는 이모부가 이제는 육지에 뿌리를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을까. 얼마 전부터 이모가 근처 선박수리단지에서 선박에 페인트칠하는 일을 배운다는 것을 귀뜸으로 들었다. 남자도 하기 힘든 일이었다. 바다에 드리운 그물처럼 육지에서도 묵묵히 삶의 길을 내는 듯했다. 여럿여럿하던 이모가 억척스러운 어부의 아내가 되어간다는 생각에 가슴이 울컥했다.

이모에게 뒤질세라. 바지런한 이모부는 먼동이 트기도 전에 뱃고동을 울리며 바다로 나간다. 눈꺼풀에 내려앉는 고단한 삶의 무게는 고개를 흔들어 힘차게 떨

쳐낸다. 힘들게 던진 그물이 비어있는 채로 올라와도 포기하지 않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다시 그물을 던졌다. 그러면 바다도 있는 요량껏 고기를 내어준다.

뺏속부터 바다사람이 될 유전인자를 타고 났나 보다. 거둬되는 시련에 다시는 배를 안 타야지하고 마음먹다가도 이튿날이면 어김없이 다시 키를 잡는 이모부는 어김없이 바다사나이다. 해풍을 맞아 검게 거슬린 얼굴에서 풍량을 이겨낸 들끓는 바다 냄새가 난다. 그런 이모부를 묵묵히 배웅하며 무사안일을 기원하는 이모는 바다의 망부석일 것이다.

바다가 무섭다고 하면서도 바다를 가장 가까이에서 하고 사는 것을 보면 이제 바다와 한 몸이 된 게 아닌가 싶다. 바다가 내어준 만큼 거둬들이는 삶은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아등바등하는 이들에게 묵직한 물음표를 던져준다. 이모부부도 한 때 망망대해에 표류했던 적이 있다. 근래 어획량이 부쩍 줄어들었던 탓이었다. 더 많은 고기를 탐내어 풍량이 치는 바다에도 나갔지만 허탕을 치기 일쑤였다. 기름 값도 못 건지다보니 며칠 째 닻을 내리고 있는 날도 있었다.

물고기 대신 조난을 당한 어부의 시신이 그물에 걸려온 이후부터 이모부의 수심은 더욱 깊어졌다. 바다로 나갔던 배는 비어있는 채로 돌아오면 한껏 부풀어 올랐던 어부들의 어깨도 무겁게 처진다. 그런 날의 이모는 가슴을 누르며 부둣가에 앉아 찢어지거나 구멍이 난 그물을 손질했다. 부둣가에 그물을 내려놓고 한 코 한 코 정성들여 그물을 깎는 것은 바다를 대하는 아내의 마음이었다.

저어도저어도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서 깊은 해저로 가라앉을 때 날것으로 말을 걸어오는 이는 다름 아닌 바다다. 바다의 모퉁이는 유난히 조류가 세다. 난류와 한류가 만나 급격한 물살을 만들기 때문이다. 삶의 파도에 휩쓸려 아등바등하던 삶도 최선을 다하다보면 어느 순간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온다. 이모부부도 얹어지고 깨어지며 참고 견디다보니 젓갈처럼 곱삭아져 갔으리라.

가만 생각해보면 그물을 던지는 일은 우리네 살아가는 모습과 다를 바 없는 듯하다. 만선일 때도 있지만 빈 배일 때가 더 많다. 만선이 되었다고 해서 삶이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 잡는 것보다 몇 배로 고된 멸치 터는 작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어찌면 삶은 고난의 반복이지만 역경을 이겨내는 데 아름다움이 있는 것

은 아닐까. 그렇기에 맥이 빠진 다음 날도 어부들은 뱃머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어김없이 넓고 넓은 삶의 바다에 그물을 드리운다.

홍명호의 멸치털이는 밤이 이슬하도록 끝이 날 줄을 모른다. 바다를 떠나 살 수없는 숙명을 지닌 어부들이 도리깨질을 하듯 털어내는 것은 멸치가 아니라 삶의 꺼풀이 아닐까 싶다. 흥얼거리는 노동요 속에 어깨를 짓누르던 부산물은 다 떨어져나가고 싱싱한 살만 남아 짭조름하게 소금에 절여진다. 그 옆을 바지런한 이모는 부지런히 멸치를 주워 담는다.

바다를 배경으로 살아가는 이모 부부를 가만히 살펴보다가 항구를 슬며시 빠져나온다. 내가 모르는 바다에서의 삶. 그 험한 삶의 한 모퉁이나마 살짝 엿본 것 같다. 가슴이 싸하다. 문득 뒤돌아보니 그물이 한번 출렁일 때마다 텀블링을 하듯 봄밤이 튀어 오르고 있다.







시



간절곳의 등대

제4회 등대문학상 가작 / 시
조 경 섭(전북 완주군)



1.

동해의 명치끝에 간짓대 자리가 있다

낮달이 발광기 안으로 빨려들어 간 어스름 녘
사내는 노을이 휘도는 나선형 계단을 오른다
등명기에 덮인 무명천을 걷어낸 후
급물살 타는 곳까지 빛의 경계를 구획하기 위해
손때 묻은 향로표지를 펼친다

물의 절해고도 넘어오는 빗고동소리 따라
불쑥불쑥 나타나는 해무(海霧)가 불안을 가중시킬 때도
얇게 퇴적되는 파도의 숨소리조차 놓친 적이 없다
어떤 배들은 어창 속에
별자리와 연결된 허공을 훑쳐 달아나려 했지만
사내의 정교한 탐색에 걸려들었다
수명을 다해가는 반딧불이 빛까지도 재생해서 쓰는
그는 빛의 명인
파도 속에 터지지 않은 번개를 숨겨놓아도
점멸의 발원지인 자신의 등대에서 지정된 향로만을 터준다

2.

그 옛날 고래를 쫓던 포경선이

이곳의 횃불 수신호에 따라 태평양으로 월경하고 돌아와
닿을 수 없는 불모지를 해도(海圖)에 그려 넣었을 것이다
간절곳 앞바다에

1백80만 캔들의 불빛이 90해리 밖까지 비추는 지금,
멀리 유조선이 지나가고 컨테이너선이 뒤따른다
등대 안에서 사라지는 항로는 항시 비장했고
잠 속까지 깨어있는 사내는
낮익은 바다 위로 하늘 성좌를 풀어헤친다

3.

키를리안 사진기*처럼

우문(愚問)의 바닷속에서 현답(賢答)의 뱃길을 찾아내는 등대
어둠의 한복판으로 날아든 사내가
물과 허공만 그려 넣은 해도를 펼치고
퇴색하지 않는 야광으로 바다를 단단히 고정한다

어둠을 파고들어 빛을 꺼내는 간절곳에서는
수만의 반딧불이가 젖은 날개를 털고 있다

*빛이나 파장을 촬영하는 장치.

철렁, 푸른 치맛자락 휘날리고


제4회 등대문학상 가작 / 시
박지한(부산광역시)



출렁이는 해 조각을 건져 올리고
불면의 닻을 올린다
쏟아지는 아가미들 뒷 편에 필력이는 도도한 물길

한 낮 땡벌에 와 닿는
저 밧줄의 원치 감아올리고
밤새 지새웠던
불멸의 포세이돈이여, 길을 열어라

지난 염병할 그리움에다가
낙담마저 전신되는 쇠빙선의 침몰, 풍문에
자흔 따윈 백파白波에 내던지고
저 단단한 선수船首를 겨냥하여
강건한 깃대에도 나는 서툴게 튕겨났다
분분한 어깨에, 멈출 수 없는
고독보다 깊은 여름밤이 낮설어졌고
저 멀리 낮게 부상하는 용오름,
황량한 곳을 헤치고
원양의 발목을 탕진한다,

A large flock of seagulls is seen from the perspective of someone on a boat. The birds are in various stages of flight, with some wings spread wide, others tucked. They are scattered across the sky and the dark blue water. The water shows white foam from the boat's wake. In the distance, a low, hilly coastline is visible under a clear blue sky. The overall scene is dynamic and captures a moment of intense natural activity.

달아나는 새떼들, 붉게 차오르고
긴박했던 순간을
연체하는 팽팽한 피로 속에

수백만 톤의 해무를 가르며
씻덩이 철렁, 푸른 치맛자락 휘날린다.

낙지의 생애 또는 슬픔에

제4회 등대문학상 가작 / 시
전 길 중(전북 전주시)



1.

덥석 물은 주낙에 꿰어 몸부림치는
타우린의 슬픔이 소주 한 잔에 젖을 때
위로할 어떤 변명의 말을 찾지 못했다
우리는 우수와 낭만을 얘기하며 웃었고
그런 날은 비가 내렸다
너는 본능적으로 흠반을 밀착시켜 버둥됐지만
꼬들꼬들한 질감을 용서받지 못했다

2.

일각의 목숨이 날 선 칼에 저항한다
핏물 배인 도마에서 통통 튀는 울음으로
아무리 외쳐대도 푸른 바다는 오지 않았다
부풀어 터질 것 같은 고독이 핏줄을 타고
맥없이 빠져나간다
새끼들 위해 제 몸 내놓는 알레고리가
질근질근 씹힌다
별을 키우던 갯벌이 가물가물하다

3.

역류성 식도염을 앓는 바다가
태풍이 물어온 소식에 잠을 설친다
불길한 예감이 갯벌을 덮는다
어둠을 젖는 가늘고 긴 손의 춤사위를
해석하려 한 것이 참으로 어리석었다
발가벗은 행위예술가의 슬픔이 배어있다고
목숨을 건 마지막 걸작품이었다고
새삼스레 수선 떨고 싶지 않다





소설



파리판

제4회 등대문학상 작가 / 소설

남 명 희(서울특별시)



밀빠를 멘 어깨가 아렸다. 항로표지선이 부러놓고 간 짐들을 휘둘러보았다. 언덕 위의 창고까지 세 번이나 오르내렸지만 선착장에는 아직도 꽤 많은 물품들이 널브러져 있다. 발전기용 기름 3통, 시멘트 한 포대, 식료품과 생필품이 든 박스 몇 개, 우편물 뭉치, 그리고 여자의 옷이 든 백화점 포장상자까지. 두세 번은 더 언덕 길을 오갈 생각을 하니 갑자기 목이 마르고 허기가 몰려왔다. 작대기로 지게를 버티어 놓은 채 잠시 땀을 식혔다. 그때 언덕길 위쪽에서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들어 쳐다보았다. 여자가 언덕을 달려 내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주문한 물건이 오는 날엔 꼭 선착장으로 나왔다. 여자는 나에게 손을 흔들어 보인 후, 옷상자와 우편물 뭉치를 들고 켜걸음으로 가파른 언덕길을 다시 올라갔다.

표지선의 밧줄을 묶었던 정박용 말뚝에 앉아 여자가 주고 간 샌드위치를 먹으며 생각했다. 내가 왜 여기에 있을까. 아무런 연고도 없는 어설픈 이곳에 왜 왔지? 그러자 지나간 세월이 얼마나 되는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았다. 그동안 내게 무슨 일이 있었던가. 생각할수록 머릿속은 더욱 흐릿할 뿐이다. 그동안 내가 이룬 건 하나도 없다. 삶의 벼랑에서 마지막 잡은 일자리는 대형마트의 임시직 배달원이었다. 희분하게 하늘이 밝아올 즈음 집을 나가서 밤늦도록 배달 일을 하였지만 어머니 약값을 대며 두 사람이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게다가 벌이도 벌이었지만 가장 큰 불안은 ‘해고’였다. 끄떡하면 인원을 줄일 거라는 소문이 돌았다. 어

느 날 ‘계약직 해약통보서’가 날아왔다. 연말까지의 계약기간은 채울 줄 알았다. 나는, 노조활동을 해서 보복하는 거냐며 회사 측에 항의도 해보았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었다는 대답만 되돌아왔다. 사위를 휘둘러보았다. 내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밖에 없다면 농성장으로 등을 떠밀던 노조간부들도, 내가 자기들의 ‘등대’라고 부추기며 끝까지 함께 싸우자던 노조원들도 없었다.

어머니가 뇌진탕으로 쓰러졌다는 통보를 받은 건 바로 그 즈음이었다. 양로원 원장의 말로는 어머니가 계단에서 굴러 의식을 잃은 후 깨어나지 못했다고 했다. 내가 달려갔을 때는 이미 어머니 시신은 냉동고 안에 있었다.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살지? 어릴 적에 어머니 손을 잡고 밤길을 가다 무서워서 한 말이 떠올랐다. 난 네 엄마야. 죽지 않아. 언제나 네 곁에서 지켜줄 거야. 그랬던 어머니가 차가운 관 속에 누워 있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에도 수의 한 벌 마련해주지 못했다. 결국 어머니가 입었던 낡은 옷으로 시신을 덮어 화장장으로 갔다. 문득 썰물처럼 모든 것이 내 곁을 떠나버렸을 때, 나도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었다. 현실로부터, 아픈 기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시간이 모든 걸 잊게 해 줄 테니까. PC방에 쳐 박혀 미친 듯이 인터넷을 뒤졌다. 마침내, ‘등대관리원’ 특별 채용 광고를 찾아냈다. 근무지는 남해의 외딴섬이었다. 계약기간 중에는 섬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조건이 있었다. 근무조건은 좀 별로였지만 외딴섬의 ‘등대관리원’에 왠지 마음이 끌렸다. 항로표지기능사, 기계정비기능사, 전기기능사 등의 자격증을 한 개 이상 가진 남자를 우선 선발한다고 했다. 마침 군대에 있을 때 판 기계정비기능사 자격증이 있어 지원서를 냈다. 그리고 나는 마흔의 나이에 남해의 외딴섬 자라도의 등대지기가 되었다. 비록 1년 계약직이긴 했지만.

점심은 일 끝내고 드실 거죠? 우럭매운탕 준비할 게요. 귤전에 맴도는 여자의 말을 떠올리며 샌드위치를 마저 먹고는 말뚝에서 일어났다. 지게를 지고 가며 자라도를 떠날 날짜를 속으로 훑아보았다. 정확하게 한 달 남았다. 유월의 따가운 햇살이 눈을 찔렀다. 땀병에 노출된 목덜미와 팔뚝이 핫핫, 타는 듯했다. 그렇더라도 선착장에 널브러진 짐을 옮길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등대 옆 창고까지 3백여 미

터의 비탈진 그 길은 수도 없이 오고 간 길이었다. 눈을 감아도 훤히 알 정도로 발바닥에 새겨진 길이다. 그럼에도 처음 오르는 길인 듯, 줄곧 바닥만 보고 걸었다. 어찌면 길 위의 풀꽃 한 송이, 작은 돌멩이 하나 까지도 낱알이 기억으로 새겨두고 싶은 까닭인지도 몰랐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희한하다. 떠나고 나면 다시는 힘들게 지낸 자라도 쪽을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은 심정인데도 말이다.

해를 가리던 솔숲을 지나자 한낮의 햇볕이 더욱 짙었다. 지게의 등태에 땀이 배어 등허리로 흘러내렸다. 짐을 진 다리가 가늘게 떨렸다. 순간 어머니가 손을 떨며 하던 말이 떠올랐다. 아아, 손이 왜 이렇게 떨리지. 나, 뜨개 이쁘게 뒀었는데……. 어느 날 뜨개질을 하던 어머니가 한숨이 섞인 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뜨개질은 말릴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새벽, 나를 부르는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벌떡 일어나 달려갔다. 어머니의 엄지손가락 끝에 새끼방울토마토 같은 핏방울이 불글불글 맺혔다. 어머니 무릎 위에 구릿빛 코바늘 두 개가 보였다. 떨리는 손으로 뜨개를 하다 찢린 모양이다. 상처부위에 연고를 바르고 손가락을 일회용 밴드로 감쌌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위에 스카치테이프를 둘둘 말고 뜨개질을 계속했다. 나는 어머니에게 이제 그만하라고 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손뜨개라도 해야 마음이 평화롭다고 했다. 방석과 소파 덮개와 테이블 깔개도 뒀고, 방 창문에도 뜨개로 커튼을 만들어 달았다. 집안은 어머니의 계속된 손놀림에 레이스뜨개로 덮여갔다. 아니, 온통 등대로 가득 채워졌다는 말이 맞을 것이다. 뜨개에는 어느 것 하나 등대가 들어있지 않은 게 없었으니까. 하얀색 등대는 물론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등 별의별 색깔의 등대가 다 있었다. 내가 왜 등대만 뜨는지 알아? 사람은 마음속에 나름의 등대 하나씩은 가지고 살아야 하는 법이야. 그래야 사람 구실할 수 있어. 그러면서 등대만 뜨는 어머니는 점차 등대처럼 늙아갔다. 머리는 드문드문 술이 빠지고 흰 머리칼이 늘었다. 마치 군데군데 칠이 벗겨진 자라도 등대처럼.

언덕길 한쪽에 잠시 멈추어 섰다.

소매로 이마의 땀을 훔치며 등대를 올려다보았다. 표지선을 타고 자라도에 처

음 오던 날, 언덕 위의 하얀 건축물을 발견한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뭘 잘못 본 것인가, 하며, 내가 상상했던 대성당의 종탑처럼 높이 치솟은 등대가 아니었다. 커다란 항아리 세 개를 포개서 올려놓은 것 같은 투박하고 촌스럽고 볼품이 없는 구조물이었다. 그래도 나는 그것은 ‘새하얀 등대’였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때 이른 무더위에 목이 탔다. 그래도 등대로 가는 길을 멈출 수는 없었다. 짐을 진 등줄기에 땀이 흘렀다. 한 발 한 발 지겟작대기를 짊으며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발등으로 떨어졌다. 아픈 기억을 잊으려고, 삶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지난 일 년 간 무던히 애를 쓰며 일했다. 등롱에 올라서면 속옷이 후줄근하게 젖었다. 빛을 뿜어내는 등명기가 있는 등롱까지는 나선형의 좁은 계단이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그곳을 올라 다녔다. 끝이 보이지 않는 2백여 개의 계단을 올라다보기만 해도 현기증이 일 정도로 아찔했다. 폭이 60센티미터 정도인 철제 계단은 위로 갈수록 점점 좁아졌다. 달팽이관처럼 생긴 철제계단을 한참동안 뱅글뱅글 돌아서 오르면 어질어질하고 이마와 등줄기에 땀이 맺혔다. 나선형의 철제계단이 끝나는 층계참에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작은 공간이 있다. 해도가 깔려있는 책상과 접이식 간이침대, 그리고 등대 관리에 필요한 서류나 소소한 공구들을 넣어둔 곳이다. 또한 야간에 여자가 불침번을 서는 곳이기도 하다. 나는 그곳에서 등대일지나 기상자료 같은 걸 작성했다. 한마디로 작은 다목적 사무실이다. 거기서 다시 십여 칸의 수직사다리를 한 칸 한 칸 힘들여 밟고 올라야 등롱이다. 등산을 할 때도 마지막 깔딱 고개를 넘어야 정상에 오를 수 있듯이 말이다. 정말이지 등롱에 올라가는 건 웬만한 산 하나를 정복하는 것과 같은 기분이었다.

무엇보다 ‘새똥’ 청소는 나를 더욱 지치게 했다. 여자는 파리판에 붙은 갈매기, 바다제비, 습새, 바다쇠오리 따위 바닷새들의 배설물 청소에 유난히 신경을 썼다.

“새똥은 반드시 굳기 전에 닦아내야 해요. 새똥 속의 조개가루나 모래 같은 것으로 파리판에 기스가 날 수 있어요. 그럼 등명기의 섬광이 잘 투과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면 그녀는 언제나 등명기를 둘러싸고 있는 커다란 유리창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게 파리판이니 조심해 다루라는 듯. 그녀는 파리판에 묻은 새똥을 직접

닭아 보이며 청소하는 요령도 꼼꼼하게 설명해주었다.

“먼저 새통을 이렇게 물로 서서히 불려요. 그리고 나서 물걸레로 닦은 다음, 살살 마른걸레질을 하며 깨끗하게 닦아내야 해요.”

나는 그녀가 가르쳐준 대로 파리판을 닦았다. 파리판에 새통이 없는 날에도 파리판을 닦았다. 자라도에는 염분이 많은 해무가 자주 끼었다. 그래서 파리판이 흐려지지 않게 자주 닦아주어야 했다. 파리판을 닦으려면 한 사람이 겨우 설 수 있는 창밖의 좁은 회랑에서 사다리를 걸쳐놓고 작업을 해야만 했다. 회랑 아래로는 끝을 알 수 없는 시커먼 바다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나는 매번 천길 낭떠러지위에서 곡예를 하듯 파리판을 닦았다. 만일 다시 태어난대도 파리판 닦는 일만은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끓여놓은 우럭매운탕으로 점심을 때우고 막 숙소를 나오던 참이었다.

“언제 갈 거예요?”

여자가 다가와 느닷없이 물었다.

“한 달 후예요.”

나는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을 떠올리며 대답했다.

“아니, 산책 나가는 거 말예요. 약속했잖아요. 새 옷이 오는 날 가기로.”

“아참, 그랬던가요.”

나는 그녀와의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언젠가 그녀가 소풍 얘기를 꺼내기에 자라도를 떠나기 전에 한번 섬을 둘러보는 것도 괜찮을 듯해서 수락한 것이었다. 그리고 보니 그동안 등대 일에 빠져 한가로이 섬 나들이를 한 기억이 없었다. 여자는 첫날부터 등대 일을 하나하나 자상하게 가르쳐주었다. 3개월쯤 지났을 즈음이었다. 그때부터 나 혼자서도 등대 일을 실수하지 않고 척척 해낼 수 있을 만큼 익숙해졌다. 등대 일을 가르쳐준 그녀를 나는 늘 감사히 여겼다.

“그럼 지금 가요.”

“어디로 가는 거죠?”

내가 물었다.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옷 어때요?”

가슴이 깊게 파인 붉은 장밋빛 원피스였다. 조금하게 들썩거리는 걸 보니 새 옷을 입고 산책하기를 단단히 버른 것 같았다.

내가 자라도에 와서 여자를 처음 만난 날에도 그녀는 빨간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여자는 커다란 눈을 깜빡이며 손을 내밀었다. 눈이 커서 얼굴에는 눈만 보였다. 악수를 하는 그녀의 손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피부는 짙은 갈색으로 그을려 있었다. 까맣게 탄 동그란 얼굴은 그저 그랬지만 나보다 키가 큰 그녀의 몸매는 정말 끝내줬다.

“그동안 혼자서 등대 일을 하느라 힘들었어요. 잘 부탁해요.”

“아니, 등대 일을 혼자서요?”

나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특별한 여자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거예요. 등대는 당신이 필요해요. 웬지 아버지를 닮은 당신이 든든하게 느껴져요.”

“내가 마음에 든다는 말이죠? 다행입니다. 염려 말아요. 열심히 일할 테니.”

나는 등대관리원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일단 호기를 보이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녀는 재작년에 자라도 향로표지관리원이 되었다고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향로표지기사 자격증을 딴 그녀는, 졸업 3년 만에 어엿한 공무원이 된 것이다. 학교는 여수에서 하숙을 하며 다녔다고 했다. 얼핏 계산해보면 여자는 나보다 대략 스무 살 쯤 아래일 듯싶었다. 평생 외딴섬 등대를 움시레기 보듬고 살아온 여자의 아버지는 그녀가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녀는 극구 혼자인 아버지와 함께 등대를 지키겠다고 우겼다고 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기름통을 지고 나르다 넘어져 허리를 심하게 다친 후 요추에 염증이 도졌다. 제때 치료만 받았어도 암으로 악화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했다. 인터넷에 자신을 보조할 등대원 모집공고가 뜬 건 그녀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거의 일년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어쩐 일인지 후임 등대원의 충원이 늦어지면서 그동안 혼자서 일했다고 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어머니의 죽음을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

다. 일곱 살 즈음이었다. 그녀가 어머니를 따라 통영으로 나갔다가 사고를 당한 게. 여객선조차 다니지 않는 자라도의 주민들에게는 한 달에 한 번 생필품과 식료품 등을 조달해주는 항로표지선이 외부와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이었다. 그런데 그날, 마침 낚시꾼을 물으로 태워다주고 자라도로 돌아가는 빈 통통배가 있어 그걸 얻어 타고 오다 너울성 파도에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어머니는 실종되고 자신만 간신히 구출되었다고 했다.

두 사람은 소금기가 뵈 해안의 벼랑길을 걸었다.

여자가 앞서고 나는 조금 뒤로 처져서 쫓아갔다. 여자의 큰 키와 보디라인은 완벽하고 섹시했다. 나는 여자의 흔들리는 히프를 힐긋거리며 걸었다. 벼랑이 보이자 여자는 어서 따라오라고 손짓을 했다. 여자가 벼랑 꼭대기로 올라가 섰다. 그리고는 나는 등대다, 라고 바다를 향해 소리쳤다. 갑작스런 그녀의 행동에 피식 웃음이 나왔다. 그녀를 보면 웬지 마음이 가벼웠다.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려웠다. 나는 그녀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다. 큰 눈을 가진 그녀가 어린아이처럼 아무 때나 꾸밈없이 잘 웃는다는 것, 그리고 함께 있으면 내 가슴속에 뭔가 새로운 힘이 솟게 한다는 것 외에는. 열은 재색으로 바뀐 바다에 작은 파도가 일고 있었다. 밀려온 파도가 부딪히며 그녀가 서있는 벼랑 위까지 물방울이 솟구쳤다. 흩어지는 잔물방울이 그녀의 치맛자락을 적셨다.

“저기 봐요. 내가 좋아하는 쌍바위예요. 마주보고 있는 바위가 꼭 연인들 같아요.”

여자가 바다 위로 솟은 바위를 가리키며 말했다. 동해안에서 보았던 촛대바위만한 큰 바위 두 개가 마주보고 있었다.

“그렇게 벼랑 위에 서있으니 꼭 등대 같아요.”

내 목소리가 바닷바람에 흩어졌다. 높은 벼랑 위의 여자는 영락없는 하나의 등대였다. 빨간 등대! 무심코 보았던 등대의 색깔에 대해 언젠가 그녀가 말해주었다. 자라도 등대처럼 멀리서도 잘 보이는 높은 곳의 등대는 흰색을 칠해요. 또 해면과 가까운 방파제에는 배가 항구로 들어갈 때 조심하라는 표시로 빨간색, 녹색, 혹은

노란색 등대를 세워요. 음, 그러니까 색깔에 따라 배들이 너무 가까이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도 있고, 좌나 우로 방향을 꺾으라는 신호를 해주는 것도 있어요. 그녀의 말을 떠올리며 나는 어머니가 뜨개질한 온갖 색깔의 등대가 박힌 레이스뜨 개를 기억해냈다.

벼랑에서 내려온 여자는 다시 경중경중 앞서 걸어갔다. 무슨 즐거운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경쾌하게 히프를 흔들며, 벼랑길이 끝났을 즈음에 언덕이 나타났다. 경사가 완만한 언덕길을 잠시 오르자 쌍바위가 바로 눈 아래 있다. 둔덕 공터에 드문드문 폐가가 보였다. 농사를 짓다 버려둔 땅패기도 불쌍사납게 파헤쳐진 채 내버려두었다. 공터 한쪽에 외딴초가집 한 채가 있다. 집 주위에 조릿대 군락이 담장처럼 무성하다. 여자는 섬사람들에게 들었다며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조선왕조 초기에 있었던 일이었다. 한때 고려를 지배했던 원나라의 마지막 세력이 제주도에 남아 끝까지 버티자 한양에서 내려온 최영장군이 그들을 모두 토벌했다. 그런데 당시 일부 도망친 원나라 군사가 이 섬에 와서 살았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섬 곳곳에 가축을 방목하거나 고구마 등을 재배한 흔적이 여러 곳에 있다고 했다. 믿을 수는 없었지만 원나라의 패잔병들이 은거했던 섬이라는 말에 나는 다소 놀랐다. 그러나 그런 역사적 사실에는 별로 흥미가 없었다. 초가집 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게 더 궁금했다. 나는 성큼 봉당에 올라섰다. 방 한 칸에 부엌 하나, 말 그대로 오두막집이었다. 활짝 열어놓은 문으로 침침한 방안이 들여다보였다. 방바닥에는 명석이 깔려있고 벽과 벽 사이에 대나무 헛대가 걸려있다. 테두리가 말쑥한 명석이며 가족사진이 담겼을 액자가 걸렸던 벽의 자국을 둘러보며 얼마 전까지도 사람이 살았던 체취를 느낄 수 있었다. 그 집에 살았을 사람을 상상하며 방안으로 들어가 털썩 명석 위에 앉았다. 뒤꼍에서 들리는 조릿대 숲을 통과하는 바람소리가 환상적이다. 꼭 풍금소리가 들리는 시골성당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다. 잠깐 다리도 쉴 겸 그녀와 얘기를 나누고 싶었다.

“이리 들어와 봐요. 아늑하고 좋아요.”

나는 그녀에게 방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다. 그러나 그녀는 마당에 쪼그려 앉아 풀뿌리만 애꿎게 잡아당기고 있었다. 내가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한 양 능

청을 떠는 것 같기도 했다. 바람소리가 꼭 음악 같아요. 어서 와 봐요. 나는 아까보다 더 큰 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그제야 그녀는 내 재촉에 마지못한 듯 일어나서 방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와 마주앉았으나 막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적절한 대화 주제를 생각해내려 고민을 하다 별수 없이 나는 그녀의 눈만 쳐다보았다. 눈물을 가득 담은 커다란 눈을 통해 그녀의 마음이 들여다보이는 것 같았다. 그 맑고 꾸밈없는 눈은 성적인 흥분마저 느끼게 했다.

‘여자도 남자를 안고 싶어 할까.’

뜨끔없이 왜 그런 상상을 했는지 나도 모를 일이었다. 아무튼 여자를 한 번도 사귀어본 적이 없는 나는 그것이 궁금했다. 그녀는 눈이 부신 듯 내 눈길을 피해 고개를 숙였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조릿대 숲을 지나는 바람소리가 부드러웠다. 조곤조곤 속삭이는 그녀의 목소리처럼. 잠시 후,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다시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그녀도 내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내가 자신의 눈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게 싫지 않은 표정이었다. 그녀의 얼굴이 발그레 달아오른 듯 보였다. 나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의 입술이 가볍게 떨렸다.

“말해도 돼요?”

“무슨 말인데요?”

“당신을 따라갈 거예요.”

여자는 내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억하고 있었다.

“안 돼요.”

“왜 안 되죠?”

“자라도에서 나가면 나도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리고 당신을 책임질 수 없어요. 난 나대로 살아갈 궁리를 하기도 힘들어요.”

“그래도 따라가겠어요. 당신이 믿음직하고 좋아요. 하지만 꼭 당신과 함께 살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바깥세상을 잘 몰라요. 그러니 그냥 어디든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여자는 커다란 눈을 깜빡이며 무작정 나와 함께 갈 거라고 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곁에 있겠다는 것과 함께 살겠다는 것이 뭐가 다른지 나도 헛갈려요. 당신이 말하는 뜻을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해 나와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지 않다는 것인지, 나와 함께 살겠다는 뜻이 아니란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아무튼 도대체 여기를 떠나려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가는 곳은 남들과 치열한 싸움을 벌이며 살아야하는 험난한 세상이란 말ियो.”

내 말에 여자의 호흡이 가빠지며 얼굴이 더욱 발갛게 달아올랐다. 나는 어떻게든 그녀를 진정시키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고집을 부렸다.

“여기보단 나올 거예요. 더는 등대 일을 못하겠어요. 자라도가 나에겐 지옥이에요. 숨이 막혀요. 나는 부모님처럼 자라도 귀신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아버지와 함께 등대를 지키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때는 그랬었지만……, 암튼 지금은 아니예요.”

“왜, 무엇 때문에 맘이 바뀐 거죠? 누군가는 자라도 등대를 지켜야 하잖아요!”

나는 마치 예상했던 것처럼 틈을 두지 않고 냅다 소리를 질렀다.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녀도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목청을 높였다. 큰 눈이 더욱 커보였다.

“여기를 떠나면 당신은 불행해져요. 말했듯이 바깥세상은 뭔가 더 좋은 일이 있겠지, 라는 막연한 동경이나 희망에 이끌려 갈 곳이 아니란 말예요.”

나는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말했다. 그러자 여자가 울먹이며 말했다.

“등대는……, 등대는 당신이 필요하단 말예요. 당신이 떠나면 난 아무 일도 못할 것 같아요.”

여자는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갑작스런 여자의 울음에 당황스러웠다. 어떻게 해야 할지 여자의 말에 대해 생각했다. 여자의 눈빛이 쓸쓸해보였다. 평생을 외딴섬에서 살아야하는 그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했다. 여자가 하는 일은 밤과 낮이 따로 없었다. 밤에는 등대를 지키고, 낮이면 등명기와 등탑 계단을 닦거나 숙소 청소와 빨래를 하고, 비가 오면 물탱크에 빗물까지 받아두었다. 나는 여자가 하는 모든 일에 보조자일 뿐인데도 하루 일이 끝나면 저녁을 먹는 것조차

귀찮을 정도로 까부라졌다. 생각하면 그녀가 울만도 했다. 일이 힘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외로움이 그녀를 더 힘들게 했을 것이다. 섬 밖의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나뭇잎에 매달린 이슬방울이 떨어지듯 드물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나에게 무언가를 애원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다. 그건 어머니가 죽었을 때 느꼈던 아픔과는 다른 특별한 종류의 아픔이었다. 어머니 주검 앞에서도 이토록 가슴이 저리지는 않았다. 나는 울고 있는 여자에게 손을 뻗어 살며시 어깨를 껴안았다. 그리고 그녀의 등을 가볍게 토닥여주며 말했다.

“당신의 앞날과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에요. 며칠 찬찬히 생각해보는 게 좋겠어요. 평생 등대를 지켜온 아버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말예요.”

적절한 말을 찾으려 애써보았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것밖에 생각나지 않았다. 오로지 그녀가 계속 등대지기로 남아있기를 바라면서. 물론 내가 칠순의 노모를 떠나보낼 때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그녀에게 얘기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런 얘기를 꺼내면 너무 이야기가 길어진다. 어깨를 들먹이며 우는 여자의 목덜미에서 얼핏 어머니 냄새가 맡아졌다.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어릴 적 어머니 품의 흐릿한 냄새를 기억해내자, 가여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진하게 밀려왔다. 수의도 없이 가엾게 죽은 어머니를 생각했다.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자꾸만 머리에 떠올라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다. 손이 떨리면서부터 어머니는 뜨개를 하다말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 남쪽 바닷가가 고향인 어머니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시렸다. 어머니는 늘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만 반복했다. 어머니가 끝까지 그 노래를 부르는 걸 들은 적이 없었다. 어머니의 손 떨림은 더욱 심해졌다. 어느 날 어머니는 느닷없이 나에게 이 개새끼만도 못한 녀석아, 당장 뉘져버려라, 라며 심한 욕설을 내뿜었다. 또 어떤 때는 전혀 처음 보는 사람 대하듯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라고 말하며 생글 생글 웃기도 했다. 왜 그러셨어요, 하고 나중에 물으니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어머니는 의사의 처방을 받고 약을 먹었지만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다.

손 떨림이 심해진 어머니는 손가락을 들면 고장 난 선풍기 날개처럼 손을 덜덜 떨며 음식물을 온 사방에 흘렸다. 손이 떨려서 혼자서는 옷을 입지도 못했다. 밤이

되어도 잠잘 생각을 하지 않고 방바닥에 웅크려 앉아 노래를 웅얼거렸다.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어머니는 자신이 죽고 나면 하나뿐인 자식을 누가 돌봐줄 거냐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노래를 불렀다. 내가 아홉 살이 되던 해, 트럭기사였던 아버지는 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아버지가 남겨놓은 건 집도, 돈도 아무 것도 없었다. 그 후, 어머니는 한평생을 나 하나만을 바라보며 고된 삶을 꾸려왔다. 혼자인 나는 가난했고 칠순의 어머니를 부양할 능력도 없었다. 궁리 끝에 어머니를 맡길 양로원을 알아보기로 했다. 인터넷을 검색하여 가톨릭사회복지단체에서 운영하는 무료양로시설 하나를 소개받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결단코 거기로 가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싫어, 싫단 말이야. 어머니는 어린애처럼 떼를 쓰며 울었다. 어디든 나와 떨어져서는 가지 않겠다고 했다. 나는 억지로 어머니를 양로시설에 밀어 넣었다.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나마 옆에서 보살펴 주는 사람들이 있고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라 위안이 되었다. 3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20여명의 노인들이 한 식구처럼 모여 사는 곳이었다. 원장수녀와 자원봉사자 네댓 명이 그들을 돌보며 함께 생활했다. 하지만 계속 문제가 생겼다. 주무시다 침대에서 떨어져 팔목을 다치셨어요. 봉사자의 전화를 받고서도 곧바로 달려갈 수 없었다. 일손이 팔려 보호자가 와서 돌봐드려야 한다는 말에도 배달원 일을 뺄게치고 갈 수는 없었다. 한 번 가면 하루 이틀도 아닐 터였다. 낯선 곳이고 익숙하지 않은 침대생활이라 그러려니 하는 수밖에 어쩔 도리가 없었다. 또 언젠가는 어머니가 몽유병환자처럼 밤낮가리지 않고 알 수 없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양로원 주위를 배회한다는 문자를 받았을 때는 정말 내 가슴이 예리한 칼날로 자르는 것처럼 아팠다. 분명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를 수없이 웅얼대며 나를 찾아 두리번거렸을 것이었다. 어머니의 아픔과 외로움이 뿔속깊이 느껴졌다.

울음을 그친 후에도 여자는 상처 입은 비둘기처럼 내 품안에서 따듯하게,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조릿대 숲 사이로 바람이 웅웅 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꼭 닫히지 않은 방문이 삐그덕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쌌던 팔을 천천히 내렸다. 초가집을 나온 우리는 다시 해안가 벼랑길을 되돌아 걸었다. 조금 전

에 왔던 벼랑길이 처음 걷는 길인 듯 낯설게 느껴졌다. 여자와 나는, 소금기가 뱀 해안길을 냉랭하게 걸었다. 등대로 돌아올 때까지 그녀는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특히면 깔깔대던 그녀의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앞서가던 그녀는 가끔 멈춰 서서 바람에 형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다. 그럼 나는, 한두 번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며 서 있다가 다시 그녀의 뒤를 따라갔다. 아까까지만 해도 맑았던 바다의 날씨가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바다가 너울지며 하얀 거품을 일으켰고, 바다와 하늘의 경계가 점점 가물거렸다.

산책에서 돌아온 나는 곧장 등명기를 점검하러 등릉으로 올라갔다. 일몰 10분 전에는 점검을 마치고 등대에 불을 켜야 한다. 바다 멀리 점처럼 작은 배 한척이 스쳐가는 게 보였다. 쌍안경을 들고 자세히 보았다. 섬과 섬을 연결하는 정기여객선이다. 남해를 오가는 배들은, 하루에도 백여 척이 넘는 배들이, 거의가 자라도 등대에 의지해서 지나다녔다. 배가 지나가자 바로 앞 먼 바다에 회색구름덩이처럼 떠있는 무섬이 눈에 들어왔다. 무의 머리통을 싹둑 잘라 놓은 모양이라 무섬이라 했다. 처음엔 무인도라서 무섬이라 부르는 줄 알았다. 섬이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느껴졌다. 나는 쌍안경속의 무섬을 응시했다. 밀려오는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는 해안선과 모래사장과 언덕이 보였다. 언덕 위에는 소나무 한 그루가 있다. 어느 한 순간 소나무가 빨간 블라우스의 여자로 바뀌었다. 황금빛 모래사장에서 그녀와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상상을 했다. 그리고 무섬의 언덕 위에 집을 지을 궁리를 했다. 그러나 그건 턱도 없는 공상이었다. 내가 무섬에서 여자와 함께 살 꿈을 꾸다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한 순간, 나는 크게 놀랐다. 갑자기 머릿속에 그녀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번갈아 들리며 혼란스러웠다. 내 마음속에 어머니가 말한 등대가 없었기 때문이었을까. 나는 등댓불이 꺼진 밤바다를 떠도는 배처럼 방향을 잃은 채 한없이 흔들리며 살아왔다. 지금 나는 내 마음속의 등대를 찾고 있는 지도 몰랐다. 하지만 마흔의 나는 가난하고, 그녀는 젊고 든든한 직업도 있다. 단지 공통분모가 있다면 둘 다 싱글이라는 것뿐. 어쨌든 나는 자라도를 떠나야 하고, 그녀는 등대를 지켜야 한다. 그게 두 사람이 선택할 마땅한 길일 것이다. 쌍안경 속에 눈물 가득한 여자의 커다란 눈이 보인다. 그녀의 눈빛에는 나를 끌어

당기는 뭔가 신비한 무엇이 있었다. 밤바다를 밝히는 등대의 불빛처럼. 나는 한참 동안 쌍안경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여자는 지금쯤 숙소에서 저녁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녀가 밤 근무를 하러 올라오기 전에 남은 일을 서둘러 끝내야 했다. 등명기 점검을 마친 나는, 갑작스런 안개에 대비해서 무(霧)신호기와 위성항법시스템(GPS) 장비도 살폈다. 등대에 불을 켜 후, 등롱 아래 작은 사무실로 내려왔다. 검은 구름이 서쪽으로 빠르게 흐르고 바다가 심하게 출렁인다. 곧 거센 비바람이 몰려올 기세다. 몽글몽글 모여들던 구름덩이가 차츰 바다의 수면으로 처지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나는 해도가 깔려있는 책상에 앉아 오늘의 마지막 기상관측보고서를 가까운 기상대로 보낸다. 지금 이 시각, 구름의 색깔과 모양과 흘러가는 방향, 바다의 색깔과 파도의 모양 따위를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보낸다. 내가 보내는 기상자료는 예민한 측정 장비로도 파악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아무리 성능 좋은 기계라 하더라도 구름의 모양과 흔적을 추적하고 바다의 냄새와 파도의 소리를 구분하는 데는 내 눈과 코와 귀보다 나을 수는 없다. 기상보고를 막 끝냈을 즈음이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린 것은.

“어서가 쉬세요.”

“아뇨, 오늘은 나도 당신과 함께 등대를 지키고 싶어요.”

“걱정 말아요. 이런 날씨가 어디 한두 번이었나요. 저녁상은 숙소에 봐두었어요.”

그녀는 내 말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내일 아침에 교대 하자고 했다. 내가 온 첫 날부터 애당초 나한테는 밤 당번을 맡기지 않았다.

“그럼, 난 내려가요. 무리하지 말고 잠잠이 간이침대에서 눈도 좀 붙여요.”

오늘도 나는 여자의 말을 따랐다. 어쩌면 그녀가 꼬박 뜬눈으로 등대를 지켜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염려를 하면서.

저녁식사를 마친 후 평소보다 이른 시각에 잠자리에 들었다. 피로가 몰려왔다. 당장이라도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 것 같았다. 유리창에 등대의 불빛이 스쳤다. 15

초 주기로 다가왔다 멀어졌다를 반복하는 불빛을 눈이 시리도록 바라보다 어느 순간에 스르르 눈을 감았다. 잠결에도 내 얼굴을 어루만지는 등대의 불빛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불빛은 어머니의 손길처럼 따듯했다. 어머니가 나를 찾아온 것 같아 얼른 눈을 떴다. 그러나 어머니는 옆에 없었다. 유리창에는 여전히 씩 없이 등대의 불빛이 다가왔다가 멀어졌다. 눈꺼풀이 무거워지며 다시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나는 밤중에 무섬의 해변에 누워있었다. 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고, 멀리 자라도의 등댓불이 큰 별처럼 빛났다. 마치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가던 그 별처럼. 별 같은 등대의 불빛을 바라보던 내 귀에 어슴푸레 여자의 짧은 비명소리가 들렸다. 뭔가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싶었다. 그때였다. 여자가 불쑥 눈앞에 나타난 것은, 어둠 속이라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없었지만 파랗게 질려있는 게 확실했다. 등댓불, 등댓불이 꺼졌어요, 라며 그녀가 내 팔을 잡아끌었다. 누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나는 그녀를 따라 달렸다. 여자의 말대로 등대의 불빛이 보이지 않았다. 아아, 강풍에 파리판이 깨졌을 지도 몰라요, 빨리 등롱으로 가서 퓨즈를 점검해요. 난 발전기를 돌리러 갈게요, 그렇게 말하며 여자는 발전기가 있는 창고 쪽으로 달려갔다. 순간 뒤뚱거리며 달리던 여자가 중심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쓰러진 그녀의 머리에서 피가 콧알 쏟아졌다. 나는 안 돼, 라고 소리치며 발버둥을 치다 번쩍 눈을 떴다. 목덜미에 땀이 후줄근하게 흘렀다. 악몽이었다. 아니, 꿈이라고 할 수 없었다. 모든 일이 어찌나 또렷한지 마치 현실처럼 느껴졌다. 하늘이 우르릉 거리고 숙소의 유리창이 흔들렸다. 짙은 어둠 속에 휘익, 휘익 휘파람소리를 내며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쳤다. 불현듯 여자에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게 아닐까, 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속옷 바람으로 숙소를 뛰쳐나갔다.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나는 등탑의 계단을 급히 뛰어올라갔다.

나선형계단의 철제발판을 정신없이 밟으며 올라갔다. 그녀가 있는 방 앞에 다른 나는, 험쩍이는 숨소리를 죽였다. 인기척에도 그녀는 고개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벽에 걸린 시계는 새벽 3시였고, 여자는 해도가 있는 책상에 오도카니 앉아 있었다. 그녀가 지키고 있는 작은 방은 마치 기도실처럼 성스럽게 느껴졌다. 그녀 앞에 사진이 든 액자 하나가 세워져있다. 여태 처음 보는 것이다. 그녀는 내가 온

것을 알아채지 못한 것 같았다. 잠시 그녀의 등 뒤에 서 있다가 낮은 톤으로 말했다. 그녀에게 방해가 될 것 같아서였다.

“피곤하지 않아요?”

“언제 왔어요, 주무시지 않고?”

그제야 여자는 내가 온 걸 안 듯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걱정이 돼서요.”

“난 괜찮아요. 늘 혼자서 해온 걸요 뭘.”

“그런데 이 사진은 누구죠? 처음 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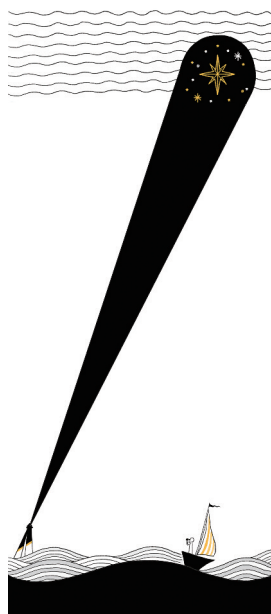
“아버지예요. 젊으실 때 등대 앞에서 찍으신 거예요. 낮에 당신이 아버지 얘길 할 때 언뜻 이 사진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꺼내놓고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낮에 내가 한 얘기를 기억하고 있는 걸 보면, 여자는 분명 아버지와 함께 내 생각도 했을 것이다. 아마도 나와 함께 자라도를 떠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자는 편안한 잠자리를 포기한 채 하루도 빠짐없이 나와 교대도 하지 않고 불침번을 섰다. 불현듯 그녀가 밤새 등대의 불을 밝힌 채 나를 지켜주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오도카니 앉아서 아버지의 사진을 지켜보고 있던 그녀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을 지도 모른다. 마치 내 수호천사처럼.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쉽게 말이 되어 나오지 않았다. 나는 마음속에서만 그녀에게 속삭였다. 당신은 내 등대요. 나는 그녀가 걸친 카디건이 어깨에서 흘러 내리자 끌어올려준 뒤, 그녀의 어깨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참, 좀 전에 본청 인사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당신 근무평가서와 함께 정규직원으로 채용해달라는 요청서도 첨부했어요. 교대근무자도 부족한데다 대를 이은 등대지기 딸의 간곡한 부탁이니 잘 될 거예요.”

그러고는 여자가 한쪽 팔로 내 허리를 두르며 몸을 기대왔다. 나는 손을 뺐어 그녀의 어깨를 끌어안았다. 문득 여자가 그윽이 내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등대는……, 등대는 당신이 필요하단 말예요. 내 머릿속에 여자의 말이 들리는 듯 했

다. 어느새 요란하게 몰아치던 비바람이 멎었다. 그녀와 의자에 나란히 앉아 바다를 내려다본다. 여명이 밝아오고 있다. 풍랑이 잦아든 검푸른 바다가 마치 아스팔트처럼 단단해 보인다. 그 푸른 바다 위를 걸어가면 태평양도 건널 수 있을 것 같다. 옆에 앉은 그녀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온다.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모든 일의 끝은 끝이 아니다. 단지 새로운 무언가의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일 뿐. 가슴속에 뭔가 힘이 솟으며 내가 우주의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 느낌이다. 백색섬광이 새벽 어스름을 가른다. 자라도 등대의 불빛이다. 한 줄기 섬광은 외로운 영혼을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는 불빛처럼 느껴진다. 여자의 등대에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시간이 있을 뿐이다. 태초의 바다에서 시작하여 끝도 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등대, 그 치유(治癒)의 쓰리쿠션

제4회 등대문학상 가작 / 소설

김성현(경남 양산시)



승합차의 미닫이문을 드르르 열자, 알금알금 석탄가루로 불쌍사납게 곰보 진 콘크리트 바닥이 거뭇하게 눈에 들어왔다. 순간 매캐한 냄새가 코끝을 찔, 올리나 싶더니 정신이 아물아물 흐려지며 가벼운 현기증이 일었다. 그때였다.

“여기, 서명 좀 해주시겠어요? 회사에 제출해야 해서…….”

머리를 뒤로 단정히 묶은 중년의 여성 운전자가 고개를 옆으로 돌려 사무적인 억양으로 결눈질하여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오른팔을 뒤로 뻗어 싸구려 볼펜과 모서리가 약간 구겨진 얇은 종잇장 하나를 내게 건넸고, 나는 넘겨받은 그 종이의 오른쪽 하단에 낙서를 하듯 거칠게 날짜를 적고 이름을 갈겼다. 지금의 혼란스럽고 착잡한 심경을 그런 식으로라도 표현하고 싶었던 걸까. 그러고 나서, 뒤쪽 화물 칸에 아무렇게나 내던져져 있던 여행용캐리어의 손잡이를 붙들어, 덜컹덜컹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물체를 차량 밖으로 끌어냈다. 그녀와 일별 인사를 나누고 차량의 문을 닫자, 승합차는 볼륨감이라고는 전혀 없는 밋밋한 엉덩이의 빨간 두 눈을 두어 번 흐트러지게 깜박이며 아무런 미련 없이 시야에서 줄어들다 사라져버렸다.

눈앞에 가루눈이 하나, 둘 날리나 싶더니 그 중 하나가 팔등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그것은, 성탄을 기념하는 고결한 축복의 육각 결정체라기보다는 화산재 같았고, 오히려 지하 갱도에서 묵묵히 일하는 광부들의 눅진한 땀과 비등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검갈색의 물질은 수분을 가득 머금은 석탄가루였다.

고개를 들어 문득 올려다 본 하늘은 회색의 장막이 길게 드리워져 오늘따라 유

난히 을씨년스러웠다. 천천히 아래로 시선을 거두니 웅장하면서도 한편으론 군데 군데 별그스름한 녹물이 배어들어 애잔함이 느껴지는 화물선 한 척이, 나와 바다 사이에 철옹성처럼 떡 버티고 있었다. 수시로 굼직한 굉음을 내뿜는 육상의 언로 우더가 작업을 위해 오가는 길인, 직선의 레일 위를 지나 화물선 중앙 부근의 갱웨이트랩 앞에 다다르자 느닷없이 살을 에는 차가운 바람 한 줄기가 양쪽 겨드랑이와 등허리 사이로 휩 쓸어내리듯 휘몰아쳤다. 그러자 돌연 지독한 고독감이 밀려들어 머릿속을 송곳처럼 마구잡이로 푹푹 찔러 생채기를 냈다. 그러나 그 지긋지긋한 말초적 통증은 단지 일시적이었을 뿐, 이내 통각점(痛覺點)들은 스멀스멀 안개로 곱게 피어나 폐부 깊은 곳으로 전이되어 기존의 잔여물들과 한 덩이가 되었다. 그렇다. 고독은 결국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는, 이른바 한(恨)과 같은 것이다. 한이 쌓여가고 있었던 것이다. 무언의 액션을 취하는 팬터마임과도 유사한 그것은, 가슴이라는 무대에서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공연되는 국소적 꿈을 거림이었다.

고독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고통이다. -게오르케-

내 직업은 항해사다. 두 달 남짓한 기간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다 다시 배를 타러 왔다. 배에 오르는 순간 나는 세상과 격리된다. 갱웨이에 오르는 순간, 세상과 나를 나누는 철제의 셔터문이 탁탁탁, 쇠소리를 내며 하늘에서 내려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셔터문이 마침내 텅, 하며 바닥에 닿는 순간은, 배의 마지막 계류삭이 부두에서 떨어진 뒤 배가 천천히 예인선들에 이끌려 선수부가 바다를 향해 그 머리를 치켜드는 시점이다. 그때부터 나는 철저히 고독에 휩싸이고, 외로움이 버거워 소리 없는 아우성을 지른다. 물론 배에는 스무 명 내외의 동료들이 있다. 그곳도 작은 사회인 셈이다. 하지만 다음 휴가를 손꼽아 기다리며 쓸쓸히 향수에 젖어있는 그들에게서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는 건, 어찌면 걸식자에게서 야멸차게 피를 뽑는 것처럼 잔혹한 일일지도 모른다.

나는 항해사 중에서도 이등 항해사다. 배의 귀신이라고도 불리는 이등 항해사

는, 선원들 중에서도 특히 더 외로움과 씨름해야 하는 직급이다. 남들이 일어날 때 잠들고, 남들이 식사할 때 당직을 서고, 남들이 업무를 마치고 지쳐서 각자의 방에 돌아갈 때쯤 자유 시간을 갖게 되는 식이다. 그러다보니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건 검푸르게 일렁이거나 수줍은 듯 파랗게 미소 짓는, 마치 지킬박사와 하이드를 연상케 하는 몫쓸 바다뿐이다. 아, 가끔 뱃전 혹은 거주구역으로 날아드는 철새의 무리와, 바다 물결을 거스르며 아치 모양으로 폴짝폴짝 뛰어오르는 돌고래 떼도 비록 일방향적 소통의 한계를 드러내기는 하나 말뱃의 축에 끼워 넣을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사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마음속 친구는 따로 있는데, 다름 아닌 등대를 두고 하는 말이다. 등대만이 내 고독하고 어둠에 흠뻑 젖은 영혼에 다사로운 은빛의 햇살을 비출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지난여름 인도양, 아프리카 동쪽의 마다가스카르 부근을 항해하면서였다. 당시, 우리 배는 일본의 한 기상업체로부터 남인도양 부근의 파고가 높을 것이라는 정보를 전해 듣고, 섬에 최대한 가까이 붙여 연안을 항해하고 있었다. 당직 시간이 되어 브리지로 올라가보니 배는 마다가스카르 남부의 ‘포르도팽’이라는 지역을 막 지나 서서히 섬과 멀어지려 하고 있었다.

“이항사님, 오른쪽에 불빛이 보여요.”

함께 야간 당직을 서던 인도네시아인 조타수가 약간 들뜬 목소리의 영어로 내게 말했다. 그는 망원경에 시선을 쫓은 채 창 밖 어딘가를 유심히 살피고 있었다. 그의 말대로 선수 우현, 약 십오 도 부근에서 불빛 하나가 규칙적으로 깜빡, 깜빡 명멸하고 있었다. 등질로 보면 빛을 비추는 시간이 꺼진 시간보다 긴 명암등에 해당했다. 다시 한 번 자이로 나침반을 통해 근원이 되는 곳의 방위를 확인한 뒤, 차트룸으로 들어가 해도 위에 현재의 위치를 표시하고 직선으로 된 위치선을 그었다. 그 연장선이 육지와 만나는 지점에 ‘생트마리곶’이라는 지명과 함께 등대 마크가 표기되어 있었다. 이곳으로부터 팔 해리, 그러니까 대략 십오 킬로미터 정도 되는 거리였다.

시간의 흐름 속에 불빛은 점점 가까워 오고 있었다. 암막이 사위에 드리워져

그 불빛은 더 강렬하게 느껴졌다. 마치 눈자위를 희번덕거리듯 속도감 있게 브리지의 좁은 공간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 순간, 왜 갑자기 숨통이 확 트이는 것 같은 황홀한 기분을 느꼈던 걸까? 그건 소생하는 느낌이었고, 빨긴 아가미를 연신 벌렁대며 파닥이던 물고기가 절명 직전에 다시 물속으로 회귀하는 찰나의 카타르시스에 비견될 것이었다.

지난달 포항항을 출항하고 난 뒤 거의 한 달여간을 망망한 바다에서 아치형의 수평선만 바라보다 보니, 나는 점점 기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혹자는 이를 두고 바다가 여성이기 때문에 자꾸만 남성의 양기를 빨아들여 그런 것이라고 내게 살짝 귀뜸해주었다. 따지고 보면 서양 역시 비슷한 인식인 것 같았다. 명사에 성, 수를 넣는 불어에서는 바다를 라메르(La mer), 로 표현하는 데, 여기에서 라(La)는 여성형 정관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빛이 규칙적으로 엄습할 때마다 물이끼 피어나듯 피부에 파릇파릇한 연녹색의 생기가 이나 싶더니, 이내 소름이 돋듯 오돌도돌한 돌기들이 살갗을 메워갔다. 마침내 온몸이 두꺼비의 그것처럼 돌기들로 꽉 메워질 즈음, 그 수많은 몽우리의 끝이 갈라지며 그 속에서 작은 새싹들이 비쭈뻬쭈 돌기 시작했다. 떡잎에 이어 줄기가 나더니 순식간에 덩굴이 되어 마치 나를 누에고치처럼 풍성하게 에워쌌다. 진녹색의 타원형 누에고치를 만든 것이었다. 중력의 사슬을 끊기라도 한 듯 몸은 차츰 뒤로 뉘어졌다. 천천히, 그것도 아주 부드럽게. 그러자 마음 속 고독의 둔덕은 순식간에 퇴화의 과정을 거치며 신기루처럼 휘, 사라져버렸고, 대신 그곳, 평평한 땅엔 오로지 노오란 햇살만이 깜빡, 깜빡 고즈넉하게 깃들었다.

“이항사, 뭐하고 있어? 설마- 자고 있는 건 아니지?”

선장이었다. 어느새 브리지로 올라온 그가 내 옆에 다가와 말을 걸었다. 방 안에만 있으려니 적적했던 걸까, 아니, 날씨 걱정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가 우려했던 너울성 파도는 일지 않았다.

“등대가 있어서요. 불빛을 보던 중이었습시다.”

그 말에 선장은, 아무 말 없이 창가 선반 위에 놓여있던 망원경을 집어 들어 빛의 근원지를 한참 바라보았다. 나와 선장 그리고 조타수, 이렇게 세 사람이 마치

낮을 기리듯 물끄러미 등대만 바라보는 상황이 얼마간 지속되었다. 그들도 고독이란 바이러스에 전염이 된 것일까. 침묵을 깬 선장이 내게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다.

“자네, 가장 오래된 등대 이름을 아나?”

“음…… 스페인에 있는 걸로 아는데, 이름은 잘.”

“헤라클레스의 탑을 말하려는 거구먼. 그렇지, 그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등대이긴 하지. 하지만 난 역사상 가장 오래된 걸 말한 거라네. 물론 지금은 없지만.”

“아, 거기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뒷머리를 한 번 긁적이며 눈가에 가벼운 미소를 띤 채 그와 시선을 맞추려 했다. 그러나 그의 눈은 무언가를 깊이 회상하듯 창밖 어둠 속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었다. 으스스한 달빛과 등대의 불빛이 교차하며 그의 얼굴에 굴곡을 새겼다. 날카로운 법한 턱선은 희끗희끗하고 봉봉한 턱수염에 가려 정체를 알 수 없게 흐려져 있었다. 그러나 그의 오뚝한 콧날과 눈가에 서너 갈래로 깊이 파인 주름 탓에 그의 마도로스적 카리스마는 고스란히 아릿한 아우라로 치환되어 내 눈자위로 가득 뿌려졌다.

“바로, 알렉산드리아의 파로스등대라네.” 잠시 뜬 입을 열어 내게 말했다. “비행기가 없던 시절에는 외국을 오가는 데 해상교통을 많이들 이용했지. 자네도 역사 공부를 해서 알겠지만, 특히 기원전후로 해서 지중해나 홍해 쪽은 해상교통의 요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그런데 그때만 해도 나침반이 있기를 했나, 지금처럼 지피에스(GPS) 같은 첨단 기기가 있었나. 단지, 주변의 지형지물을 이용해 연안을 따라 항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 하지만 그것도 낮에나 가능했지 밤에는 통 뭐가 보여야 말이지. 그래서 그 섬에 높다란 등대를 건설하게 되었던 거야. 높이가 백여 미터에 이르렀다고 하니 당시에는 실로 놀라운 업적이었지.”

그 시대의 등대는 어쩌면 뱃사람들에게 절대 잊지 못할 은인파도 같은 존재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뭐, 지금에 와서는 선위 측정의 보조적 수단에 불과하지만, 그마저도 사실, 어선과 같은 소형 선박이라면 모를까 상선 등 대형선의 일상 항해 시엔 별 의미가 없다. 지피에스를 기반으로 한 레이더(RADAR)와 더불어 자동차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엑디스(ECDIS)라는 기기가 이미 상용화되

있기 때문이다.

선장은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서 뭔가를 끄집어냈다. 휴대폰이었다. 그는 화면을 띄워 오른손의 검지를 좌우로 몇 번 움직이더니 내게 기기를 내밀었다. 일순간 환한 빛이 느껴지자 나도 모르게 눈살이 찌푸려졌다. 곧 적응이 된 액정화면 위에는 사진 한 장이 가로로 놓여 있었다. 사진의 선명도가 약간 떨어져 불분명해 보인긴 했으나 선장으로 보이는 사내와, 선글라스를 착용한 한 중년의 여인이었다. 그들은 포옹을 하듯 다정하게 어깨를 두른 채 유백색의 벽돌을 쌓아올린, 중동의 향취가 물씬 풍기는 성곽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연인다운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화면을 유심히 들여다보다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 잔잔한 웃음이 서려 있었다.

“이집트라네. 한 때 파로스 등대가 있었던 곳이지. 지금 그곳엔 대신 카이트베이라는 요새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네.”

다시 한 번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 중년 여인을 자신의 아내라고 짧게 소개했다. 그의 말에, 화면 속 그 여인은 아지랑이처럼 흐물흐물 춤을 추며 내 눈앞에서 점점 까무룩 해지다 서서히 아내의 모습으로 변모하여 되살아났다.

화창한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다. 일찍 잠에서 깬 나는 베란다 창문을 관통해 집 안으로 스며드는 따스한 빛발을 맞으며, 거실 바닥에 비스듬히 다리를 접고 앉아 다소 구부정한 자세로 어제 들어온 일간지를 바닥에 펼치고 있었다. 일주일 간 직장에서 치열하게 싸움을 벌였던 내게, 스스로가 해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보상 중 하나였다. 그때였다. 방문 여는 소리가 평소와 달리 둔탁하게 느껴져 거실 모퉁이 부근으로 고개를 돌리니, 아내가 양손으로 배를 짊 움켜잡고 표정을 잔뜩 찌푸린 채 허전허전 비틀거리며 내게로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다, 당신 왜 그래?”라는 물음에 아내는 “갑자기…… 배, 배가 너무 아파.”라고 미간을 구겨 힘겹게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즉시 아내를 주변의 개인 병원으로 데려갔고, 마침 운 좋게도 진료를 하는 병원을 찾을 수 있었다.

“위경련입니다. 큰일은 아니니, 주사 한 대 맞고 약 좀 드시면 될 거예요.”

비어있는 앞머리를 옆머리로 가지런하게 쓸어 매운 의사는 아내의 상복부에 청진기를 한 번 들이대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차분한 표정으로 내게 말했다.

이에 나는 잠시 안도했으나 문제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다. 잦아드나 싶었던 아내의 복통은 새벽녘부터 끔찍대는 소리와 함께 더 심해지더니, 아침이 되자 아내는 일어서지도 못하고 새우등 모양으로 몸을 잔뜩 구긴 채 모로 누워 발은 숨만 연신 몰아쉬고 있었다. 급히 그녀를 한 대학병원의 응급실로 데려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전공의에게서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들었다. 그는 병원 복도 쪽으로 조용히 나를 이끌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검사 결과, 혈액의 종양표지자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씨티를 확인해봤더니 췌장 끝에 삼 센티미터 정도의 낭종이 하나 관찰되더군요. 일단 입원을 하고, 조직 검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직 검사라면, 호, 흑시…….”

“죄송합니다. 지금으로선 더 이상 아무런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낭종이 췌장의 꼬리 부근에 있다는 건 그나마 다행한 일입니다.”

그는 그 말을 끝으로 좁다란 낭하를 종종걸음으로 걸어 우측 모퉁이로 빠르게 사라졌다. 조직 검사라니, ‘암’이라는 것은 단지 영화나 드라마 속 소재이겠거니라고 생각했던 내게 그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비보였다. 아내의 침상으로 돌아와 보니,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은 채 평온한 표정으로 잠들어 있었다. 아내의 양 팔목에 연결된 이름 모를 링거액들의 희끗희끗한 선들이 그녀의 가녀린 모습을 더욱 애잔하게 했다.

해양계 대학을 졸업한 나는, 업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해운사에 입사한 뒤 병역특례를 마칠 때까지 항해사로서 묵묵히 배를 탔다. 젊은 혈기에 하루하루를 열심히 일했고, 회식이 있는 날이면 선내 노래방에서 바지의 사타구니 부근이 찢어질 정도로 막춤을 추고 탬버린을 치면서 선장과 상급자들을 흥족게 했다. 그 결과 삼년 반 만에 일급 항해사로 진급할 수 있었고, 연봉도 기대 이상으로 남들 부럽지 않을 만큼 크게 올랐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내 영혼은 점점 고독으로 병들어가고 있었다. 그 즈음 자꾸만 헛구역질이 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큰 병인가 싶어 몇 번 병원에 가 보았으나, 그때마다 들은 얘기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라는 간단한 의사의 소견이었다. 결국 마음의 병이었다는 걸 알게 된 나는, 그 길로 배를

내려 해운업계와 무관한 새로운 직장에 등지를 틀었다. 그리고 옮긴 직장의 한 선배에게서 지금의 아내를 소개받았다.

배에서의 파분한 일상과 달리 육상의 삶은 마치 정글처럼 치열했다. 서로를 물어뜯는 일이 다반사여서, 언제나 뒤를 조심하며 생존을 위해 머리를 굴리고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다. 한편 월급도 반 토막 났다. 배를 탈 때만 해도 달러 지폐들로 미어터졌던 지갑은 육상 생활 반 년 만에 거죽만 남아, 주머니에서 꺼낼 때마다 방정맞게 팔랑팔랑 춤을 추었다. 하지만 마음의 병은 깨끗하게 다 나아 있었다. 이에, 혈혈고 주릴지언정 다시는 바다로 돌아가지 않겠노라고 다짐했었다. 그로부터 이 년 뒤, 나는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됐고, 배를 타면서 모아둔 돈으로 도시 변두리 지역에 집을 하나 장만해 신흥살림을 꾸렸다. 하지만 부푼 기대와는 달리 결혼 생활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다. 쥐꼬리만 한 수입으로는 더 이상 저축이 불가능했고, 아이를 낳은 뒤로는 가끔 경조사라도 겹치면 월수입이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었다. 그러던 중, 처남이 프랜차이즈다 뭐다 해서 겁도 없이 사업에 뛰어들다 큰 낭패를 보는 바람에 그 여파가 우리 가정에까지 미쳤다. 처음에는 눈을 딱 감고 그의 딱한 사정을 외면해보려고도 했으나, 하루가 멀다 하고 질질 찌는 아내의 낯 놓은 모습에 그만 백기를 들고 말았다.

그렇게 나는,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집안의 무능력한 선장이 되어 우리 가족의 생계를 위태위태하게 진두지휘하고 있었다. 그러다 다시금 암초에 걸린 것이었다.

아내가 건물 삼 층의 내시경실로 옮겨지는 동안 나는 아내의 침대 발치에 있는 철제 난간을 붙들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뒤따르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서자 그녀의 마른 손을 두 손으로 꼭 움켜잡으며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라고 공허하게 말했다. 그러자 자상한 아내는, 가늘게 실눈을 뜨고 눈초리에 물기를 머금은 채 고개를 한 번 끄덕이며 애써 메마른 웃음을 지어보였다.

보호자 대기실에서의 시간은 마치 법정에서의 최종 판결을 앞둔 피고의 마음처럼 조마조마하고 불안한 것이었다. 특히 내시경실 벽 한켠에 붙은 환자명단에서, 아내의 이름 옆에 ‘R/O Pancreatic Cancer(췌장암 추정)’이라는 병명이 기재된 것을 본 이후로는 사지가 사금파리처럼 날날이 분해되는 고통을 느꼈다. 아내가

정말 몸을 병에 걸렸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어미 없이 살게 될 아이는 또 어떡하고……. 차갑게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의 인터넷 창에 채식암 생존율, 이라는 검색어를 넣었더니, 단지 십 퍼센트에 불과하다는 비극적 정보들이 마구 쏟아졌다. 그러자 마음은 한층 더 우울해졌다. 그때 벽에 붙은 스피커에서 아내의 이름이 호명되며, 보호자 분은 지금 즉시 병실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을 전했다.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곳엔 집도의로 보이는 이가 푸르스름한 수술복을 입은 채 의자에 앉아 가만히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다. 인기척을 느낀 그는 가볍게 내게 인사를 건넌 뒤, 내가 그와 마주하며 자리에 앉자 곧 잠잠한 어투로 나와 모니터를 번갈아 보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여기 이 부분, 기다란 게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아내 분의 채식암입니다.” 그는 한 손에 볼펜을 잡고 그 축을 모니터로 향하게 하여 유심히 설명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그의 난해한 말보다 표정에 관심이 더 쏠렸었다. 재빨리 병의 경중을 따져보고 싶었던 탓이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일관적으로 무표정했다. “채식은 다른 장기의 뒤쪽 등 부근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위벽의 상부를 뚫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종양의 위치와 크기를 정확히 확인했어요. 삼 센티미터 이상이더군요.” 그러면서 그는 책상 위에 있던 작은 유리관을 하나 집어 들었다. 그 안에는 노란빛깔이 살짝 감도는 액체가 손가락 마디 정도의 높이로 들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종양 내부에 있던 것입니다. 다행히, 점성은 없더군요. 오래 고여 있던 탓에 색을 약간 띠고 있기는 하지만, 암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조직검사를 해봐야 해요.” 그는 유리관을 좌우로 찰랑찰랑 흔들며 내게 말했다. 점도의 유무로 암의 가능성을 따진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알았다. 그리고 그 시점에는 비로소 그의 얼굴엔 웃음기가 서렸다. 진즉에 그럴 것이지, 사람을 잔뜩 애타게 하다니. 영화의 클라이맥스를 연출하듯 그는 표정 연기를 제대로 했고, 덕분에 나는 그의 설명을 듣는 동안 여러 번의 롤러코스터 급경사를 경험하며 긴장된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큰 암초가 아닌 건 다행한 일이었으나 이번 일로 인해 한 달 이상의 월급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뒤 주치의가 내게 한 말은 나를 더욱

우울하게 했다.

“악성이 아니어서 참으로 다행입니다만 일반인들에 비해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신경을 쓰셔야 해요. 그리고 다음번에 다시 재발을 하게 되면, 그땐 개복 수술로 종양을 제거해야 합니다. 일단, 삼 개월 뒤에 봅시다.”

삼 개월 뒤라니…… 또 이 과정을 반복해야 한단 말인가? 돈도 이만큼 또 들고? 그의 말은 내게 가게 경제의 적신호를 알리는 강력한 경고로 들렸다.

아내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로도 얼마간은 거동이 어려워, 자꾸만 아랫목 신세를 져야 했다. 반쯤 벌린 아내의 마른 입술에선 흐릿, 흐릿 하는 더운 김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런 아내를 지켜보다 마침내 사뭇 비장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했다.

“여보, 나 다시 배 타러 나갈까? 그러면 지금보단 더 여유로울 텐데.”

그 말에 아내는 조용히 눈을 뜨고 초점 흐린 눈으로 잠시 나를 우두커니 바라보더니 비음 섞인 어투로 힘겹게 말문을 열었다.

“왜? 나 때때?”

“아니, 그것보단…… 우리 현지, 곧 유치원에도 보내야 하구. 듣기로는 요즘 유치원 등록금은 대학 입학금과도 맞먹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극히 일부가 그런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내가 좀 더 절약하면서 생활해 볼게. 아니면, 파트타임으로 주변 마트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약한 몸으로 무슨 일을 하겠다고. 암튼, 이미 결정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배를 타겠다는 나의 의향은 대화의 끝 무렵에 이르자, 나도 모르게 의지 이상의 단정적인 멘트로 마무리되고 말았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했던가. 그 뒤로는 모든 후속 조치가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다시금 배를 타겠노라며 이전 회사로 찾아갔을 때, 박 과장이라는 사람은 내게, “까마득한 후배들과 승선해야 할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라고 물었다. 현재 배를 타고 있는 주니어 사관들은 물론이고, 박 과장 역시 나의 학교 삼 년 후배였

다. 상관없다, 고 말하자 그는, “선배님이 우리 회사에 쪽 계셨으면 어떻게 방도를 강구할 텐데, 꽤 오랜 기간 해운업계를 떠나 지내셨잖아요. 재입사를 해도 일 년 정도는 다시 이항사 직무를 맡아야 할 거예요. 회사 진급 기준이 그렇습니다. 한번 진급을 하신 이력이 있으니, 차후에 직무시험 정도는 면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칫 후배 상급자를 모셔야 할 수도 있으나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이등 항해사의 월급일지언정 지금의 내 월급보다는 훨씬 많으니. 나는 알겠다, 고 짧게 대답했다.

캐리어를 어깨에 인 채 갱웨이의 좁고 가파른 철 계단을 텅텅거리며 오르는 일은 상당한 고역이었다. 안전을 위해 계단 아래에 녹색 그물이 쳐져 있긴 했으나 그것만으로 발아래 검푸른 바다로부터의 잠재적 위협을 완전히 상쇄시킬 순 없었다. 갑판에 오르자, 주황색 안전모를 쓴 약간 검은 얼굴의 팽팔막한 사내가 내게 다가와 어설픈 영어로 물었다.

“당신은 어디 사람입니까?”

두툼하고 메마른 입술을 쉼룩쉼룩 움직이며 그는 말했다. 이에 나는 “인도네시아 사람?” 하며 역시 비문법적 영어로 되물었고, 그러자 그는 “아니요, 저는 미얀마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교대 이항사’라는 약간 늦은 답변에 그는 반갑다며 거뿔거뿔 석탄 물이 오른 오른손의 목장갑을 벗고 두툼한 손을 내게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인사를 마치자 그는 왼쪽 가슴에 찬 휴대용 무전기의 마이크 버튼을 눌러 내가 왔음을 사무실의 당직자에게 알렸다.

그를 뒤로하고 캐리어를 끌며 녹색의 안전로를 따라 거주구역이 있는 선미(船尾) 쪽으로 느릿느릿 걸음을 놓았다. 두꺼운 철문의 높은 문턱을 넘어 낮은 조도 탓에 어둠이 깃들어있는 복도로 들어선 뒤 여남은 걸음을 걷자 왼편에 사무실 입구가 보였다.

“실례합니다. 새로 승선한 이항사입니다.”

그러자 모니터 앞에서, 한쪽엔 도면으로 보이는 책자를 펼쳐둔 채 업무에 열중하던 이가 고개를 돌려 나를 보더니, 곧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아- 안녕하세요

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다시 배를 타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일항사님?”, “네, 일항사입니다. 반가워요. 일단 선장님께 먼저 인사드리고 짐을 푸세요. 인수인계는 내일까지 끝내면 되니, 낮에는 좀 쉬다가 야간부터 근무하시구요.”

잠깐의 오가는 말에서, 일등 항해사가 나의 칠 년 후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경어를 서로 주고받긴 했으나, 내심 꺾끄러웠다. 아마, 그 역시 그랬으리라. 승선 전 업무협약에서 박 과장은, “선배님, 이제 일 년이 거의 다 되었으니 승선 중에 진급이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다리죠.”라고 말한 바 있다. 그래, 조금만 참자. 터전이 바뀌면 다시 꼬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건 이 나라 어딜 가도 마찬가지인 걸. 가끔은 높임말 따윈 없는 서양 언어가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도 했었다. 굳이 나이나 신분 같은 걸 번거롭게 따질 필요가 없으니.

그나마 선장이 나와 일면식이 있어서 긴장감은 다소 누그러졌다. 내가 초임으로 승선했을 때 그는 일등 항해사였었다. 흐릿한 기억이긴 했으나, 한 달 정도 그와 함께 일했던 것 같다. 뜻밖의 해후에 우리는 두 손을 맞잡고 밝게 웃었다. 세월 탓인지 그의 머리에는 어느 새 희끗희끗 서리가 내려 있었다. 그는 앞으로 삼 개월 정도는 함께 지낼 수 있을 것 같으며, 잘 지내보자는 말로 훈훈하게 대화를 마무리했다.

방 안에 들어서니 퀴퀴한 냄새가 코끝을 빙빙 에워싸며 미간을 절로 찌푸려지게 했다. 그 하취의 근원을 찾아 이곳저곳을 눈길로 탐색하던 중, 창가 쪽 양 벽면 사이에 걸린 빨랫줄에 각종 속옷과 근무복들이 너저분하게 무더기로 널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마 저것 때문이기도 하리라. 선령이 이십 년이 지난 배라 그런지 케케묵은 사무용 철제 책상과 옷장은 궁색한 꼴로 벌겉게 녹이 슬고 모서리가 푹 찌그러져, 이제는 제 무게조차 감당하질 못하고 한 쪽 어깨를 비스듬히 아래로 늘어뜨리고 있었다. 캐리어를 방바닥에 눕혀 놓고, 지퍼를 양쪽으로 벌려 가방을 활짝 열었다. 그러자 제일 먼저 바깥으로 툭 튀어 나오는 건 다름 아닌 가족사진이 들어 있는 액자였다. 나와 아내 그리고 내 품에 안겨 있는 딸 아이, 이렇게 세 사람이 마치 하나이듯 살을 맞대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 뒤로 하얗게 팔각의 옷을 입고 묵묵히 선 등대가 보였다. 아쉽게도 그것의 모습은 커다란 높이 탓에 허벅지 선에

서 잘려 있었다. 불현듯 그때의 기억이 다시 생생히 피어올랐다. 한 달 전, 우리는 울산 울주군에 있는 간절곶에 갔었다.

“당신, 정말 괜찮아?”, “뭘?”, “이렇게, 배 타는 거 말야.”, “이미 말했잖아, 난, 아무렇지도 않아.”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한 사탕발림 조의 말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었으나, 마다가스카르에서 등대와 조우한 이후 확실히 심경에 변화가 있었던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승선이 가까워질 때의 부담감 또는 압박감까지 줄어들거나 한 것은 아니었다.

그때, 무언가 내 엉덩이를 툭, 하고 몽툭하게 찼었다. 고개를 뒤로 돌려 보았으나 등대만 있을 뿐 아무도, 아무것도, 없었다. 이번엔 목을 뒤로 젖혀 올라다보았다. 그러다 나는 화들짝 놀랐다. 등대가, 우산살 같은 서까래로 둘러진 한옥 형태의 지붕 모자를 정수리 부근에 폭 눌러쓰고 달덩이 모양의 둥그런 얼굴로 환하게 해바라기 웃음을 짓고 있는 게 아닌가. 마치,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라고 속삭이듯이. 다시 보니 그 웃음은 생트마리곶 등대의 그것과 무척 닮아 있었다. 아니, 인도양 한복판에서 나를 감싸주었던 바로 그 초록 웃음이었다.

감상을 깨우기라도 하듯, 방 한편, 벽 모서리에 붙어있는 빗바랜 잿빛 플라스틱 스피커에서 갑자기 날카롭고도 우렁찬 음성이 터져 나왔다.

“선내에 알립니다, 선내에 알립니다. 지금 피에스씨(PSC) 검사관이 본선에 승선 중입니다. 승무원들께서는 즉시 수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내 마음을 꿰뚫어 보기라도 하듯 아내가 내게 말했었다.

“여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야. 당신에겐 나와, 당신의 소중한 딸이 언제나 함께 있으니까. 물리적 거리라는 건, 우리 가족에게 아무런 장애가 되질 않아.”

그래 내겐 이전에 없었던 가족이 있고, 등대라 불리는 과묵한 친구도 생겼다.

빨랫줄에 걸려 있던, 아직은 눅눅함이 깃든 색 바랜 작업복으로 재빨리 갈아입은 뒤, 신발장으로 다가가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는 검댕이 묻은 안전화와 그것의 다른 짝을 찾아 발등에 구겨 넣었다. 마지막으로 안전모를 눌러 쓴 뒤, 다시금 액자의 사진 속에서 희멀겁게 배경처럼 드리워진 등대를 바라보았다. 비록 하체만

보였으나 그의 말은 순도 높게 또렷이 들렸다.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그 울림은 방안 곳곳의 음침한 틈들에서 불거져 나와 공기 중으로 툭툭 튀어 오르더니 당구공처럼 탄력 있게 벽면을 몇 번 때리다 내 양쪽 귓바퀴로 쑥, 빨려들었다. 뇌리를 핑그르르 돌아 폐부 깊은 곳에 이른 울림은, 기존에 전이된 얼마간의 뭉실한 응어리들을 순식간에 쓰리쿠션으로 탁, 탁, 경쾌한 소리와 함께 짓이겨버렸다. 그러자 그 안에 들어있던 노란색의 점도 없는 액체가 불꽃이 일 듯 사방으로 거칠게 파파팟, 튀었다.







수필



등대지기

제4회 등대문학상 가작 / 수필

전미경(경북 영주시)



수평선은 늘 고요하다. 너울의 일렁임이 포말로 쏟아지는 해변과는 대조를 이룬 모습이다. 어선 한 척이 파도의 곡선 따라 항해를 시작한다. 맞은바라기의 여운이 물결로 일렁이며 해변을 향해 보폭을 굽는다.

유난히 맑고 푸른 동해다. 해안을 두른 소금기가 밋밋한 삶에 간을 맞추듯 짐짓 망설이며 서성였던 시간을 잡아당긴다. 대나무가 많은 바닷가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 죽변이다. 그 이름이 낯설지 않음은 절제된 아름다움을 간직한 곳이기도 하지만, 죽마고우의 지조와 절개를 품고 있어서이다.

산비탈 대숲 따라 걷는 길, 바람의 기억이 발걸음을 붙든다. 등대는 흔들리는 것을 거부하며 바다와의 사랑을 위해 해풍이 출산한 짠 맛을 삼켜야만 했다. 평생을 등불 밝히며 어둡고 추운 밤바다에 영원히 변치 않을 해변사랑을 새겼다. 곧은 절개만큼 해안은 바다의 속살이 풀어진 곳이다. 가감된 세월 속에서도 바다는 변화를 거부했고 등대는 망망대해를 밝혔다.

수평선을 바라보며 바다의 길잡이가 된 세월이 100년을 훌쩍 넘었다. 세상은 변화의 벼랑에서 수없이 격랑의 몸부림을 이어왔지만 바다의 달콤한 첫사랑을 잊을 수 없었던 등대는 축이 되어 바다를 지켰다. 오살로 맺어진 인연이다. 모진 풍랑 속에서도 마음을 함께 한 K와의 인연이 그랬다. 그녀는 죽변에 우뚝 선 등대처럼 어둠을 밝히는 빛이었으며, 곱삭은 정이 우려낸 깊은 맛처럼 필요한 만큼만 간이 되는 등대지기였다.

K와 난 서로 다른 음을 가졌지만 화음을 이루기 위해 모데라토와 아다지오의 중간 속도인 안단테를 기슭으로 연주했다. 해일이 변주곡으로 연주될 때마다 파도의 높낮이를 재단하며 올림과 적십을 음표로 늘렸다. K는 너울이 몰려올 때면 어리고 어수룩한 내가 파도에 휩쓸릴까봐 애먼글면 마음을 졸였다. 그녀를 생각하면 바다를 지키는 등대의 음덕이 잊혀진다.

한때는 수재라는 수식어가 이름표처럼 붙어 다닌, 명문대를 꿈꾸던 친구였다. 사랑이라는 허울 앞에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 모두를 한순간 내려놓으며 희뿌연 안개 속을 걸었다. 안전하고 탄탄한 길을 외면한 채 그토록 반대한 사랑이라는 가시밭길을 걷는 그녀의 눈가엔 물기가 마르지 않았다. 포기과 달관의 경계 어디쯤이었을까. 삶의 끈나뭇줄을 잡고 있던 그녀의 두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세상의 슬픔이 그녀를 향해 질주하는 것 같았다. 난 매일 밤 가위에 눌리는 꿈을 꾸며 눈물범벅된 아침을 맞이해야 했다. 현실을 바라보는 안타까움과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이 가슴을 옥죄어 왔다.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다. 여물지 못한, 무책임이 누른 수위를 견디지 못하면서 친구는 말을 잃고 기억을 놓아버렸다. 삶을 송두리째 포기해 버린 듯한 그녀는 심한 우울증에 빠지며 자신의 삶에 마침표를 찍으려 했다. 세상과 이어진 통로에 단단하고 두꺼운 벽을 쌓으며 아위어가는 몸뚱이와 분리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사랑의 대가는 감지되지 않을 만큼 전신을 무력화시키는 통증이었다. 인생의 향로가 뒤집힌 듯 그녀에겐 더 이상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 듯했다.

난 그때부터 K가 되기로 결심했다. 모든 것을 그녀에게 맞추며 잃고 접기를 반복했다. 시선 닿는 곳과 움직임이 있는 곳에 그녀의 존재를 세워 별바르도록 했다. 마음 있는 길에 정성이 더해지니 그녀는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다. 함께하는 시간동안 향로를 막던 걸림돌이 부스러기 되어 가볍게 날아갔다. 그녀와의 일체감 속에, 산화된 녹슨 마음이 다시 제 빛을 찾아갔다. 단절의 표상으로 쌓아 올린 벽의 두께가 조금씩 얇아지기 시작했다. 마음과 마음이 맞닿아, 닫힌 감정에 햇살이 스며드는 걸 보며 난 그제야 안도의 숨을 돌릴 수 있었다. 못다 핀 꽃송이가 만개한 꽃보다 더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값진 시간이 모여 들기 시작한 것이다.

식물은 한 번 싹을 띄우면 뿌린 내린 곳에서 평생을 살아간다. 햇빛, 물, 감촉, 중력의 자극에 따라 굽는 운동을 하면서도 땅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다. 더 좋은 환경도 있을 테지만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같은 장소에서 생을 마감한다. 등대는 식물의 뿌리와 같은 생을 이어왔다. 안전하고 바른 길로 이끄는 삶의 길잡이로 빛의 역사를 밝혔다. 곡진한 삶이었지만 마음을 열고 정성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천년지기 바다와의 사랑 때문이었다. 서로에게 불 밝히는 K와 나 역시도 의문이 필요치 않는 옴살의 사랑이었다.

바다는 기쁨과 슬픔이 반반씩 담겨 감정의 운항을 맡는다. 기뻐서 찾고, 슬퍼서 찾는 곳이기엔 물기가 마르지 않는다. 어찌면 늘 젖어 있었기에 젖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긴 시간, 세상의 변화가 가속을 더해갈 때도 바다는 옛 모습 그대로 그 자리를 지켰다. 너울은 일정한 간격으로 리듬을 탔으며 파도는 해안가에서 만삭의 몸을 해산했다. 늘 같은 모습이었다. 달라진 긴 소용돌이를 안은 세상이었다. 그럼에도 곳곳이 제 갈 길 저버리지 않은 등대의 절개는 해일을 잠재우리만큼 깊은 속정을 지니고 있었다.

세월이 제곱근을 더해오는 동안 우리에게 단 한 번의 다툼도 일어나지 않았다. 세상의 잣대로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K는 언제나 타인의 입장에서 배려와 소통의 문을 열었다. 맑은 영혼을 가진 그녀는 어려운 이웃을 보면 채워지지 않은 자신의 호주머니도 쉽게 열었다. 스스로는 부족한 듯 생활하면서도 삶에 허덕이는 이들에겐 언제나 후한 인심을 보였다.

그녀와 난 각자의 삶에 기울기를 더했을 때는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입자에 불과했지만 함께일 때는 개체의 속성을 자랑하는 의미의 존재였다. 그녀와 나 사이의 무리수는 서로에게 분신으로 자리하는 또 하나의 자아였다. 보이지 않는 눈을 밝히고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게 했다. 상처로 일그러지는 일이 있으면 흉터가 생기지 않도록 가슴으로 조제한 연고를 발라주며 한없는 정성을 쏟았다.

진학, 직장, 결혼이라는 막중한 일을 앞에 두고 우리는 혼자 결정하는 일이 없었다. 나 아닌 또 다른 나로 살아가는 돌이킴기에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는 늘 함께 뜻을 모았다. 각자의 내면에는 하나의 공통 자아가 결정을 내렸다. 그렇게 함께하

는 시간동안 성격, 말투, 억양이 닮아가면서 전혀 다른 생김새였음에도 비슷한 모습으로 비춰지며 단짝이 되어갔다.

언제부턴가 그녀와 나는 서로의 몸에 익숙한 열쇠가 되어갔다. 자물쇠에 담긴 비밀의 문이 하나씩 열릴 때마다 갈증을 해소하고 영혼을 움직이는 짝이 된 것이다. 젓가락이 한 짝일 때는 기능을 잃게 되어 아무 쓸모가 없어진다. 그러나 나란한 한 쌍일 때 젓가락으로서의 가치는 도드라진다.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 이상의 수를 나타내는 이치다.

K는 가끔씩 별이 떨어지는 밤바다에 빛의 파장을 새기곤 했다. 어두운 바다를 밝히는 빛의 여운을 가슴에 메모하며 망망대해로 뻗어나갈 내일을 위해 등명기를 밝혔다. 변함없는 지기의 맹세는 꺼지지 않는 빛의 노래로 그녀에게 물려드는 어둠을 몰아낼 수 있었다. 등대는 선박의 항로를 돕고 어둠을 밝히는 임무를 하지만 꿈을 잃어 방황의 굴레에서 허덕이는 이들에게 인생길을 제시하기도 한다. 풍랑을 맞더라도 멀리서 반짝이는 등대 빛을 보면 스러진 힘이 다시 솟구친다.

등대와 바다가 한 몸이 되었다. 친구의 값진 생애 내 삶이 더해진다. 뚜뚜뚜, 어선 한 척이 항구를 향해 뱃고동 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리의 진동이 해수면에 닿아 메아리로 울려 퍼진다. 등대는 오늘도 변함없이 바다를 지키며 빛의 속도를 더하고 있다.



엄마와 바다

제4회 등대문학상 가작 / 수필

유진선(대구광역시)



입춘이 지난 바다는 칼바람과 화해한 듯 얼마 전과는 사뭇 다른 색깔로 다가왔다. 해풍은 귓불을 간질이며 나부댄다. 한낮의 햇살을 안고 반짝이는 바다는 수만 개의 등불이 켜진 푸른 사막 같다

그르렁대며 출발을 준비하던 배는 우리 일행이 배에 오르자 이내 발판을 올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갑판으로 나가본다. 거지 갈매기라는 별명이 붙은 갈매기 떼가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떼쓰는 아이처럼 줄곧 배꼬리에 붙어 새우 과자를 보채고 있다. 인간의 장난으로 미물들의 습성마저 바꾸어 버린 것 같아 반갑지 않다. 몇 개의 과자를 받아먹은 놈들이 뒤로 물러서고 먼 바다로 나갈수록 배웅하는 갈매기의 수도 뜸해진다.

엄마의 고향은 함경도 청진이었다. 아버지를 만나 줄곧 만주에서 살다가 전쟁 중에 서울로 와서 정착했다. 자식 여럿의 치다꺼리에는 휴일이 따로 없었다. 주일에 겨우 짬을 내어 교회에 나가는 것이 유일한 나들이였던 엄마의 소원은 고향이 가까운 쪽 바다엘 가보는 것이었다. 일 년에 한 번, 김장에 넣을 새우젓을 사러 소래포구라도 다녀온 날이면 엄마는 어김없이 같은 말을 하곤 했다. ‘파도도 없는 게 무신 바다라고, 기냥 소금물이지...’ 서해를 보고 온 날은 어김없이 새우젓이 들어간 달걀찜이 밥상에 올랐다. 비릿한 바닷냄새와 공상스럽게만 들리던 엄마의 푸념

탓일까. 그때는 귀한 달걀 반찬이었지만 공기구멍이 숭숭 난 달걀찜이 촌스럽고 싫었다.

지금은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의 바다지만 그 시절의 동해는 멀기만 했다. 가끔은 아버지가, 때로는 자식들이 돈 많이 벌면 모시고 가겠다는 빈 약속은 해마다 되풀이되었다.

엄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내 엄마도 돌아가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가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것이라는 확신은 무엇에 근거한 것일까. 늘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와의 여행을 미루고 있을 동안 엄마는 서서히 내 곁에서 떠나고 있었다.

엄마가 입원한 병원으로 가는 동안 허둥대지도, 눈물이 나지도 않았다. 무슨 이유였을까. 나는 가 보지도 못한 엄마의 고향 바다가 그린 듯 눈앞에 펼쳐졌다. 어린 엄마가 뛰어놀았다는 집 앞의 공터며 비가 올 때면 큰 입을 벌리고 빗물을 삼키는 파도의 모습이 내 집 앞 풍경처럼 다가왔다.

남은 가족들에게 인사도 못 하고 엄마는 한 달 남짓의 침묵을 끝으로 우리와 작별했다. 영화에서 보던 것 같은 유언이나 멋진 이별의 모습은 없었다. 남은 자식들은 건강하게 사시다 가셨으니 복 노인이라는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으로 서로에게 면죄부를 주기에 급급했다. 나 역시 가슴 한구석 찢리는 마음을 사실 만큼 사셨다는 위안의 말로 포장해 버렸다.

홀로된 아버지가 외롭게 남은 생을 이어가다가 엄마 곁으로 간 후 몇 개 남지 않은 아버지 유품을 정리했다. 돌아가실 때까지 읽던 명심보감 갈피에 끼어있는 동네 사진관에서 찍은 듯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물보라를 일으키는 바다 풍경에 어울리지 않는 꽃이 그려져 있는 배경 앞에 두 분이 나란히 앉아있었다. 웃지도

않고 서로 손을 잡지도 않은 덤덤한 모습으로, 아버지는 엄마에게 바다를 선물했다는 당당함으로, 엄마는 고향 바다를 마주한 것 같은 만족감으로 그 앞에 앉았으리라. 엄마는 그 날 밤 행복했을까. 가끔 꿈에 나타난다던 고향 바다가 더는 그림지 않았을까.

심장이 아프다는 것은 이럴 때 쓰는 말이었다. 바랜 사진 속 엄마에게 어찌할 도리 없음이, 그 혼한 바다 한번 같이 다녀오지 못했음이 가시가 되어 이곳저곳을 찔러댔다.

섬에 도착했다는 안내가 꿈결에 들리는 듯 아스라하다. 폭신한 백사장에 내려서서 엄마의 바다를 본다. 지구의 속 살 까지 보일 듯 말갭게 철썩이는 파도가 발등을 덮는다. 손잡을 듯 다가 왔다가 뒷걸음쳐 가는 파도가 끝내 들어주지 못한 엄마의 소원처럼 안타깝기만 하다.



폐선 옆에서

제4회 등대문학상 가작 / 수필

이명길(울산광역시)



낡은 배 한 척이 모래톱 위에 놓여 있다. 좁은 갑판에는 시간의 굴레를 돌던 타이어와 밧줄에 감긴 닻이 어지러이 널렸다. 진이 다 빠져 배의 이름조차 희미해진 선체는 항해하던 시절을 몇 조각이나 기억할까. 파도가 쉬지 않고 불려내도 바다를 잊었는지 뱃머리가 먼 산만 바라본다.

배는 첫 출항을 떠나 마지막 항해까지 많은 난관을 헤쳤다. 잔잔하기보다 출렁거림이 잦은 바다에서 밤낮 암초를 피해 뜬눈으로 뱃길을 돌기도 하고, 먼 바다로 나갔다가 길 잃은 적도 있을 거다. 바다가 사나울 때면 항구에서 잠시 쉬며 파도에 할퀴어진 상처를 쓰다듬기도 했겠지, 젊은 날의 내 아버지처럼.

바다는 어찌 바다에만 있는가. 세상 모든 것이 바다이다. 아버지의 책상도 바다였다. 그러기에 아버지의 직장 생활은 패기만만했다. 집 앞에서 기다리는 시발 택시를 타고 출근할 때만 해도 항해가 순탄할 거라 여겼다. 포부가 큰데 굽힐 줄 모르는 자신감마저 있어 웬만한 풍파 따윈 끄떡없을 줄 알았다. 하지만 언제 안개가 끼질지, 태풍이 몰아칠지 예측할 수 없는 바다에서 호기는 자만이였다.

아버지는 공직에 근무하여 잉크 냄새만 내느라 농촌 태생인데도 흙을 몰랐다.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고 농촌의 근대화가 추진되자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을 다녀왔다. 밀짚모자에 선글라스를 쓰고 경운기에 앉은 사진 속 아버지가 대평원의 지주 같았다.

출장에서 돌아온 아버지는 의식이 먼저 개혁을 일으키는지 흙내를 조금씩 풍

기기 시작했다. 집에 있는 여분의 땅에 작은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틈만 나면 작물을 실험했다. 얼마 되지 않아 앞산에 굴착기가 올라가자 동네 사람들은 많은 돈을 들여 헛물컨다며 혀를 찼다. 앞산에 두어 번 꽃물이 드는 계절이 지난다 싶더니만, 성공의 밑그림까지 훑날리고 말았다. 다짐만으로 꿈을 이루기는 어려웠는지 경작지는 흐지부지 묵정밭으로 변해버렸다.

아버지의 인생은 늘 출렁거렸다. 재기를 도모하는가 싶다가는 또 세파에 휩쓸리기를 거듭했다. 각다분한 삶을 감추려고 애쓸수록 지켜보는 식구의 마음은 오히려 다 떨어진 나뭇가지처럼 말라 들었다.

가산까지 넘어가자 아버지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붉은 딱지가 평생 지우지 못할 문신 같았는지 낮선 도시로 이사하고도 어깨를 펴지 못했다. 어렵사리 올린 뚝은 풍향조차 가늠하기 어려웠다. 밑짐까지 가벼워 작은 물결에도 균형을 잃어 휘청거렸다. 세상을 호령할 것 같던 목소리마저 쉬어버렸다. 아버지는 방향기를 돌리는 감각조차 희미해져 바다 언저리에서 ‘之’자로 맴돌았다.

아버지는 지천명을 맞고부터 연이어 폐 관련 질병을 앓아왔다. 배 고장처럼 한 곳을 고치면 또 다른 곳이 덜컥됐다. 숨 쉴 때마다 날카로운 흉통에 시달리다가 이순이 지나 큰 수술을 연거푸 한 뒤에는 췌대잡이 역할마저 내렸다. 나사못으로 척추를 바투 잡고 용골이 부러진 몸으로 쇠뿔치에 의지해 직립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관절을 조립한 몸에서 진한 녹내만 풍기다가 만신창이 된 육신은 마음을 곧추세우지 못한 끝에 요양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요양병원은 도심의 섬이다. 거기에는 수많은 폐선이 떠밀려와 쉬고 머물며 정박해 있다. 그곳에 있는 노령의 사람들은 배와 같아 기관을 수리할 수 없거나, 방향기가 말을 듣지 않거나, 스크루가 부러져 더는 움직일 수 없다. 신체에서 붉은 녹물이 흘러내려 섬에는 종일 비린내가 나지만, 오늘이 있기까지 저들의 항해는 숭고하기 그지없다. 험난한 항해에 상처만 남은 아버지도 철제 침대 하나에 닿을 걸었다.

아버지는 정박한 배처럼 늙아갔다. 시간과 비례한 녹이 곰팡이처럼 전신에 번졌다.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수리한 기관마저 기능을 되찾지 못해 덜그럭거렸

다. 숨조차 고르지 못한 아버지는 요양병원이 인생의 마지막 정박지라 여겨졌는지 하루살이처럼 뱅뱅거리던 희망마저 지워버렸다.

땅 위의 외딴 섬에도 한때는 온기가 돌았다. 지인들이 차례로 아버지를 찾아와 물의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닻을 내린 시간이 길어지자 안부를 묻는 발길도 뜸해졌다. 아버지 이마 위에 검버섯이 짙어졌고, 틀니를 뽑아 둔 잇몸 사이로 말이 새어나갔다. 날이 달로 되고, 달이 해로 넘어가자 아버지 인생에도 짙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어스름이 드리워진 그림자는 길고 쓸쓸했다. 갯바위만 덩그러니 지키는 섬에는 간간이 지나가던 철새가 오갈 뿐이었다. 나는 철새처럼 가끔 낡은 뱃머리에 앉아 운율에 맞지 않은 시 한 수 읊조리다가 돌아왔다.

도심의 섬에는 수많은 폐선이 차례차례 일몰을 맞이한다. 그들은 맥없는 이야기로 외로움을 달래지만, 잘나가던 무용담의 끝은 안타깝게도 예측할 수 있는 종점이다. 과거와 미래의 갈림길에서 환영처럼 나타났다가 스러지는 기억조차 붙잡으려 안간힘을 쓰지도 않는다. 삶이 결박당했으므로 낡은 육체도 버릴 때가 머지않음을 잘 알기 때문이라. 하지만 해가 지면 다시 낮선 항해를 꿈꿀지도 모른다.

‘자는 잠에 데려가 주소서.’

그들의 기도에는 욕심이 없다. 더 살게 해달라는 애원도,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원도 없다. 아버지도 그랬다. 한동안 외딴섬으로 가는 처지를 거부했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순히 받아들였다. 옛일을 회상할 때면 젊은 날 나라를 지키고 받은 훈장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러다가 전장에서 삶과 죽음의 능선을 함께 넘나들던 전우가 그리웠는지 홀로 현충원이 있는 산으로 떠났다.

선체를 손끝으로 쓸어본다. 내 등을 굽어주던 손길처럼 꺼질꺼질하다. 아버지 등에 업힌 기억을 좇아 부두로 간다. 수평선 너머에서 짝조름한 내음이 불어온다. 아버지의 땀 냄새다.

창포말 등대

제4회 등대문학상 가작 / 수필

김영근(대구광역시)



기이한 등대가 하나 있다. 청정바다 동해안의 영덕 블루로드 제2구간 출발점에 서 있는 등대이다. 영덕 특산물인 대게가 등대를 안고 있는 모양새다. 더 기이한 것은 등대가 바다에서 쫓겨났는지 육지가 좋아서인지 산모퉁이 언덕배기에 덩그러니 세워져 있다. 지키라는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외롭게 서 있다.

등대는 바다를 지나는 배가 잘 다니라고 그저 눈빛만 보낸다. 그것도 낮에는 빈둥빈둥하고 시간만 보내고 밤이면 제 할 일이 있는지 부산하게 설친다. 누가 봐 주기를 기다리는 듯 지나는 배들을 잘 오라, 잘 가라고 인사를 한다. 또 하는 모습이 음식점의 서비스 안내 요원보다 더 잘한다.

밤이면 제 가슴 속에 품은 불꽃을 언제 그렇게 멀리 힘차게 내 뿜는지 모른다. 몇십 리를 개미 지나가는 것까지 살살이 살핀다. 불도 때지 않은 아궁이에 켜진 불바람이 순식간에 번개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대게의 뱃속은 불을 지핀 대형 화약고이다. 화약의 폭발이 수십 리 먼 길 동해를 누벼 적을 쫓고 있다. 그것도 못 미더웠던지 갇힌 길을 돌아와서는 다시 돌아가기를 수백 번 하고 있다. 입을 다물 때는 눈만 깜빡이던 것이 성이 나면 수평선의 배를 산 위에 올려놓는다.

그러던 등대가 비가 오는 밤이면 울기만 한다. 많이 울어서 시력을 잃는다. 손도 쓰지 않고 눈물 닦느라고 시간을 보낸다. 안 보여도 안 보인다는 말도 못 한다. 달이 비를 거두어 가야 한숨이라도 쉴 수가 있는데 속이 갑갑해도 눈꺼풀 살며시

뜨고 앞을 보려 한다. 비가 온다고 잠만 잘 수는 없다. 안 보일수록 더 살피고 다른 날보다 열심히 나대고 움직여도 빗줄기에 막혀 시각장애인 노릇밖에는 못 하는 것이 안타깝다.

밝은 낮에는 쥐죽은 듯 있다. 간혹 달이 친구이다. 지나는 사람들이 말을 걸어 도 무슨 생각에 잠겨 있는지 한마디 대답도 안 한다. 세상에 이런 언어장애인도 없다. 눈이 보배이지 입은 소용도 없다. 올빼미가 밤에만 활동하고 낮에는 쉬고 있는 모습과 같다. 등대 지붕에 올빼미가 눌러 온 날이 있다. 검은 눈과 산 올빼미의 눈이 멀뚱멀뚱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눈이 뒤에도 있다. 앞쪽을 보고 망을 보며 진을 치고 지나는 배를 안내해야 할 것인데 뒤쪽 산을 보고 있다. 앞쪽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앞, 뒤 모두 보고 있다. 교통순경이 선글라스 끼고 눈동자 감추어 눈알을 어떻게 움직여도 모르게 하듯 등대 계의 눈도 정확하게 어디를 보는지 모르게 하고 있다. 영덕의 블루로드길을 여행하는 사람이 안전히 잘 다니라고 살피는 일을 동시에 하는 것 같다. 밤에는 앞을 지나는 여객선, 화물선 뱃길 안내하기에 바쁘지만, 낮에 할 일이 없으니 덤으로 하는 일치고는 안성맞춤이다.

영덕 블루로드 길을 걷는 사람에게 힘내어 걸으라고 용기를 주고 있다. 자신은 옆으로 걸으면서도 똑바로 걸으라고 일러준다. 똑바로 하는 말과 실제 행동이 달라 매번 실수하면서도 자기 습관대로 한다. 그게 아닌데 틀렸다, 잘 못 걷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잘 못이라 대꾸한다. 자신이 걷는 방식대로 가는 것이 똑바로 걷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다.

등대는 등산객 안전을 살핀다. 한 달에 한 번은 블루로드길 야간 산행 날에 앞바닷길, 뒷산 모두 안내한다. 야간 산행자들과 동행하지는 않지만, 입구에서 잘 갔다 오라고 10개의 다리 흔들어 인사한다. 발 헛디더 다칠까 봐 밝은 눈빛 멀리 가

는 척 가까이 되돌아와 산길 헤매는 발길을 밝혀 준다.

바다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늘도 지킨다. 달이 제 할 일을 하는지 뒤에 숨어서 살핀다. 지나는 배들의 항해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지 보름을 기다린다. 재촉해도 소용이 없고 자신이 하는 일에 도움을 주지 않는데도 빨리 나오기를 기다린다. 때로는 빨리 제집으로 되돌아가는지 살핀다. 할 일을 못 찾았는지 기다리기에 명수인 양, 어둠 속의 왕자처럼 어두워도 좋다, 밝아도 좋다, 어느 편인지 구분이 안 되는 때도 있다. 그래도 어두운 편을 살피며 좋아서 찾아다니고 나 여기 있음을 뽐내는 것 같다.

달이 없을 땐 제 할 일을 더 잘할 수 있는데도 혼자 있기 외롭다고 달을 찾는다. 시간약속을 잘 지키는 달은 등대가 내미는 손 뿌리치고 도망가듯 가버린다. 달이 등대가 잘 있는지 살피러 오는 때도 있다. 밀고 당겨도 밀리고 다녀오는 것이 없어도 반복적으로 은근히 경계하는 것 같으면서 정다운 친구가 되어 주변을 살펴준다.

등대가 달이 못 뜨게 하여 바닷속 대게를 살찌운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름이 될 때까지 활동을 멈추어 기다리며 숨어 살라고 부추긴다. 그름 즈음에 잡히는 속살이 많은 대게 친구에게 다음 보름 동안 활기차게 잘 놀다 오라고 선심을 베푼다.

해일이 나면 바다 일을 못 하니 남자들이 할 일이 없다. 고작 집안에서 부인만 사랑하는 일을 한다. 그러니 작은 동네에 같은 날 생일인 친구가 여러 명 나온다. 해일 덕분에 등대가 지켜준 뱃속 선물이라고 어려운 날이 많은 줄 모르고 좋아한다. 그 반대도 있다. 미쳐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하여 해일을 만나 저승에 간 사람들도 있다. 해일이 큰일을 저질러 한 집안 부자의 목숨을 영원히 잠들게 하여 제삿날이 같은 날 여러 집이 생긴다. 그래도 등대는 지켜준다고, 제 할 일을 다 한다고

가만히 제자리만 지킨다. 전파 탐지기로 얻은 신호 미리 알려주어야 할 것도 잊은 채 제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여긴다. 바다에 던져진 제사 산물 음식 넘겨만 보고 잘 먹은 양 눈 감으면서 용서해 주기만 마음속으로 빈다.

등대는 바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길잡이이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 생활의 길잡이가 있다. 형시 비춰주고 살피주고 있어도 그 고마움을 모르고 지나친다. 가다가 막히고 어려우면 되돌아보고 갈 길을 찾을 때 마음의 중심을 찾는다.

창포말 대게 등대는 산모퉁이에서 바다와 육지의 안전을 살피주는 초병으로 오늘도 지나는 사람들이 보내주는 미소를 머금고 있다.



제4회 등대문학상 수상作品集

발 행 일 : 2016년 12월 15일

발 행 인 :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정수철

발 행 처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88번길 6 (매암동)

전 화 : 052-228-5680~5682

홈페이지 : <http://ulsan.mof.go.kr>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항만공사



항로표지기술협회

